



6

주체98(2009)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8(2009)년 제6호

(루계 제 740 호)

차 례

6 월 19 일	3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4
신묘한 도하작전	4
주체문학의 대강	5
9 분 2 초	5
6 월의 해돋이	6
상봉	7
밝은 슬기	8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창조된 주체형의 혁명전사의 빛나는 형상	9
가림천의 물결소리	13
어머님앞에 장군님은 서계셨습니다	14
날마다 새기는 마음	15
불보라 흐르는 강반에서	16
할 말을 찾지 못해	17
나의 집, 나의 거리 외 1 편	17
탄부와 불	18

포전과 나의 생각	34
《탄약수》 처녀	34
사랑의 샘물 외 2 편	35
조소, 경멸(멸시).....	36
나락이 익을무렵	37
잠잘 때 주의해야 할 10 가지 사항.....	48
열매는 어떻게 무르익는가.....	49
소원.....	54
당원증 외 1 편	55
아버지마음	56
쫓은 좋아.....	56
경구, 격언	56
《나》의 시점에서의 서정시인.....	57
밤알이 떨어지는 소리	60
전쟁에 대한 이야기	61
모기를 죽여버리는 특수한 군복.....	61
한식술 한가정 외 2 편	62
쪽거울.....	63
붉은광장 열병식 외 3 편	64
뢰성이 울린 후	66
침묵 외 1 편	77
아, 통일아 통일아!.....	78
《홍루몽》	79
《구두미싸일》 외 1 편	80

6 월 19 일

김 춘 길

우리 날마다 펼쳐보는 일력에도
그날은 붉은 표식으로 되어있지 않다
마흔다섯해전 그날 평범한 모습으로
우리 당중앙위원회에 첫 자욱 새기신
그날은 아 그날은 평범한 날이었다

이슬젖은 가로수잎들이
해살에 반짝이며 설레던 아침
수수한 차림새로 소박한 인사 나누시며
조용히 사무실에 들어서시던
잊지 못할 6월 19일이여

누구나 다 앉는 보통의자와 책상
그 의자 그 책상에 스스럼없이 앉으시여
첫 사업을 시작하신 그날은 정녕
평범한 날이었던가

그이에겐 남다른 환영이 필요치 않았다
그이는 특수한것을 바라지 않으셨다
수령님전사의 책임감으로
인민 위해 다바치실 그 하나의 일념으로
분과 초를 태우시며 일하셨고
낮과 밤을 이으신 위대한 령도로
헌신의 자욱을 새겨가시였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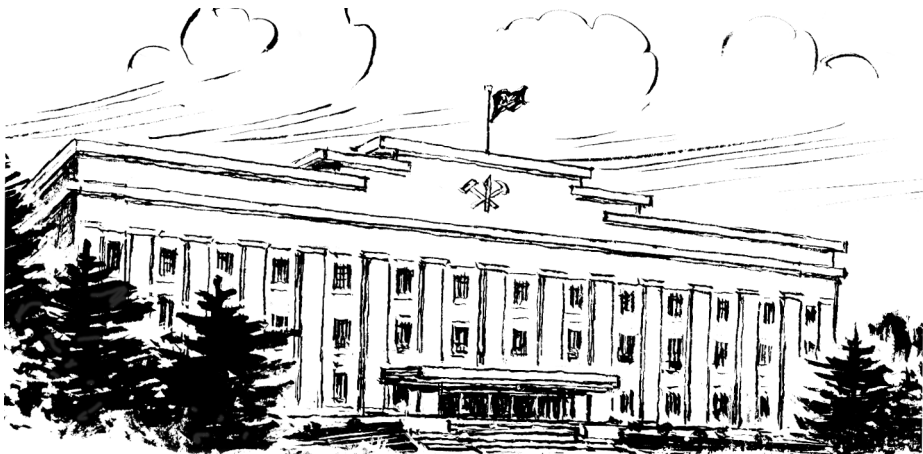
그이도 인간이시기에
어찌 힘들지 않으셨으랴
겹쌓인 그 모든 피로를

룡남산의 맹세로 이겨내시며
바쳐오신 마흔다섯해
인민 위해 바쳐오신 헌신의 나날은
우리 당을 이끌어오신 백승의 력사이거니

위대한 당의 령도자이시기 전에
자신을 인민의 심부름군으로 여기시며
수수한 평민의 모습으로
애국헌신의 자욱을 걷고걸으시는
그이는 정녕
인민의 위대한 아들이시였다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오신
우리 장군님의 자욱을 따라
이 땅에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의 그날이 다가오고
선군의 력사와 더불어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마중오거니

아, 6월 19일
바쳐오신 기나긴 성상
우리 당 건설에 쌓으신 불멸의 업적
인민 위해 모든것을 바치신 그 로고
탑으로 쌓으면 하늘에 닿으려니
마흔다섯해전 그날은 정녕
평범한 날이 아니였다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가 담보된
위대한 력사의 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 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부대가 곤장덕에 올랐을 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 구령도 없이 갑자기 대렬이 흩어지는 것이었다. 대원들이 저마끔 흠을 움켜서 배낭속에 넣고있었다.

지휘관들도 뒤질세라 조국의 흠을 간수하였다. 22만km²라는 나라의 땅덩어리에 비하면 한줌의 흠이라는것은 너무도 작은 것이었다. 그러나 그 한줌의 흠에는 삼천리가 담겨있고 2천 300만이 담겨있었다. 그것은 하나의 웅근 조국과도 같이 귀하고 소중한 것이었다.

오늘은 우리 비록 한 거리를 치고 가지만 래일은 100개의 거리, 1000개의 거리를 치리라. 지금은 우리 비록 한줌의 흠을 안고 가지만 래일은 온 나라를 다 해방하고 독립만세를 부르리라! 우리는 이런 맹세를 다지면서 압록강을 다시 건넜다.》

백두산전설

신묘한 도하작전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법과 령활무쌍한 령군술을 칭송하는 수많은 혁명전설들이 생겨났다.

그가운데는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압록강에 종이 한장을 띄우시고 군사를 건너지었다》라는 전설도 있다.

이 백두산전설이 력사적인 보천보전투승리후에 널리 퍼지게 된것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신묘한 압록강도하작전과 련관되어있다.

아버지수령님께서서는 보천보전투를 두고 만국평화회의장 문전에 나타나 일본의 죄악을 고발하며 렬강들에게 독립을 구걸하던 조선이라는 약소국에 세계5대강국의 일원임을 자랑하는 일본군을 사정없이 쳐갈기는 혁명군대가 있으며 그 군사들이 일제가 축성한 《금성철벽》을 바람처럼 넘어 들어가 침략자들을 호되게 징벌하였다는 사실은 세계적인 판도에서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않을수 없었다고 감회깊이 회고하시었다.

당시 일제침략자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진출을 막아보려고 국경경비를 강화하는데 피눈이 되어 날뛰었다. 적들은 1선, 2선, 3선도 모자라 4선으로 경계진을 쳤다. 북부국경지대에 설치한 경찰서, 경찰관주재소들은 수백여개를 헤아렸고 여기에만도 굉장히 많은 폭압무력이 배치되어있었다. 기동성도 여간이 아니었다.

압록강에는 기관총을 설치한 발동선이 떠있었다. 비행기까지 아무때든 출격할수 있게 대기상태에 있었다. 해산경찰서에서는 국경특설경비대라는 정예부대가 언제든지 출동할 준비를 갖추고있었다. 압록강안의 경찰기관들에는 기관총과 탐조등들이 배치되어있었다.

일제는 국경경비진을 《금성철벽》이라고 떠들며 말그대로 압록강을 넘나드는 날새 한마리도 감시에서 놓치지 않을 태세였다.

이 모든것을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떻게 하면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적의 조밀한 국경감시망을 번개처럼 뚫고들어가 적을 답새기고 번개처럼 빠져나오는 전격전을 벌릴수 있겠는가를 면밀히 타산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적정과 지형정찰을 여러 갈래로 깊이있게 조직하시어 국내진공작전을 완전히 무르익히신 다음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인솔하시고 주체26(1937)년 6월 3일 밤 구시물동을 통해 압록강을 건너지었다. 구시물동에는 폐목다리가 놓여있었다. 압록강의 물결을 타고 흘러내리는것으로만 알던 폐목이 순식간에 훌륭한 다리로 된것이였다.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선발대성원들이 한발 먼저 가서 눈깜박할 사이에 취도새도모르게 다리를 놓은 것이었다.

강반을 뒤덮은 어둠과 구시물동의 소연한 물소리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도하를 감싸주었다. 잠간사이에 벌어진 일이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있던 일제군경들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강을 건는 기미를 조금도 알아채지 못하였다.

보천보에서 녹아난 일제는 깜짝 놀라 아무리 머리를 쥐짜도 조선인민혁명군이 언제 어떻게 그토록 감쪽같이 압록강을 건너왔다 사라졌는지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인민들은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의 신묘한 도하작전을 두고 천출명장 **김일성**장군님께서 축지법을 쓰신다고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그러한 가운데 생겨난 말이 《**김일성**장군님께서서는 압록강에 종이 한장을 띄우시고 군사를 건너지었다》라는 것이었다.

이것은 그대로 백두산전설이 되어 우리 인민들에게는 필승의 신념을 북돋아주고 적들에게는 커다란 공포를 안겨주었다.

|| 주 체 문 학 의 대 강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으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옹호고수하고 대를 이어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작가, 예술인들속에서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야 한다.

혁명전통교양에서는 당과 수령의 위대성교양과 업적교양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작가, 예술인들이 로동계급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우리의 혁명적문학예술전통을 이룩하고 계승발전시킨 당과 수령이 얼마나 위대하며 당과 수령이 쌓아올린 혁명업적이 얼마나 귀중한것인가 하는것을 잘 알도록 하여야 한다.》

9 분 2 초

리 광 선

길지 않았다
우리의 자랑스런 위성이
지심을 울리며 창공으로 솟구쳐
궤도에 진입한 그 시간은

길지 않았다
오랜날을 다지고다진
우리의 국력이
얼마나 거대한것인가를
온 세상에 파시한 그 시간은

9분 2초
그 시간을 위해
이 나라 반만년력사가 흘러왔는가
그 시간을 위해
선군의 자랑스런 세월이
이 땅우에 굽이쳤는가

그 시간을 위해
한평생 공격전의 앞장에서
험난한 길을 헤쳐오신분이 있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한평생 야전차에서
내리지 않으시는분이 있다

이 나라 력사의 태엽에
그 시간을 감으시기 위해
선군의 천만리 장정을 이어가시며
이 땅에 새겨오신
불멸의 자욱자욱

9분 2초
그 시간은
민족의 위대한 영웅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
김일성 민족의 자랑스런 영광으로
선군의 세월에 새겨놓으신 시간

그 시간은
반만년력사와 함께 흘러오던
자주강국의 그 속망을
순간에 이루어놓으시여
강성대국의 찬란한 현실을
눈앞에 그려보게 해주신 시간

그 시간은
이 땅우에 흘러갈 천만년 세월을
선군의 총대로 단숨에 당겨
승리와 영광의 세월로
우리 민족앞에 놓아주신 시간

길지 않았다 그 시간은
허나 우리 장군님
한평생 조국과 민족 위해 바쳐오신
수천수만의 시간이 빛발치는 시간

정녕
그 현신의 고귀한 시간들을 이어
인민이 천만복 누리며 살아갈
영원한 시간을 담보하는
오 9분 2초!

6월의 해돋이

김 정 삼

고요한 이른새벽.

새벽녘 바다.

아직도 깊은 잠에서 깨지 못한듯 바다는 질푸른
머명속에 누워 눕실거리고 갈매기들의 울음소리조
차 들을수 없는 이 시각.

명상곡의 선율인양 은은히 들려오는 잔파도소리
를 들으며 먼 수평선에 눈길을 주는 이 심정은 지
금 그 무엇을 기다리고있는가.

나는 지금 바다가에서 해돋이를 기다리고있다.
해돋이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많은 문인들이 이
야기하여왔다.

하지만 나도 오늘 또다시 6월의 해돋이에 대해
말하려 한다.

이 마음속 충동을 누를수 없어 이 기슭으로 나
왔다. 왜서인지 이 아침의 해돋이를, 동해에 솟
아오르는 6월의 태양을 선참 맞이하고픈 류다
른 이 감정.

정적 깃든 바다가를 거닐며 나는 지금 그 잊지
못할 영광의 기슭으로 사색의 물결을 일어간다. ...

주체53(1964)년 6월 19일 소박하고 겸허하신
모습으로 한여름의 청신한 아침공기가 흐르는 당
중앙구내길에 들어서시던 20대의 젊으신 우리
장군님.

우리 당과 조국의 력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되는
그날은 어이하여 그리도 조용히 밝아왔던가.

마치도 빛의 시작점과도 같이 그날은 소리
없이 밝아왔어도 조선을 온 누리에 펼쳐가시
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심장속에서는 룡
남산의 맹세가 끓고있었거니 그날로부터 얼마나
영광에 찬 력사의 대하가 인류의 경탄속에 용용히
굽이쳐왔던가.

세월이 머리회도록 찾아헤맨 진리의 등불이
그이의 심원한 예지앞에 시대의 화불로 타오르고
수억년세월도 이룩하지 못한 기적의 랍들이 그이의
신념의 송가가 되어 이 땅우에 거연히 일떠섰다.

그이 뿌리시는 사랑의 해빛으로 마음속 한점 그
늘마저 가시고 고마움에 들떡이는 가슴가슴들.

그 빛발 어려 행복에 겨운 눈동자들마다 로동당
시대는 그리도 아름답게 비끼고 그리도 벅찬 숨결
로 약동하는것 아니던가.

오늘도 산원의 창가를 활짝 열며 힘차게 울려나

오는 새 생명들의 고고성과 탐구의 눈동자들이 반
짝이는 강의실들, 무릉도원으로 변천하는 내 조
국의 자랑찬 화폭들이 어찌 세월이 안아온것이다
하랴.

인민은 보았다. 제국주의자들이 몰아오는 무
서운 불구름이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삼키려 밀려
들 때 선군의 장검을 높이 추켜드신 백두산령장의
그 모습에서 당중앙창가에 드높이 올렸던 6월
의 그 신념으로 하여 세계를 진감시키며 《광명성
2호》가 우주로 날고 강성대국의 대문을 힘차
게 두드리는 총진군의 발구름소리가 누리를 들썩
하게 울리는것을.

6월의 억센 의지가 비껴 장군님 오르셨던 철령
의 철쭉은 인민의 마음속에 세월 넘어 더욱 붉고
6월의 그 첫자욱이 있어 오늘도 초도의 사나운 파
도는 인민의 마음속 기슭에 걱정의 물보라를 일으
키는것 아니더냐.

향도의 그 6월이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순간의
동란과 좌절도 모르고 승승장구의 일로를 곧바로
걸어올수 있었고 이 땅우에 가장 아름답고 풍요한
삶의 화원이 만발할수 있었다.

하기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당중앙위원회에
서 사업을 시작하신 45돛이 되는 경하로운 이 아
침 인민이 터치는 심장의 메아리가 울리고있다.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모신 내 조국에서는 향도
의 그 6월속에 빛나는 승리의 세월이 이어지고 행
복넘친 인민의 삶이 약속되어있는 강성대국의 대
문이 활짝 열리리라는것을.

《끼르륵》, 《끼르륵》

잠을 깬 갈매기들의 다급한 울음소리에 나는 어
느덧 명상에서 깨어났다.

새벽빛이 서리운 일망무제한 바다가 별안간 웅
실웅실 뒤설레기 시작했다.

하늘과 바다가 맞붙은 먼 한끝에서 한가닥 붉은
빛이 발산하는가싶더니 일순 그것은 확 퍼지며 누
리를 급격히 불태우기 시작했다.

쿵쿵! 심장이 뛴뛴 숨결은 빨라진다.

아, 대양의 넓은 한복판에서 용암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가, 별안간 거대한 불덩어리가 그 눈부
신 머리를 드러내며 두둥실 떠오르기 시작했다.

태양은 그 감출수 없는 빛과 열로 새날의 우주

상 봉

박 세 일

헤어져 60년...
아득한 세월의 공간우에
그리움의 다리 놓으시고
오산덕에 오르신 장군님
어머님동상앞에 숭엄히 서계시다

어머님은
항일의 포연스민 군복차림 단정히
장군님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장군님은
색날은 야전복자락에 묻은
철산봉의 쇠돌가루 미쳐 털지 못하신채
추억의 대문에 들어서시고...

평양을 떠나
곧장 오신 걸음이 아니여라
홍남과 라남
대련합부대와 군항...
선군령도의 자욱자욱 연장선우에
유서깊은 회령이 있었나니

헤어져 60년...
백두의 녀장군과
오늘의 빨찌산 김대장과의
뜻깊은 상봉이여

헤어져 60년
마음과 뜻을 같이하며
백두의 행군길에
언제나 함께 계신
장장 수십성상

그 세월의 승리를 축복하시며
빨찌산시절의 그 차림으로
가야 할 전선길 천만리에
언제나 함께 가실
그 심중의 미소 보내실 때

오산덕의 백살구숲은
하얀 눈꽃을 피우고
고귀한 추억과
심장의 대화속에
해빛이 눈부신 상봉의 언덕에
숭엄한 고요는 흐르는데

아 백두의 녀장군
소중히 품에 안은
진달래꽃송이
김일성조선의 창창한 미래로
선군승리 꽃다발로 설레이고있어라

공간에 무한한 생기와 열정과 활력을 부어주며 축복의 미소를 훨훨 날리는듯싶었다.

장엄하고도 거룩하며 신비로움에 가득찬 태양을 향하여 천갈래 만갈래의 물결이 환호를 울리며 달려가고 바다의 온갖 새들이 기쁨의 나래를 한껏 저으며 흰구름떼마냥 날아가는듯싶었다.

나의 온몸의 혈관으로 더운 피가 세차게 줄달음치고 났은 불길이 되어 날아간다.

아, 태양을 마주한 이 마음속에 경건히 떠오르는 거룩한 영상이여!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경애하는 장군님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또다시 높이 추대한 감격과 환희에 넘쳐 마흔다섯해전 그날의 감격을 되새기

는 이 아침 얼마나 환희로이 밝아오는 내 조국의 아침이나.

얼마나 한없는 행운에 목메이는 이 나라 인민이나.

세차게 일렁이는 이 드넓은 바다의 장엄한 기상 이야말로 경애하는 장군님 높이 모신 내 조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니 솟아오르는 저 붉은 태양도 내 나라와 우리 인민모두의 운명에 밝아온 그 6월의 해돋이로 걱정 of 의미를 새삼스레 안겨주며 떠오른다.

인민을 안고, 인민의 운명을 안고 이 땅에서 향도의 6월은 거세차게 흐르고있다.

조선의 세월을 통성번영의 한길에로 드림없이 이끌며...

밝은 슬기

리영삼

려명이 다가오는 새벽무렵
어랑천과 동해가 서로 만나 설레는 곳에
번듯하게 꾸며놓은 덩장에서
구성진 선소리가 울려 퍼지네

—어야디야 어기여차
코코마다 걸렸구나
어기여차 힘주어라
어기여차 당겨보세

앞소리를 받아넘기는 뒤소리가
더 쟁쟁히 울리는 배전에
떼들은 줄지어 늪실거리고
노을은 보일듯말듯 실웃음을 짓네

우람찬 팔들이 추어올리는 그물에서
이따금씩 툭툭 건드리는 장난기가
너래송어가 아닐가싶은데
점점 사나와지는 거동이 이상하게 느껴지네

무엇일가 궁금한 생각에 잠긴 호기심이
가슴을 조이며 다가서는 보장에서
갑자기 뿜어오르는 세찬 물살이
뜻밖의 암시로 긴장된 순간

재빨리 입구를 막아선
젊은 선장의 발구르는 소리에 놀랐는가
불시에 떠오른 커다란 지느러미들이
표대처럼 물결을 가르며 여기저기 덩벼치네

너무도 희한한 광경에
주춤거리는 망설임을 다잡아주며
다랑어라고 소리치는
선장의 얼굴에 만족스런 기쁨이 피어나네

얼마전 포구를 찾아주신 우리 장군님
해도를 짚어주시며 동해에서 볼수 없던 다랑어도
울수 있으니
잡도리를 단단히 하라시던 그 말씀
천리해안의 그 예지 심금을 울려주네

인디아양에서부터 어랑단까지
무한대한 그 예지에 사랑의 물결이 열렸는가
단숨에 대양을 넘어온 다랑어무리

장군님의 선견지명을 눈앞에 현실로 펼쳐놓았네

아 일제히 터치는 감탄과 환성이여
구름꽃 노을꽃은 더 붉어지고
은실금실 뒤집는 파도
후더운 가슴에 어리광치듯 설레이네

이 만선, 이 기쁨을 마련해주신
크나큰 은덕을 가슴에 새기며
바위같은 어깨들이 들먹이고
억실억실한 눈빛들이 절로 젖어지네

—어구야 디여차
장군님품에 안긴 이 바다에
어구야 디야 어구여차
사랑에 뿜는 마음 불타오르네

뛰어오르는 꼬리힘이 그물을 찢는다고
퍼올리는 산대목이 휘어든다고
짧으나 쟁쟁하게 주고받는 웃음속의 소리에
갈매기떼들도 흰 나래 저으며 원무를 펼친듯

펄펄 뛰는 육중한 몸집이 그대로 옮겨지는
배밑창이 금시 꺼질듯
눈앞에 떠오른 기쁨의 무지개는
달아오른 얼굴에 신바람 일으키네

이윽고 마지막차례로 갑판에 실리는
다랑어의 크기가 제 키를 넘는다며
발끝을 세워보는 즐거움에는
로동의 흥겨운 희열이 어려 빛나네

들끓는 환희에 새날은 밝고
어랑천 덩장의 희소식에 들끓는
포구로 서둘러 배머리를 돌리며
가슴에 차오르는 생각 한결같아라

밝은 슬기
빛나는 예지로 안겨준
이 환희, 이 기쁨 그대로 실어
아버이장군님께 보여드리자며
솟는 해를 마주한 어로공들
간절한 그리움이 가슴에 뜨겁게 끓고
바다도 진정 못해 출렁이고...

력사적 사실에 기초하여 창조된 주체형의 혁명전사의 빛나는 형상

—장편소설 《광야의 별》에 대하여—

류 윤 화

안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우리 나라 력사상 처음으로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아들딸들로 혁명무력을 창건하신 잊지 못할 안도, 그 이름만 불러봐도 우리모두의 가슴은 후더웁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갓 창건된 항일혁명의 첫 무장대오를 이끄시고 안도를 떠나신 후에도 안도에서는 혁명의 불길이 더욱더 거세차게 타올랐으니 그 앞장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시는 조선이 낳은 걸출한 혁명투사이신 안도의 공청비서 김철주동지께서 서계시였다.

장편소설 《광야의 별》(최봉무 작)은 언두부 두 접시를 놓고 위대한 수령님과 작별하신 김철주동지께서 안도지구에 조성된 엄혹한 시련과 난관을 뚫고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결사관철하신 투쟁과정을 실재한 사실에 기초하여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력사문헌적인 성격을 살리자면 중요인물의 관계와 사건줄거리를 비롯한 작품의 기본대가 력사적 사실에 맞아야 한다.》

장편소설 《광야의 별》은 실재한 인물들과 사건들에 기초하여 구성의 대를 세우고 김철주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창조함으로써 력사문헌적인 성격이 뚜렷한 혁명소설이다.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혁명투쟁업적을 소중히 간직하고있는 잊을수 없는 토기점골과 량강구, 소사하, 다진강... 실로 김철주동지께서 걸으신 혁명투쟁의 고귀한 자취를 따라 펼쳐지는 예술적화폭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무한히 충직한 혁명전사의 참된 삶은 력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리고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안도의 하늘가에 빛나는 태양의 위성

바야흐로 우리 나라가 강성대국의 문어구에 들어서고있는 오늘 우리는 크나큰 민족적공지를 안고 조국과 민족앞에 쌓아올리신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혁명투쟁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

이 전하려는 시대와 인민의 지향을 담은 장편소설 《광야의 별》은 김철주동지께서 벌리신 혁명활동의 일부를 서사시적화폭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작품은 김철주동지께서 량강구의 객주집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헤어지신 주체21(1932)년 가을부터 그 이듬해 두의순항일구국군부대와 힘을 합쳐 쌍병준의 적들을 습격하여 승리를 이룩한 주체22(1933)년 여름까지를 시대적배경으로 하고있다.

이 시기 안도일대의 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일제의 안도 대 《토벌》이 눈앞에 닥쳐오자 일제에게 아부굴종하는 놈들은 머리를 쳐들고 애국력량을 탄압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세는 하루빨리 유격대오를 늘이며 소사하유격구를 보다 안전한 다진강으로 옮기고 일제의 민족리간책동을 짓부시면서 항일구국군과 련합전선을 형성할것을 요구하였다. 바로 이 투쟁의 앞장에 김철주동지께서 서계시였다.

소설에서는 무엇보다먼저 조선이 낳은 걸출한 혁명투사이신 김철주동지를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옹호고수하고 끝까지 관철하는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전위투사로 형상하고있다.

김철주동지께서는 량강구의 객주집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작별하시면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자신의 혁명투쟁에서 좌우명으로 삼고 그 실현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치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앞으로 반일자위대와 유격대원으로 자라나게 될 소년탐험대의 군사훈련도 토기점골등판(위대한 수령님께서 반일인민유격대의 창건을 선포하신 곳)에서 조직하시기도 하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지키는데서 추호의 양보도 하지 않으시는 김철주동지의 형상은 소사하유격구를 다진강으로 옮기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보다 예리하게 그려지고있다. 사실 소사하유격구를 다진강으로 옮기는가 옮기지 않는가 하는것은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 하는 사상적문제였다. 하기에 김철주동지께서는 리역만이 현당의 《지시》요, 《우경투항주의》요 떠벌일 때 격분에 넘쳐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것은 피할수 없는 놈들의 〈토벌〉 만행으로부터 혁명력량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말씀

을 삼가하십시오. 우리 구당과 구공청은 소사하유격구를 직접 꾸려주신 **김일성**동지로부터 그 임무를 받았습니다.》

화룡현과 돈화현을 강점한 일제가 드디어 안도침략을 시작하였을 때 김철주동지의 뇌리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북만으로 떠나시면서 주신 가르치심에 따라 열렸던 구당위원회 긴급회의가 떠오르고 소사하유격구를 다진강으로 옮긴것이 얼마나 정당한것인가를 현실적으로 느끼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안도땅에 일제의 피비린 살륙만행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하시며 구공청위원회를 여시고 유격대오를 확대하고 항일구국군과 련합전선을 형성하여 일제와 맞서 싸울것을 결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김철주동지의 숭고한 형상은 두의순항일구국군과 반일련합전선을 형성하시는데서 절정을 이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서 이렇게 회고하시였다.

《그는 자청해서 어려운 반일부대와외의 사업도 하였다. 그는 반일부대 병사들과 함께 대전자시가를 습격하는 전투에도 참가하였다. 그가 관계하였던 두의순이 지휘하는 반일부대는 일본군의 간도로벌대와 잘 싸웠다고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다진강유격대 당위원회 앞으로 보낸 통신에서 이렇게 쓰시였다. 《특히 두의순부대를 비롯한 구국군소부대들이 많이 집결되어있는 안도에서 그들과의 협공은 다진강유격대와 혁명조직들앞에 나선 선차적인 혁명과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일제의 간교한 민족리간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우심해지고있는 지금이야말로 반일련합전선을 더욱 확대강화할것을 절박하게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안도에서는 두의순과 손을 잡는것이 중요합니다.》

오래간만에 형님의 낯익은 필적을 마주하신 김철주동지의 가슴은 울렁거렸고 도무지 마음을 진정할수 없으시였다. 사실 구국군과 반일련합전선을 형성하는 문제는 생사를 판가리하는 어려운 문제였다. 하기에 김철주동지께서 두의순부대에는 자신이 직접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을 때 다진강유격대 정치위원 김정룡, 다진강유격대 대장 김일룡은 펄쩍 뛰면서 그 일만은 자기들이 맡아야 한다고 우겨댔다. 이때 김철주동지께서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며 뜨거운 걱정을 불러일으킨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저는 김성주의 동생만이 아니라 반일인민유격대 대장인 **김일성**동지의 전사입니다. 그분의 로선을 누구보다 앞장에서 받들고 관철해야 할 제1전사, 청년전위입니다. 그것을 떠난 김철주가 과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김철주는 이 세상에 존재할수 없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무조건 관철해 나가시려는 김철주동지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앞에서 공산당과 무산혁명을 반대하던 두의순은 마침내 일제와 그 주구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항일유격대와 함께 한전호에 서게 되었다.

김철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여 두의순항일구국군과 반일련합전선을 이룩한것은 김철주동지께서 지니신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었다.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펴주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기치를 높이 들고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100돐이 되는 주체101(2012)년에는 기어이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기 위한 투쟁에서 정신력을 최대도로 분출시키고있다.

소설에 펼쳐진 조선이 낳은 걸출한 혁명투사이신 김철주동지의 숭고한 형상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닌 정신력에서 가장 근본핵을 이루는 수령결사옹위정신이 류레없이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시기 만경대혁명일가분들에 의하여 그 빛나는 전통이 마련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승되어왔다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인하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 소설의 철학적심오성이 있으며 생활의 교과서, 투쟁의 무기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근본요인이 있다.

소설에서는 다음으로 조선이 낳은 걸출한 혁명투사이신 김철주동지를 뜨겁고 풍부한 인간성을 지니신 혁명가로 형상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옹호관철해나가는 김철주동지의 숭고한 형상에는 인간을 사랑하고 아끼는 아름다운 정신과 품성이 놓여있다.

김철주동지께서 지니신 뜨겁고 풍부한 인간성은 사상과 주의주장, 민족을 초월하여 모든 반일력량을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는데로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였다. 두의순부대를 반일련합전선에 묶어세우는데서 두의순의 부관인 장푸판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푸판, 김철주동지를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그는 일제의 민족리간책동에 귀를 기울이며 조선사람을 적대시하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김철주동지께서는 부상당한 그를 다진강유격구의 병원에서 입원치료하도록 할뿐아니라 당장 수술을 하지 못해 생명이 위급할 때에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안도시내에 들어가 수술도구를 가져오신다. 김철주동지의 뜨거운 인간애, 정성에 의하여 병이 완치된 장푸판은 목이 메여 말을 하지 못한다.

김철주동지께서 지니신 인간애가 어떤것인가를 보여주는데서 평귀부자사건(구국군병사 평귀가 적들에게 《밀고》하여 두의순반일부대병사들이 살해되었다는 사건)은 중요한 형상적의의를 가진다. 장푸판에게 편지 한장 보내면 체면을 세울

수 있었으나 김철주동지께서는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 해도 사실을 밝혀줘야 합니다. 그러자면 평귀부자의 소행을 목격한 내가 가야 합니다. 누구도 대신할수 없습니다.》라고 결연히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주란장부대에 찾아가시어 평귀부자의 오명을 벗겨주신다. 그후 장푸판으로부터 두름봉에서 참살당한 중국병사들을 안장해주시고 평귀부자의 오명까지 벗겨준 청년이 김철주동지이시라는것을 알게 된 두의순은 김철주동지의 인품에 매혹되었으며 나중에는 반일공동전선에 나서게 된다. 소설에서는 김철주동지께서 지니신 뜨겁고 풍부한 인간성은 만경대가문에서 형성되었음을 구체적인 세부형상을 통하여 밝히고있다. 쌍병준의 가병인 무령(후에는 김철주동지의 영향을 받아 혁명투쟁에 참가함.)은 팔도구에서 노래를 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지형제의 동생이었다. 어느날 여덟살의 어리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조선거지새끼라고 놀려대는 경찰서장의 아들놈을 뺨다팍으시고 거지형제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시였다.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녀사께서는 중강진에 있을 때 그 애들을 본 기억을 되살리시면서 깨끗이 목욕시켜주시고 김철주동지께서 입으시던 옷까지 입혀주시며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는 강반석녀사께 자신이 개학식 첫날에 입으셨던 바지까지 무령에게 입혀주자고 말씀드린다. 뿐아니라 주체13(1924)년 초봄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한 소년의 중처를 수술하여주신 후 강반석녀사께서는 매일 소년의 수술자리를 소독해주시였다. 이것을 보신 김철주동지께서는 살얼음진 팔도강에 나가시어 새살이 돌아나는데 좋다는 산천어를 잡아옴으로써 부모님들을 기쁘게 해드리신다. 이렇게 만경대가문에서 자라나신 김철주동지이시기에 무주툰마을의 중국인내외가 독사에게 물린 아들을 놓고 분주탕을 피울 때에도 주저없이 뱀의 이발자리가 난 부위에 입을 대고 힘껏 빨아 뱀독을 뽑아주시어 조선사람들은 물론 중국사람들까지 감동시키시였다.

소설은 김철주동지께서 지니신 뜨겁고 풍부한 인간성은 만경대혁명일가분들이 지닌 고결한 인품에서 형성되시였음을 형상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모두가 따라배워야 할 본보기로 된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소설에서는 다음으로 조선이 낳은 걸출한 혁명투사이신 김철주동지를 문화정서적소양이 높고 다정다감한 열혈청년으로 형상하고있다.

김철주동지께서는 무송에서 새날소년동맹 선전책으로 활동하시였고 소사하에서는 구공청위원회 비서로 사업하시였으며 그후 안도 반일부대 공작부장의 중임을 지니고 일하시였다. 이러한 사

업에서 성과는 김철주동지께서 지니신 다정다감한 품성과 높은 문화적소양에 의하여 담보되였다.

소설에서는 다진강유격구에서 아동단연예대를 조직하시고 그 활동을 조직지도하시는 이야기를 통하여 김철주동지께서 지니신 다정다감한 품성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깊이있게 형상하고있다.

구국군부대의 방문을 위해 달리는 연예대의 말발구에서 울려퍼지는 혁명적랑만의 세계는 참으로 이채롭다. 《5련발》의 하모니카소리, 유쾌한 유정금의 랑랑한 웃음, 자기를 안고계시는 김철주동지의 코를 잡아당기자 일부러 코맹맹이소리를 내며 엄살을 부리는 김철주동지를 울려다보며 좋아라고 깔깔 웃어대는 귀인성스러운 소정이의 모습...

김철주동지께서는 직접 연극 《친정어머니에게서 온 편지》에 출연하시기도 하시고 나어린 소정이가 독창 《소무옥양》을 부를 때에는 바이올린선물로 반주를 해주시였다. 김철주동지께서 직접 조직하신 연예공연은 그야말로 만사람들을 격동시켰으며 구국군병사들과 장교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기였다.

소설에서는 바이올린에 대한 세부형상을 통하여 김철주동지께서 지니신 높은 문화적소양과 다정다감한 품성을 깊은 정서속에서 펼쳐보이고있다. 어머니의 봉분을 찾으신 그날 밤 어머니의 체취가 스며있는 토기점골의 집에서 동생들과 마지막밤을 보내시는 위대한 수령님께 김철주동지께서는 가요 《가을밤》을 바이올린선물에 담아 켜드리시였다. 은은하게 울리는 바이올린선물은 고요한 소사하의 밤하늘로 끝없이 울려퍼졌다. 그후 김철주동지께서는 그때를 회상하시며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혁명투쟁에 더욱 분발하시였다.

소설은 엄혹한 안도의 정세를 펼쳐보이며 그속에서 혁명앞에 가로놓인 난관과 시련을 뚫고나가는 과정을 그리고있으나 그속에는 혁명적랑만의 세계가 펼쳐져있다.

소설에서 풍겨오는 정서가 짙은 향기와 혁명적랑만—이것은 김철주동지께서 지니신 다정다감한 품성에서 풍겨오는 향기이며 높은 문화적소양이 펼쳐놓은 형상세계이다.

력사적사실에 대한 예술적일반화

장편소설 《광야의 별》은 조선이 낳은 걸출한 혁명투사이신 김철주동지의 혁명투쟁사적에 기초한 혁명소설이다. 따라서 소설에 나오는 기본인물들과 사건들은 실재한 력사적사실이며 여기에 기초하여 작품의 기본대가 세워지고있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김철주동지의 관계를 아버지수령님의 인간적풍모의 위대성을 보여줄 수 있게 극적으로 맞물려있다.

력사에 길이 전해지고있는 토기점골의 그밤, 이제 날이 밝으면 부모를 잃은 두 동생과 리별해야 할 위대한 수령님께서 자신의 무릎을 베고 쉼근쉼근 잠이 든 막내동생의 머리를 쓰다듬고 또 쓰다듬으시었다.

《마침내 그 정적을 깨뜨리며 철주동지께서 먼저 입을 여시었다.

〈형님, 래일 꼭 떠나야 해요?〉

〈떠나야 한다.〉

〈머칠 더 있다 가시면 안되겠나요?〉

〈부대가 나를 기다린다.〉

〈이제 가면 언제 다시 오게 될가요?〉

〈…〉

끝내 철주동지께서는 형님에게 약속할수 없는 청을 하신것이다.

〈철주야, 날 용서해라고.〉 》

무엇을 용서해달라고 하신단 말인가. 조국과 혁명앞에 지닌 자신의 사명감을 안고 또다시 먼길을 떠나시면서 김철주동지에게 용서를 바라시는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인간이시기에, 부모잃은 집안의 가장이시기에 용서를 바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말씀에는 인간이 겪을수 있는 모든 불행을 다 겪으시면서도 혁명의 길을 꿋꿋이 이어나가셔야 하는 아버지수령님의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이 집약되어있다. 이 장면에서 받아안은 여운이 사라지기 전에 소설에서는 김철주동지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믿음이 얼마나 뜨겁고 열렬한가를 다시금 펼쳐놓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김정룡을 찬찬히 바라보시었다.

〈구당비서동무, 내 오늘 맘속에 있는 소리를 하나 하랍니까?〉

김정룡은 당황했다.

〈나는 철주를 떠나보낸 그날 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만약 나에게 철주라는 동생이 없었다면 여직껏 내가 마음놓고 혁명활동을 해올수 있었으며 또 앞으로도 해나갈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말입니다.

철주는 우리 집의 한쪽 기둥입니다.〉 》

김철주동지께서는 자신을 수령님의 동생이기 전에 그이의 참된 혁명전사라고 말씀하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도 만약 나에게 철주라는 동생이 없었다면 여직껏 자신께서 마음놓고 혁명활동을 해올수 있겠는가 하고 하시는 말씀은 위대한 수령님과 김철주동지의 관계를 인간적으로, 사상적으로 파고들어 아버지수령님의 인간적품모의 위대성을 힘있게 구가한 장면으로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과 일가분들사이의 관계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려야 한다고 하신 말씀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뚜렷이 보여주는 기쁜진 화폭들이다.

소설에서는 김철주동지를 중심으로 맺아지는 중요인물들관계도 력사적사실에 기초하여 예술적으로 일반화함으로써 소설의 력사문헌적성격을 돋구어주고있다. 소설의 중요인물들인 소사하구 당비서(후에 다진강유격대 정치위원)인 김정룡, 다진강유격대 대장인 김일룡, 다진강유격구 농민협회 회장 김두만을 비롯하여 항일구국군 사령 두의순, 두의순의 부관 장푸관 그리고 안도의 악질 친일지주 쌍병준에 이르기까지 모두 력사에 실재한 인물들이다.

김철주동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김정룡, 김일룡, 김두만 등과의 인물관계는 유격대오를 늘리고 소사하유격구를 다진강으로 옮기고 다진강유격구를 안도혁명의 보루로 꾸려가는 과정을 그리면서 김철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발휘하시는 수령결사옹위, 결사관철의 정신을 부각시키고있다. 뿐만아니라 김철주동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장푸관, 두의순과의 인물관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량강구회의방침을 높이 받들고 구국군과의 반일련합전선을 형성하시는 김철주동지의 숭고한 형상창조에 이바지하면서 조선혁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강조하고있다.

소설에서는 중요인물관계뿐만아니라 사건줄거리도 력사문헌적성격에 맞게 력사적사실에 철저히 의거하여 조직하고있다.

소설은 3개의 편으로 구성되어있다.

제1편에서는 소사하유격구에서의 생활을 기본으로 펼쳐보이고있으며 제2편에서는 소사하유격구를 다진강으로 옮긴 후 다진강유격구를 안도혁명의 거점으로 꾸려가는 내용을 담고있으며 제3편에서는 두의순반일부대와 련합전선을 형성하고 일제와 그 주구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승리를 이룩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와 같이 소설에서는 기본대가 력사적사실에 철저히 의거하면서도 김철주동지의 형상을 두드러지게 보여주려는 작품의 사상미학적의도에 맞게 예술적일반화를 실현하고있다.

소설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에 잊을수 없는 추억을 남기고있는 량강구객주집에 대한 장면이 있다. 지금까지 일부 문학작품들에 량강구객주집에 대한 장면이 적지 않게 형상되였다. 그러나 같은 력사적사실이 취급되면서도 이 소설에서는 작가의 의도에 맞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시는 파업을 결사관철하려는 김철주동지의 형상이 보다 강조되고있다.

김철주동지께서는 유격대에 입대하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량강구로 오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철주동지께서 찾아오신 목적을 알만하다고 하시면서 이 사실을 막내가 알면 얼마나 괴로와하겠는가, 너는 소사하지경안에서 여기저기

머슴살이도 하고 계절로동 같은것도 하면서 공청
 사업을 할수 있지 않겠는가고 말씀하신다. 하지만
 김철주동지께서는 입을 꼭 다물고 침묵으로 고집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여러가지로 말씀
 하시여도 반응이 없자 바람을 좀 쏘이자고 하시면
 서 못가에 있는 객주집에 가시였다. 싸늘하게 식
 은 언두부접시 두개, 그사이에 놓은 술병 하나,
 술을 마시지 않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단숨에
 잔을 비우시고 김철주동지께 《너는 내 동생이라
 기보다 안도의 공청비서라는걸 생각해야 한다. 다
 들 떠나면 이 안도는 누가 지키겠니.》라고 말씀
 하시면서 무송시절 앓는 아버지를 모시고 마우산
 꼭대기에 올라 조국광복을 맹세하며 부르던 노래
 가 생각나는가고 물으시였다. 문득 김철주동지
 의 귀가에는 그 노래소리가 메아리쳤다.

백두산 상상봉 큰 싸리 베여내어

하늘에 꼭 닿게 큰 비 때어
 해 가두는 검은구름 쓸어던지고
 ...

소설에 형상된 량강구객주집에 대한 장면은 그
 후 김철주동지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로
 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 밀접히 결합되면서
 김철주동지께서 지니신 투철한 혁명적수령관을
 부각시켜주고있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하지만 소설에서 펼쳐진 조선이 낳은 걸출한
 혁명투사이신 김철주동지의 숭고한 형상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이 백두에서 개척된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기 위하여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어떻게 높이 받들어모셔야 하는가를 가르쳐주면서
 영생의 모습으로 빛나고있다. 불멸의 궤도를 따라
 도는 태양의 위성과 같이...

가림천의 물결소리

염 득 복

물결소리
 가림천의 물결소리
 마치도 내 고향 시내물소리인듯
 어릴적 물장구치던 그 시내가로
 내 마음 이끌건만

두손 모아 정히 떠안으니
 마음속에 송엄히 울려오누나
 일흔두해전 그밤의 총소리
 투사들의 진격의 함성소리

곤장덕 푸른숲 설레임소리도
 그날의 메아리 울려주누나
 애어린 그 시절부터
 머리흰 오늘까지
 찾아오고 찾아올적마다
 이 가슴에 새겨안던 보천보의 메아리

얼마나 어둡던 밤이었던가
 그 얼마나 수난 많던 세월이었던가
 일제의 총칼아래
 압제의 쇠사슬에 칭칭 감겨
 짓밟힌 겨레의 한숨만을 싣고
 흘러흐르던 가림천 물결소리

허나 6월의 그날
 너는 새겨안지 않았더나

조선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고
 침략자는 무자비하게
 징벌해야 한다는 진리의 웨침을
 총성에 담아 밤하늘을 깨치던
 우리 수령님 총대의 메아리를

그날부터 새겨안았더라
 원쑤의 아성을 활활 태우며
 어둡던 강산을 밝히던 백두산총대의 불길을
 오직 총대로만 원쑤를 쳐물리칠수 있다는
 신념의 그 메아리를

물결소리
 가림천의 물결소리
 그날부터 너는 흐르지 않았더나
 백두산총대의 그 메아리를 싣고
 침략자를 징벌하는 그 불길을 싣고
 겨레의 가슴가슴에
 희망과 신심과 환희를 싣고

오 물결소리
 가림천의 물결소리
 찾아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세월을 이어 세대를 이어
 너는 속삭이며 새겨주고 새겨주리
 총대의 귀중함을!
 선군의 위대함을!

어머님앞에 장군님은 서계셨습니다

김 덕 선

얼마나 보고싶으셨던
그 얼마나 그리우셨던
그 마음 안으시고
여기 오산덕 어머님앞에
장군님은 서계신것입니까

세월이 갈수록
덧쌓이기만 하는 어머님사랑
못 잊어 잊을수 없으시여
가슴속 더 깊이 새겨안고계시였건만

북변의 외진 산간마을 찾으실적에도
고향집에 한번 들리시지 않으시고
차창으로 어려오는 어머님 모습만을
그려보시고 또 그려보시며
어머님께 더 큰 기쁨 안고오리라
마음속 의지를 굳히시던 장군님!

그리고 보고싶으신
어머님 고향집을 멀리 스쳐보내시면서도
마음속엔 더 가까이 안고가시던 그 마음
그 그리움을 안으시고
지금 이렇게 어머님앞에 서계신것이 아닙니까

추억도 깊으신 심중의 사색
그 끝은 어디
끝없이 어머님을 우러르고 우러르시며
장군님께선 그려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밀영의 귀틀집창가에 흐르던
봄빛을 소중히 안으시고
조선의 앞날을 축복하시며
어머님 조용히 불러주시던 자장가소리
어머님사랑으로 포근히 감싸주시던
그날의 그 쪽무이포탄

백두의 산야에 울리시던
어머님의 총성을 새기시는가
오늘도 입고계시는
빨찌산군복을 여겨보시는가

그날의 그 총성
선군조선의 장엄한 포성이 되고
그날의 그 군복
천만군인의 군복이 되어
선군의 기상 떨치는 내 나라

강대한 조선을 거느리신 장군님께서
어머님앞에 근엄히 서계시었나니

장군님께선 지금 어머님께
말씀드리는데가 아니십니까
아버이수령님께서 한생 바라오시고
어머님께서 그리도 아름답게 그려보신
강성대국, 그날이 드디어 다가오고있음을—

장군님말씀 들으시며
그날을 그려보시는 어머님
눈속에서 환히 웃으시던 그 웃음 지으시고
수령님의 젖은 옷
품에 말리워 드리시던 그 손길로
땀배인 장군님 옷자락을
다정히 어루만져주시는듯...

기쁜 일이 있어도 어머님을 찾으시고
피로운 일이 있어도 어머님을 찾으시여
마음속 사연을 다 아뢰고싶으시던 장군님
그 웃음 온몸에 함뱌 받아안으시고
어머님앞에 더 밝게밝게 서시었나니

어머님의 그 웃음은
인민의 행복을 꽃피주시는
장군님의 밝은 해빛을 더해주시는것이 아닙니까
장군님의 강행군 발걸음의 더 힘찬
활력이 되신것이 아닙니까

장군님께서도 기쁘시여 기쁘시여
마음속 다지시는 생각
하루라도 더 빨리
그날을 앞당겨오리라
어머님께 굳은 맹세 다지신것이 아니십니까

오, 이 행성우에 밝아오는 날과 날들이여!
너는 어머님께 기쁨드릴
장군님의 이 맹세를 지키려고
이 땅우에 서둘러
강성대국의 해돋이를 불러오나니

그날을 마중하여 서계신
어머님의 환한 웃음을
가슴속에 더 깊이깊이 새기고싶으시여
어머님앞에 장군님은 서계신것이 아니옵니까

날마다 새기는 마음

박 근 원

이제는 정든 집 프락에 들어서듯
때없이 들어서도
숭엄한 마음속에
전사의 삶을 다시금 새기게 하는
당중앙청사

머리 들어 바라보면
문패인양 안겨오는 우리 당 마크여
심장의 붉은 피 새롭게 끓게 하며
펄펄 휘날리는 우리 당 기발이어

빨찌산의 아들 우리 장군님
마흔다섯해전 그날부터
수십성상 찍으신 자욱자욱을 따라
백승의 력사가 마련되고

우리 장군님 백두산에서 안고오신
총대바람으로 폭풍쳐
온 세계에 떨치는 내 조국의 존엄을
가슴뿌듯이 긍지로 새겨주는 곳

숭엄히 머리들고 다시 우러르면
한번 휘날려 변함이 없이
몰아치는 온갖 광풍을 쳐갈기며
세기를 이어 나뉘는 붉은 기폭에
주체혁명위업승리의 그날이 안겨오고

천년만년이 가도 한모습
백두고향집과 처마 나란히
정일봉의 억센 메부리를 주추돌로 삼고
강성대국의 찬란한 래일을 눈앞에 그려주나니

이 프락에 들어서면

다 들려와라 저 우주공간 가득
《광명성2호》에서 울리는
영생불멸의 혁명송가가
강성대국의 대문을 힘차게 두드리는
천만군민의 총공격전 위훈의 합성이

마흔다섯해전 그날로부터
백두산야전복차림으로
선군천만리길을 이어가시며
조국과 사회주의를 수호하시고
주체조선의 위력 만방에 떨치시는
위대한 장군님

우리 장군님 선군의 총대 높이
마치와 낮과 밤이 새겨진 당마크에
천만숨결을 하나로 이어주시고
펄펄 날리는 붉은기의 퍼덕임에
천만심장의 박동을 이어주는 곳

내 여기서
수령결사옹위의 신념을 안고
애국의 녋을 터득하며
인생의 걸음걸음
우리 장군님과 운명을 함께 하리니
그 하나의 신념만을 새기며
내 언제나 새롭게 들어서는 당중앙의 프락

내 언제나 스스로없이 들어서도
언제나 새롭게 새겨안는 이 마음
한생을 이어가며 자욱자욱
내 부끄럼없이 새기리라
저 당마크와 붉은 기폭에
땀땀한 생의 모습을

불보라 흐르는 강반에서

김 윤 실

나는 이 저녁도 대동강반을 찾았다.

날들이 흘러간 오늘에도 나는 4월의 대동강반에 펼쳐졌던 축포야회 《강성대국의 불보라》의 여운에 하냥 잠겨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 탄생 97돐을 맞으며 수령님께 드리는 최대의 경의로,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보내시는 축복으로 성대하게 진행하게 하여주시였던 축포야회 《강성대국의 불보라》!

나는 아직도 그날의 신비로운 감동에 싸여있다.

우리 인민이 5천년 민족사에 한번도 본적이 없는 천만가지 아름다운 모양과 천만가지 아름다운 색깔의 축포가 평양의 밤하늘을 주름잡았던 4월의 그날.

온 하늘이 통채로 웃는것만 같았다.

온 대지가 호합진 웃음을 장쾌하게 터뜨리는것만 같았다.

광활한 대지를 한껏 그러안은듯 한 모양의 커다란 은빛지붕같은 축포.

내 마음의 하늘에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구름송이모양의 하얀 축포송이들.

청류벽가에 실실이 휘늘어진 버들가지모양의 축포.

푹 익어 머리숙인 모양의 이삭축포.

아름답고 기이하고 환희로운 천만가지 모양과 아름다움 휘황한 색깔의 축포들을 보면서 나는 한없는 경탄과 감개의 환성만 내지르고있었다.

그러던 나는 《강선의 노을》 노래선물과 함께 옥류교와 대동교에서 불폭포가 줄줄이 쏟아져내리는 장쾌한 광경에 그만에야 숨이 꺾 막히는듯 한 환희를 느꼈다.

우리 장군님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 지퍼주신 력사의 땅 강선의 초고전력전기기로의 쇄물가마를 통채로 기울인듯 쇄물폭포, 불폭포가 쏟아져내린다.

천리마시대와 선군시대의 하많은 사연을 담고있는 《강선의 노을》이 금시 그 불폭포에서 피어오르는것만 같다.

온 대동강반이 하나의 커다란 쇄물가마인양 부글부글 끓어번진다.

그 장쾌한 광경을 바라보느라니 문득 잊지 못할 강선사람들 생각이 떠올랐다. 특히 몸매 자그마한 나와 동갑나이의 처녀배전공의 모습이 생각났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선땅을 찾으시여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을 지퍼주신 후 우리도 강선의 정신, 강선로동계급의 일본새를 따라배우기 위하여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찾았었다.

그때 나는 《하면 된다!》는 대명사와 함께 《로동신문》에 소개되었던 처녀조작공을 만나 보고싶었다. 그런데 만나고보니 그는 나와 동갑나이, 소박하고 수수한 이 나라 처녀들과 다를바 없는 평범한 로동자처녀였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엔 불이 끓고있었다.

언제나 그의 가슴속에 불이 끓고있었기에, 심장속에 불의 노래가 울리고있었기에 그는 전후 6만 톤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톤의 강재를 뽑아낸 강선로동계급의 후손답게 초고전력전기기로 단 몇달사이에 일떠세운 사람들의 대렬에 당당히 설수 있었으며 《하면 된다!》는 배짱도 가지게 되었던것이다.

그렇다.

나는 4월의 그날에 축포야회의 불보라속에서 그 강선처녀를 보았다, 강선사람들을 보았다.

원산청년발전소를 일떠세워 우리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강원도인민들의 모습을 보았다.

희천발전소건설에 총진입한 군인건설자들의 파감한 기상을 보았다.

로케트모양의 축포를 보면서 《광명성2호》를 쏘올린 청년과학자들의 모습을 보았다. 무르익은 벼이삭모양의 축포를 보면서 태천군 은흥리의 선동원 엄정실과 연백별 농민들의 모습도 보았다.

나는 세상에 없는 궁지와 자부를 가지고 강성대국건설대전에 용용히 펼쳐나선 최강의 군대와 훌륭한 인민의 영웅적기상을 보았다.

머지않은 앞날에 다가오는 우리 선군조선의 미래를 마음속깊이 안아보았다.

우리의 경애하는 장군님 진두에서 헤쳐가시며 가꾸어주시고 창조해가시며 우리 인민에게 안겨주시는 행복한 우리 앞날, 우리 미래를 보았다.

장쾌한 축포의 꽃보라, 불보라 흐르는 이 대동강반에서 나는 실로 많은것을 보았다. 많은것을 느꼈다.

그리고 알았다. 인생의 앞날에 강성대국의 불보라가 흐르던 4월의 그밤을 영원토록 잊지 못하리라는것을!

할 말을 찾지 못해

정 성 환

꽃송이로 피어나며
꽃잎으로 반짝이며
쇠물처럼 흐르고
분수처럼 내뿜는 저 축포

무엇이라 말을 하라
나는 그저
감탄사만 연발하네
《야!》

내 지금껏
배우고 익혀온 말은 많건만
4월의 봄명절에
하늘땅을 꽃피우는 새로운 축포에
어울리는 말은
한마디도 찾지를 못하겠구나

아름답다 하기엔
그 불빛 너무도 황홀하고
황홀하다 하기엔
그 모양 너무도 신비하구나

지금껏 저렇듯 황홀하고 아름다운 축포가 없어
여기에 맞는 말을 만들지 못했는가
아니면 내 아직 축포의 아름다움
표현할 능력이 없는것인가

주체사상탑의 봉화는
자랑스레 하늘높이 불타는데
대동강물결은
하얗고 빨갛고 파랗고...
울긋불긋 아름답게 변하고변하면서
기쁨에 설레이는데
이 아름답고 황홀한 그 모습을
내 무엇이라 말하라

아, 인민의 무릉도원 꽃피워주시려
삼복철 폭열에
야전복을 땀으로 적시시며
폭풍치는 눈보라를 뚫고 헤치시며
선군의 천만리를 걷고걸어오신
우리 장군님의 그 헌신이
저 희한한 불보라로 꽃피어나는것인가

선군조선의 존엄을 펼쳐주시며
《광명성2호》로 세상을 경탄시키더니
오늘 또다시 앞날을 축복하며
강성대국의 행복한 미래를
저렇듯 황홀한 축포로 그려주시니

나는 그저
장군님께 올리는 감사의 인사로
목이 짹 메이누나

단 시

나의 집, 나의 거리 외 1편

송 병 원

정다운 나의 집은
한점의 별빛

불밝은 거리는
하얀 은하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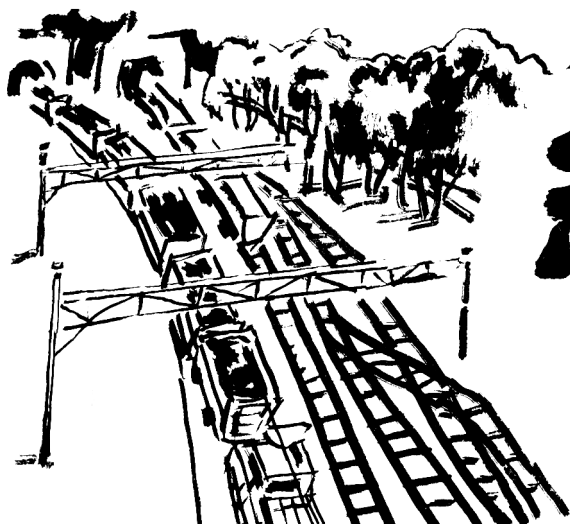
로동당시대에
전설도 많더니

저 하늘의 별무리
여기에 내리었네

진달래와 들국화

앞산의 진달래 봄날에 피고
언덕의 들국화 가을에 피네
피어난 꽃철은 서로 달라도
봄가을 풍상고초 어이 다르랴

눈속에서 소생의 기쁨을 주고
락엽속에서 래일의 희망을 주니
그 기상 하도 장해 너를 부른다
연분홍진달래 하얀 들국화



탄부오분

한 응 빈

1

오늘신문에도 석탄부문에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를 더 힘차게 일으킬것을 호소하는 기사들이 실려있었다. 석탄을 공업의 식량이라고 했다. 그때, 석탄이 중요하지, 중요하구말구. ...

지삼은 보갱현장으로 걸음을 옮기며 생각했다. 발밑에서 축축한 버럭이 불만스레 삐적삐적거린다.

당에서는 석탄을 더 많이 캐낼것을 우리들, 탄부들에게 호소하고있다. 석탄이 있어야 전기도 나오고 철도 나오고 모든것이 나온다. 석탄, 석탄...

탄광은 지금 말그대로 부글부글 끓고있다. 지난해 12월 24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강선땅을 찾으시여 지펴주신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봉화는 모든 탄부들을 격동시켰다. 뒤이어 올해 2009년을 새로운 혁명적대고조의 해로 빛내일것을 호소한 올해공동사설... 석탄생산은 부쩍부쩍 뛰어들고있었다. 전망성있는 채탄장들이 마련되고 탄차개조와 탄차전복기, 운탄의 벨트콘베아화가 통이 크게 진척되고있다. 새로운 합리적인 운탄선로와 갱영구화... 전에는 계획은 하면서도 타산만 앞세우면서 차일피일 미루어오던 일들에 주저없이 대담하게 접어들었다. 《하면 된다!》는 강선의 목소리가 탄광의 일반용어로 되었다. 그렇다, 탄광의 모습이 달라지고있다.

또 얼마전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2호》의 발사소식은 어떠했던가! 그 소식이 알려진 날 탄광의 석탄생산은 한배반이나 뛰어올랐다. 참으로 아무리 일해도 부족하게 느껴지고 한덩어리의 석탄이라도 더 캐려고 뛰고 또 뛰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여야 할 때이다.

(그런데 요즘 그녀석은 왜 그 모양인가.)

지삼은 안전등빛에 드러나는 축축한 동발들을 막내아들의 얼굴인듯 찌프린 눈길로 훑어보며 걸었다.

늘썉 기운이 팔팔해있고 활기가 넘치던 아들이 웬일인지 얼마전부터 우울해지고 패기를 잃었다. 고무공처럼 통통거리던 걸음걸이도 터벅터벅이고 말도 없어졌다.

《요즘은 왜 그 모양이냐?》

하는 물음에 아들은 도리어 반문으로 대답했다.

《내가 뭐 어쩔어요? 아버지 괜히...》

이쯤되면 아들의 입에서 아무 말도 들을수 없다는것을 지삼은 알고있었다. 어찌 고집불통인지 한 번 입을 다물어버리면 수가 없다.

지삼은 그 이유를 스스로 찾아볼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걸음도 무겁다. 늙은이의 걸음이 가벼울수는 없지만 아들생각이 매달려 더 무겁다.

그가 탄을 캐기 시작한지도 이제는 30여년전이다. 그때 그는 모든것을 석탄증산을 위하여 부른당의 호소를 받들고 제대배낭을 메고 석탄생산에 《모든것을 다 바칠》결의로 탄광에 달려왔었다. 그 시절 그는 하루밤만 자고나면 피가 한동이씩 고인다는 (늙은이들의 말이였다.) 한창나이제대군인총각이였다. 그때로부터 30여년, 그사이 그는 탄광의 로세대가 되었고 막내아들녀석이 탄부가 되어 탄광의 주인이라고 큰소리를 쳐대게끔 되었다. 막내아들이 첫걸음부터 탄부답게 내디딘듯싶어 은근히 자랑스레 여겨오던 지삼이로서는 기대와는 달라진 아들의 거동에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수가 없다.

무슨 일이 있었을가. 가만, 며칠전에 무슨 이야기인가 처음에는 중얼중얼대다가 제김에 열이 올

라 싸움이라도 하듯 떠들어댄적이 있었지. 그때 좀 받아들어두었을것을. 늙은이로서는 참견하기 좀 싱거운 처녀총각사이의 편지이야기여서 건성으로 들어넘겼었다. 좀 진중하게 들어들걸 그랬다. 그 이야기라는게...

《...한사람이 군대에 있을 때 위문편지를 받았는데, 처녀한테서 말이에요. 그래서 회답을 했고, 또 회답이 오고, 또 회답을 하고, 또... 에이, 어떻게 편지가 오고가고 하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제대로 탄광으로 왔거던요. 우리 탄광에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와서 편지를 했더니 회답이 싹 없어졌지 뭐예요. 세번 하고 네번이나 했는데두 말이에요. 아직도!》...

그렇지만 그런따위 일로 그렇게 폐기까지 잃을 수는 없는데, 젠장. ...

지삼은 보와 기둥사이에서 조금 밀려나온 썰기를 동발도끼로 때려박고 다시 걸음을 옮겼다. 이거야 어데 알수가 있나. 병어리속은 제 어미도 모른다는데... 참, 그녀석이 별스러워진게 한달전 쯤부터이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가. ... 휴가를 받고 평양 말이네 집에 갔다왔더랬지. 거기에서 무슨 탈이 생긴 모양인가? 아니, 그런것 같지도 않다. 평양에서 온 편지를 보면 며칠동안을 잘 놀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 현지지도소식을 듣고는 다음날로 부랴부랴 떠나며 《이런 때 탄부가 휴가를 놓고있을수 있어요? 온 탄광이 들쭉할텐데! 나도 한몫 해야지요!》하고 큰소리까지 쳤다고 한다. 거기까진 다 제대로인데... 가만, 그녀석이 휴가에서 돌아왔을 때 탄광 부지배인을 하던 군필이 채탄공으로 되어 그녀석네 소대로 내려왔지, 그 사실앞에서 눈알을 별스레 굴리던것이 생각난다, 하지만...

지삼은 천반을 올려다보며 눈을 껌벅거렸다. 천길땅속의 지층에서 일어나는 변화도 사개가 조금 드린 동발이나 이슬 같은 락석부스레기로 대뜸 알아내는 그였지만 아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원인만은 도저히 가늠할수 없었다.

(어떻게 썰기가 한두개쫓 드린게 분명해. ... 그런 쩡그린 얼굴로 느른해가지고야 어떻게 땅속에서 탄캐는 일을 할고?)

땅속은 어둡다. 캄캄하다. 안전등빛 하나만으로는 탄벽과 마주선 탄부의 앞이 밝아질수 없다. 마음이 밝아야 땅밑에서도 하늘을 볼수 있고 해빛을 느낄수 있으며 탄의 번쩍거림에서 기쁨을 찾을수 있다. 가만, 가만, 이런 신통한 말을 어디서 들었더라, 어 그렇지, 지삼은 저도 모르게 히죽이 웃었다. 아들의 수첩에 써여있던 말이었다.

며칠전 지삼은 책상우에서 아들의 수첩을 띄어보고 몇장 들춰보았었다. 무슨 청춘은 봄과 같다느니, 예술없는 인간은 야만이라느니, 사랑은 인

생의 꽃이라느니 하는따위 꿈꾸는듯 한 달짝지근한 말들이 써여있어서 코웃음을 쳤는데 그뒤에 바로 방금 머리에 떠오른 말이 써여있어서 지삼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었다. 어데서 들은 말인지, 생각해낸것인지 어떻게 신통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잔뜩 써가지고 다니는 녀석이 저렇게 오만상을 찌프리고 다니니 문제다.

물론 탄부도 사람인만큼 걱정거리도 있고 화를 낼수도 있다. 싸울수도 있다. 피로와할수도 있다. 허나 탄벽과 마주서면 그 모든것은 뒤로 물러나야 한다. 탄의 번쩍거리는 흐름에서 희열을 느껴야 한다. 온 나라가 기다리는 탄이 아닌가. 올해공동사실에서는 석탄공업부문을 경제발전의 생명선이라고 하였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준때문에 끝없이 오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해야 했다.》

이것 역시 아들의 수첩에 써여있던 말이었다. 무슨 책인지 읽다가 써놓은듯 하늘에서 불을 들고 내려오는 모습까지 룰락으로 그려져있었다.

그건 그렇다치고...

그때 《안녕하세요?》하는 목소리가 앞에서 울리지 않았으면 지삼은 머리속으로 아들의 수첩장을 계속 뒤적였을것이다.

《강력》운전공 영순이었다. 제대로 말하면 강력철삭콘베아운전공인데 갯에서는 그저 《강력》운전공이라고 불렀다. 한창 일할 때는 그것도 길어서 《강력!-》하고 찾는것이 보통이었다.

《영순이나?》하고 지나보내려던 지삼은 문득 아들녀석이 영순이와 끝잘 무슨 이야기를 쭈왈거리곤 하던것이 생각나서 은근하게 물었다.

《영순아, 요즘 혹시 누구와 싸운적이 없느냐? 우리 그녀석이.》

《예? 그 저- 철남동무 말이에요?》

아들이 《그녀석》으로부터 처녀의 입에서 대뜸 《철남동무》로 승격하는 바람에 지삼은 아들도 이제는 다 큰 총각이로구나 하는것을 새삼스레 느끼며 저도 모르게 비죽이 웃었다.

《어- 그래, 그 〈철남동무〉 말이다. 그래 그녀석이...》

영순이 그의 얼룩덜룩한 말투에 입을 가리며 캐드득 웃었다.

《누구와 싸운적은 없느냐?》

영순은 눈을 깜박거렸다.

《요 며칠전에 성길동지하구 막 싸운적은 있어요.》

《뭇때메?》

《갱안에서 남새농사를 지을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때메요. 철남동무 지을수 있다는걸 어느 책에서 보았다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 탄광에서도

남새를 자체로 해결할수 있다는거였어요. 철남 동문 정말 책을 많이 봐요.》

《아니, 그런건 그만두고 말이다.》

지삼은 손을 저었다. 요런 안타까비라구야...

《그담엔 없었던것 같아요. ... 없어요! 그런데 왜 그래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그럼 전-》

《어, 어서 가봐라.》

안전등의 동그란 불빛과 함께 발자국소리가 자박자박 갱휴계실쪽으로 멀어져갔다.

지삼은 또 한번 한숨을 내쉬고 보갱현장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들이 요즘 일을 건승건승 제대로 못하기라도 한다면 혼쭐이 나도록 닦아세우고 따져물겠는데 일은 남들 못지 않게, 오히려 더 잘한다니 문제다. 아무리 아들이래도 일을 잘하는걸 욕할수는 없다. 《내가 뭐 어쨌어요? 아버지 팬히...》 하는 대답아닌 대답이나 들을것이다.

그러나 지삼은 한평생 탄을 캐려면 일을 잘한다는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것을 알고있었다. 더우기 지금같은 때에는 탄부가 하는 일에 대한 긍지와 믿음, 배짱이 있어야 한다. 기쁨과 즐거움, 꿈에도 잡념이 없어야 한다. 오직 한가지만을 생각해야 한다. 탄보다 더 중요한것이 없다는것만을... 그렇지 않다가는 어느때인가는 탕개가 풀려버릴수 있다.

지삼은 한숨을 쉬고말았다. 아무래도 오늘은 아무리 바빠도 그녀석이 일하는 채탄장에 가보아야겠다.

두런두런하는 말소리가 들려왔다. 보갱현장에 이른것이였다.

2

휴계실문이 빠끔히 열렸다. 마치 손님처럼 조심스레 열었는데 정작 안으로 들어온것은 영순이였다.

그는 언제나 이렇게 들어온다. 미리 자기가 앉을자리를 눈으로 찾아보고서야 살며시 들어오고 그리고는 눈을 내리간채 재빨리 그곳에 가서 숨듯이 앉아버린다. 소대장이 작업지시를 주려다가 《〈강력〉 왔소?》 하고 물은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그 조심성과 조용함이 탄부들에게 만족을 주고있음을 영순이도 알고있는지...

탄부들은 대체로 갱에 들어오면 말이 적어진다. 더우기 이 시간에는 그들은 말하는 일은 소대장과 선동원에게 죄다 맡겨버린다.

영순은 몸을 조그맣게 만들며 탄부들사이를 빠져 철남의 옆에 쏙 끼워앉는다. 철남은 조금 옆으

로 비켜앉아주었다. 다른쪽 옆에 앉은 제대군인 성길은 그에게 밀려 몸을 흔들했으나 눈길도 돌리지 않고 독보할 신문만 뒤적거린다. 그는 소대의 선동원이다.

책상에 마주앉아 연필방아를 찢고있는 소대장의 이마가 주름살없이 번번한것을 보니 오늘 채탄장 조건이 꽤찮은 모양이다. 소대원들은 소대장의 이마만 보고도 그날의 채탄장조건을 짐작한다. 요즘은 소대장의 이마가 거의 언제나 번번하다. 강선의 본때로 일하자고 꺾기모임을 한 다음부터는 확실히 일본새들이 달라졌다. 다음교대의 작업조건을 잘 지어놓고 인계하는것이 하나의 관례로 되였다. 《인계도덕》이라고 할가. ...

《철남동무.》

영순이 자기에게 쏘렷던 주의가 찾아들었다고 인정한듯 철남에게 소곤거렸다. 그의 입김에 귀전이 따뜻해진다.

《나 이자 철남동무 아버지질 만났됐어.》

《...》

철남은 주위에서 안 듣는척 하면서도 귀기울이고있음을 알고있었다.

(능청스럽게들!)

《글쎄 철남동무가 누구하고 싸운 일이 없느냐고 묻지 않겠어? 그래서 난 없다고 했지 뭐.》

영순은 눈을 깜박거렸다.

《정말 없지?》

《흥!》

철남은 코방귀를 귀였다. 연필방아를 찢던 소대장의 입가에까지 미소가 떠올랐던것이다. 영순은 입을 삐죽하더니 돌아앉아버렸다.

(누구와 싸웠는가구?)

철남은 아버지의 말을 되뇌여보았다. 젠장, 차라리 싸웠으면 시원하기라도 하지!... 어쨌면 다들 그렇게 편만한 마음들일가, 자존심들도 없이...

그러나 철남이 역시 얼마전까지는 그랬었다. 그는 우울증이라든가 신경질이라든가 하는 나약한 인간들의 천성과는 아예 인연이 없었다.

그에게서는 모든것이 명명백백했던것이다.

우선 태일에 대한 생각에서부터 그랬다. 그의 태일이란 아버지처럼 한생을 탄부로서 시나 노래에 있는것처럼 탄으로 《우리 땅을 받들고 우리식 사회주의를 지켜가는》 것이였다. 그가 일하면서 대학을 다니기 시작한것도 대학을 졸업하고 손에 펜대나 잡으려 해서가 아니였다. 우선 정보산업시대에 뒤지지 않기 위해서였고 다음은 석탄을 더 잘 캐기 위해서였다!

《난 탄부란 말이야!》

석탄이 있어야 모든것이 움직인다.

철남은 《탄부》라는 제목으로 시까지 썼었다.

나는 탄부
탄을 캔다 검은금을 캔다
캐고 또 캐서 산을 쌓는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산을 쌓는다

아, 석탄이여, 검은금이여!
내 청춘의 땀이 흘러
내 청춘의 꿈이 어려
그리고 눈부시게 번쩍이는것이나
별빛찬란한 탄부의 하늘
오, 나의 일터, 나의 채탄장이여!
...

영순은 그가 쓰는것을 눈이 동그래서 넘겨다보더니 《철남동문 시인이야!》하고 감탄했지만 시는 거기에서 끝나버렸다. 그때 입깁시간이 되었던 것이다.

채탄공이라는 직종에 대해서도 그는 공지를 가지고있었다. 탄광에는 굴진공, 채탄공, 운탄공, 발파공, 검탄공, 선탄공, 보갱공 등등 해야될수없이 많은 직종이 있지만(아버지는 보갱공이었다.) 그 모든 직종들은 죄다 탄을 캐기 위하여 있는것이고 직접적으로 탄을 캐는것은 채탄공이니 그 모든 직종들은 채탄공을 위하여 있는것이나 다름없었다. 하긴 탄광에서는 굴진공을 제일 첫자리에 놓아준다. 《석탄전선의 척후병》이라고까지 한다.

굴진공들은 옷차림부터 아주 요란스럽다. 석수에 젖어 번쩍거리는 방수복, 짙을 때면 소란스레 뚜벅거리는 목다리 긴 장화, 굴진막장에 쏟아지는 석수는 또 얼마나 전투적인가. 게다가 그들이 하는 일은 오늘의것이 아니라 래일의것이다. 철남은 겨우 2009년에 있는데 그들은 벌써 2011년의 탄발을 마련하고있는것이다. 2011년에 살고 있다!

석수에 젖은 방수복을 갑옷처럼 번쩍이며 굴진막장에서 나오는 그들은 2011년에서 2009년, 철남의 시간으로 돌아오는것이다. 그들이야말로 강성대국의 대문앞에 가까이, 아주 가까이 가있는것이다!

《아이, 저길 봐. 굴진공들이 나와!》

하고 영순이 감탄했을 때 철남은 단호히 결심했다. 굴진으로 가자, 나도 2011년에서 일하자!

그런데 만족해할줄 알았던 아버지는 쫓쫓 하고 허차는 소리로 철남을 아연케 했다.

《바람이 들었구나.》

《아, 더 중요한 힘든 일을 하겠는데 무슨 바람이예요?》

《쉬운 일을 찾는건 건달바람이구 힘든 일을 찾아가겠다는건 공명심바람이라는거다. 어떤 바람이건 바람이라는데서는 마찬가지지.》

철남은 약이 올랐다.

《그게 왜 갈단 말이에요?》

《더 나쁠수도 있지. 중요한 힘든 일을 하겠다는 바람은 비판하기도 말쑥니 말이다. 변명하기 좋은 바람이지. 이너석아, 일은 아무데서 해도 같은거다. 쉬운 일이 따로 없구 힘든 일이 따로 없다. 힘든 일을 찾아다닐게 아니라 무슨 일이든 힘이 모자랄만큼 해야지!》

그 말에는 말문이 막혔다. 불쑥 얼마전에 쉬운 일로 취급해온 선탄공의 일을 몇시간 대리하던 때가 떠올라서였다. 콘베아에 실려나오는 탄에 섞인 버력을 한참 골라내느라니 눈앞이 아물거리고 허리가 아프고 어깨죽지가 떨어지는것 같고 땀이 비오듯 흘렀다. 그래도 탄에 섞인 버력을 다 처리하기는 어려웠다. 그런데 다른 선탄공들은 흥겨워했다.

《오늘은 탄이 좋아, 거의 손뭉게 없구만.》

(정말 힘든 일이구나.) 하고 철남은 생각했다. 그러나 선탄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았던것이다. ...

그는 굴진으로 가겠다는 말을 더는 입에 올리지 않았다.

철남에게서 명백한것은 그것뿐이 아니었다. 사람들이 별스레 알쏭달쏭하게 말하기 좋아하는 사랑이라는것에 대해서도 그는 명백했다. 자기가 《강력》운전공 영순이를 사랑한다고 《결론》했던것이다.

영순은 그보다 한해 뒤늦게 탄부로 되었다. 영순의 반짝거리는 영채도는 눈을 마주보느라면 설사 채탄장에 불이 꺼지고 캄캄해져도 영순의 눈은 그냥 별처럼 반짝거릴것이라는 엉터리없는 생각까지도 들었다. 철남은 이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입깁할 때 앞에서 작업복차림에 안전모를 손에 든 호리호리한 모습이 보이면 조금도 주저없이 《영순동무!— 같이 가자!》하고 소리치며 따라가곤 했다. 그러면 영순은 《철남동무야?》하고는 나란히 걸어주곤 했다.

깁입구에 다가서면 영순의 머리칼은 새의 깃털처럼 가볍게 갱바람에 날려 얼굴에 흘러내린다. 그러면 영순은 입깁으로 혹 불어올리곤 한다. 머리칼은 역시 새의 깃털처럼 가볍게 입깁에 실려 이마우에 올라앉는다. 갱안에 들어가서야 그 머리칼은 안전모속에 말끔히 감추어진다. 그러면 영순의 얼굴은 별로 더 어련에갈아지고 말쑥해보이는것이였다. 그의 얼굴에는 탄가루도 묻지 않는듯 했다. 수은방울처럼 언제나 말쑥했다. 탄얼룩이 묻었을 때도 그것은 피부에 묻은것이 아니라 그의 얼굴과는 따로 떨어져있는것인듯 했고 그것으로 하여 얼굴은 더 말쑥하고 깨끗해보이는 것이였다. ...

그 얼굴과 마주서면 기분이 좋아지곤 했다. 자
기 자신도 그렇게 말쑥하고 깨끗해지는듯 했다.

(이런게 사랑일가?) 하고 자신에게 물었고 그는
주저없이 스스로 대답했다. (그래, 이게 사랑이
야, 이런게!)

한번은 영순의 안전등이 꺼진 일이 있었다. 축
전지가 제대로 충전되지 않았었는지 어데 접촉이
잘되지 않았는지. ... 그때 철남이 앞서고 영순은
그뒤를 그림자처럼 따라왔었다. 뒤따라오던 영
순이 말했다.

《아이, 좀 천천히 가. 잘 봐지 않아.》

《그래?》

철남은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손을 잡아. 그럼 나올거야.》

영순은 그의 손을 잡았다. 잠시후에는 즐겁게
말했다.

《손잡고 가니 정말 좋아. 무섭지도 않구...》

영순은 마치 조그마한 소녀로 된듯 했다. 그것
또한 좋았다. ...

그렇다. 모든것이 좋았다. 불만도 없었고 불
안도 없었고 우울해지게 하는 일도 없었다. 그는
자기의 생활은 이렇게 변함없이 흘러가리라는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았었다.

《올해공동사설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새로운 혁
명적대고조의 봉화가 온 나라에 타오르게 하는데
서 우리 탄부들의 임무는 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탄부들이 석탄을 더 많이 캐야... 전력생산을
늘일수 있고... 그래야 공장들을 만부하로 돌려...
강성대국건설대전을 더 힘있게 벌릴수 있습니다.》

성길이가 신문을 펼쳐들고 선동원의 임무를 수
행하고있는데 목소리가 석션한데다 말도 떠듬떠듬
류창하지 못하다. 이럴 땐 도무지 제대군인다와보
이지 않는다. 하긴 저러니까 처녀와의 일도 맹물
에 물탄것처럼 되고말지, 나라면 그저 탁-

《우리 탄광의 갱, 막장들마다에서 일어나고있
는 혁신은 우리 채탄공들이... 더 높은 책임성
을 가지고... 더 많은 석탄을 캐낼 때야만 은을 낼
수 있습니다. 온 나라가 석탄을 요구하고있습
니다. ...》

3

온 나라가 석탄을 요구하고있다, 석탄이 제일
중요하다.

철남은 수긋하고 앉아 성길의 말을 들으며 자신
에게 말했다. 어데 가나, 누구에게서나 들을수 있
는 말이다. 이런 말을 그는 평양의 만형네 집에
가서도 들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철차칸에서도 들
었다.

《아버지가 우리 다섯형제를 키웠는데 아버지뒤

를 잇는건 너 하나구나. 네가 우리 집안의 맏이인
셈이다.》

하는 형의 말에 형수는

《집안에서만 맏이나요? 탄부는 나라에서도 맏
이인데... 석탄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고 무게를 더 실어주어 철남을 흐뭇하게 했다.
마당청소라고 알리는 인민반장의 목소리에 제
격 마당비를 들고나서는 철남을 보고도, 지어
는 찌국거리는 신발장에 못을 두어개 때려박은것
을 두고도

《우리 철남이가 정말 부지런해졌는데!》

하고 형이 감탄하면 형수는

《막장일을 하면 사람이 부지런해지는가봐요.
이번에 막내삼촌이 형님을 단단히 교양하는구만
요.》

하고 말했다.

《암, 나 정말 많이 교양받았어, 철남이한테
서.》

하고 형은 만족스럽게 인정하며 결론적으로 말
하곤 했다.

《역시 탄부가 다르거던!》

돌아오는 철차칸에서 철남이와 한좌석에 앉은
세사람 역시 석탄의 중요성에 대하여 잘 알고있는
사람들이었다.

《도에 회의 가보니...》

어느 기계공장에서 일한다는 혈색좋은 사나이가
먼저 탄광소리를 꺼냈다.

《탄광에 대한 지원을 정말 잘해야 되겠더군
요.》

그러자 둥글둥글한 중년녀인이

《그럼요. 석탄이 중요하지요.》

하고 동의했고 맞은편의 얼굴 긴 중년사나이드
머리를 끄덕거렸다.

혈색좋은 사나이는 듣는 사람들의 적극적인 반
응에 더 신이 난듯 했다.

《그래서 회의에서도 말했지요. 탄광지원은 애
국적열정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녀인은 미소를 지었다.

《저도 그 회의에 참가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더 놀라운것은 얼굴 긴 사나이드 그 회의에 참
가했다는 사실이었다. 마치 누가 조직이라도 한듯
탄광지원을 잘할것을 결의한 세 일군이 철남의 앞
에 앉은것이였다.

그들의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지만 앉았
더라면 철남은 자기가 탄부라는 긍지높은 사실을
털어놓았을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철남은 그들로 하여 자기의 긍
지와 기쁨, 자부심이 산산이 깨뜨려지고 쉬이 잊
을수도 지워버릴수도 없는 상처를 입게 되리라는

것을 전혀 알수 없었다. 그저 한없이 흥겨운 기분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 연구했겠소?》

하고 얼굴 긴 사나이가 꺼낸 자기네 공장의 한 연구사에 대한 이야기도 호의와 호기심에 넘쳐 들었다.

그 사나이는 어느 화학공장에서 일하는 과장이었다.

《거의 10년을 그 일에 바쳤지요.》

혈색좋은 사나이는 한숨을 쉬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중년녀인도 머리를 끄덕거렸다.

렬차는 잦은 차바퀴소리를 울리며 달리고있었다. 차바퀴들도 제 나름의 물동적인 음향으로 이야기를 재촉하는듯 했다.

《근 10년만에 성공했지요. 그런데—》

얼굴 긴 사나이는 목소리를 높였다.

《그 연구한것을 내놓았을 때 공장에선 선뜻 도입하려 하지 않았수다. 생산이 바쁘다구 말이지요. 생산이라는거야 항상 바쁘지 바쁘지 않을 때가 있소? 그걸 받아들이면 많은 석탄을 절약할수 있는데도... 헛참.》

얼굴 긴 사나이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다. 혹시 그가 바로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닐까 하고 철남은 생각했다.

《음!—》

혈색좋은 사나이는 격분하여 차창앞의 네모탁을 내리쳤다.

《한심한 일이지요!》

녀인은 기막힌것을 보았을 때 흔히 하는 여자들의 버릇대로 혀를 쫓쫓 차는것으로 말을 대신했다.

《그 동문 알아놓고말았수다. 왜 그러지 않았소? 10년세월 연구한것이 빛을 못 보게 됐으니... 그런데 그걸 끝내 출장왔던 사람이 알아가지고 돌아가 자기네 공장에 도입하지 않았겠소? 결국은 다른 공장에서 먼저 했지요.》

《아니?! 그, 그럼 그 연구가 다른 사람의것으로 되고말았던 말이지요?》

혈색좋은 사나이는 극도로 분개하여 얼굴 긴 사나이를 쏘아보며 부르짖었다. 감동에서나 분노에서나 매우 빠른 성격이었다. 얼굴 긴 사나이는 그런 분노의 폭발을 기다렸던듯 여유자작한 웃음을 지었다.

《그렇리가 있소? 그 공장에서는 어느 공장의 누가 연구한것을 도입했다는것을 명백히 밝혔지요.》

《아이구—》

녀인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며 축축해진 눈곱을 훔쳤다. 그는 그 연구사의 안해에 대하

여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혹시는 그자신이 그런 생활을 겪어본것이나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야 눈물까지 흘릴수가 있을가.

철남은 한좌석에 앉은 세사람에 대한 한결같은 존경을 느꼈다. 이런 사람들과 한좌석에 앉아 여행한다는것이 한량없이 기뻛고 자신에게서도 그 연구사와의 그 어떤 인연을 발견해낼듯만 싶었다.

《다음은 어떻게 되였는가요?》

철남은 얼굴 긴 사나이에 물었다. 사나이는 만족스레 빙그레 웃었다.

《그 일은 그대로 당에 보고되였지요. 그 연구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감사를 받았수다.

연구성과를 목살한 공장책임일꾼들은 처벌을 받았지요.》

그러자 혈색좋은 사나이는 다시 분개하여 부르짖었다.

《그건 처벌이 너무 경하구만. 그런자들은 사정보지 말고 더 심하게 처벌해야 하오.》

그는 또 한번 네모탁을 내리쳤다.

《탄광에 보내던가!》

《?!》

철남은 한동안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 주먹이 네모탁이 아니라 자기 머리를 내려친듯 했다. 왜 하필이면 탄광에? 탄광이 어쨌다고? 그런데 그렇게 인정무른 중년녀인까지 분개하여 맞장구치는 것이었다.

《웁어요! 탄광막장에 들여보내서 제 손으로 탄을 캐보게 해야 해요. 그래야...》

철남은 그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고말았다.

《총각, 왜 그러나?》

하는 녀인의 의아해하는 물음과

《떨미를 하는게로구만.》

하는 혈색좋은 사나이의 목소리를 등뒤로 들으며 그는 승강대로 나와버렸다.

열려진 문으로 찬바람이 몰려들었다. 전주들이 얼른얼른 지나갔다. 잡판목 엉성한 비탈이 지나갔다. 콩크리트회색담벽이 문을 활았다. 갑자기 어두워졌다. 예리하게 고향지르는듯 한 차바퀴소리가 귀를 짹 채웠다. 차굴이었다. 네모난 차창 불빛속으로 콩크리트벽이 맹렬한 속도로 줄달음쳤다. 그 네모난 불빛을 철남은 풀길없는 분함과 억울함으로 쏘아보았다.

탄광이 어쨌다구? 그들은 모두 강성대국건설에서 석탄이 가장 중요하다는것을 잘 알고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다면 웅당 제일 모범적인 사람을 두고 《저런 사람은 탄광에 보내도 되겠구만.》 해야 할것이다.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말하고있지 않는가. ...

갑자기 눈앞이 확 밝아지며 차바퀴소리가 가라앉아버렸다. 다시금 전주들이 눈앞을 때리며 분주

히 지나가기 시작했다. ...

《아이구, 그냥 멀미를 하는게지?》

가방을 든 중년녀인이 뒤에 서있었다.

《들어가서 신덕샘물이라도 마셔보지, 응? 사과도 있는데.》

그는 녀인들 특유의 다심함으로 철남을 감동시키려는듯 했다.

《어데까지 가나? 난 이번 역에서 내려.》

철남은 안으로 들어갔다. 두 사나이도 내려는지 자리가 비어있었다. 네모탁우에 신덕샘물병과 먹음직스러운 사과가 한구럭 놓여있을뿐이었다.

빈자리들을 보느라니 새삼스레 모욕감이 사무쳐왔다. 탄광을 어떻게 알고 그따위 소리가, 탄부를 뭘로 아는가, 그러고도 지원하겠다구? 천만에! 탄광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 말은 샘솟듯이 그냥 생각났다. 말이란 때늦게 상상으로 할 때처럼 풍부해지는 때는 없는것 같았다. ...

렬차에서 내려 고대에질트의 피라미드처럼 높이 솟은 각추형의 검은 버럭산을 보았을 때 그리고 집에 들어서서 탄가루에 절어 거무스레해진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는 더 큰 가슴아픔을 느꼈다. 한생 탄을 캐온것을 자랑으로, 긍지로 알고 있는 아버지였다. ...

《...오늘도 군필아바인 철남동무와 같이 일하면 되겠습니다.》

소대장의 작업지시에 철남은 군필아바이의 구부정한 잔등을 흘려보았다. 작업복은 별로 색깔은듯이 뿌연 색으로 보이는데 비물이 흐른듯이 얼룩이졌다.

저 아바이때문이다 하고 철남은 생각했다. 저 아바이가 아니라면 그는 렬차안에서 있던 일따위는 다 잊어버리고말았을것이다.

사실 휴가에서 돌아온 다음날 아침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철남의 마음은 이미 청청하늘처럼 맑아있었다. 출근준비로 볏아치고 탄부들이 떠들썩 걷는 출근길에 나서니 마음은 흥겨워지기만 했다. 그러나 현장에 이르러 탄광의 부지배인으로 일하던 군필아바이가 채탄공으로 온것을 보게 되자 렬차칸에서 들은 말들이 귀전에 생생히 되살아났다.

철남은 군필아바이를 어린시절부터 알고있었다. 아버지가 채탄소대장이었을 때 그는 부지배인이였었다. 그들은 젊어서부터 같이 일한 친구였다고 한다. 그러나 철남이 철들기 시작했을 때에는 친구가 아니였다. 어릴 때의 일이어서 딱히는 그 사연을 알수 없었으나 대충 귀동냥해들는데 의하면 채탄소대장을 하던 아버지는 갱에 생산지도를 나온 부지배인에게 운탄문제를 풀 새로운 방도를 제기했었다.

《그렇게 했더라면 탄생산을 훨씬 더 높였을건데!》

하고 아버지가 안타깝게 회상한적도 있었다. 그 일은 부지배인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소대는 채탄계획을 미달했고 아버지는 보갱공으로 되었다. 부지배인은 그냥 부지배인으로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때는 완전히 절교하다싶이 싸웠다는 아버지가 보갱공으로 된 다음에는 부지배인과 정상적인 사이로 된것이였다.

그러나 철남은 부지배인을 항상 지름뚱 눈으로 보았다. 길에서 만나도 외면하고 지나갔다.

그런데 그 부지배인이 철남의 일터에 채탄공으로 온것이였다. 자재보장을 제대로 못해 탄생산에 지장을 준때문이라는 말도 있었고 탄을 계획단위가 아닌 곳에 마음대로 퍼준때문이라는 말도 있었으나 어쨌든 이제야 일이 제대로 되였구나 하고 철남은 생각했다. 어깨가 축 처져서 머리를 수그리고있는 그를 보니 속이 다 시원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서는 시원해하거나 기뻐하는 기색이 꼬물만큼도 없었다. 도리어 담배만 연거퍼 피우며 간간이 한숨을 몰아쉬더니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잘 대해줘라. 얼마나 가슴아픈 일이나?》

《...》

철남은 렬차에서의 그 말을 아직 아버지에게 하지 않았다. 한평생을 탄을 캐 아버지, 철남이 알건대 아버지의 자랑은 오직 그것뿐이였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아버지였다.

그런데 아버지는 일을 제대로 못한 부지배인을 경멸할 대신 동정하고있는것이 아닌가. 늙으면 그렇게 두리뭉실해지는것인지...

철남은 결코 부지배인을 동정할수 없었다. 전에는 보수주의자, 소극분자이면서도 부지배인자리에 그냥 앉아있는데문에 미워했다면 이제는 채탄장으로 온때문에 더 미워졌다.

가날피져가던 렬차에서의 목소리는 증폭된듯 더 크게 머리속에서 울리기 시작했다. 결국은 그들의 말이 옳았던것이 아닌가. 부정할수 없는 현실이였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더 크게 증폭시켜주는 일이 또 있었다.

제대군인 성길이가 별로 기분없이 우울해하는 원인을 알게 되였던것이다. 서로 약속까지 하고도 탄광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에 침묵해버린 처녀, 침묵은 그 처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는것을 말해주는것이였다.

더 화를 돋우고 우울하게 하는것은 다른 사람들에게서 자기와 같은 격분의 메아리를 들을수 없는 것이였다.

우선 그는 그 이야기를 영순에게 했었다. 물론 성길이라는 이름은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영순은 격분할 대

신 무척 재미있는 이야기라도 들은듯 눈을 반짝거리며 호기심에 차서 묻는 것이었다.

《그게 누구냐?》

철남은 불끈 화가 났다.

《젠장, 누군가가 무슨 상관이야? 그런 녀자들도 있다는건데! 그래, 동무라면 어떻게 했겠어?》

영순은 대답대신 까르르 웃었다.

《아이, 우습네. 나야 탄광에 있는데 회답을 쓰고 안 쓰고가 있을까?》

영순은 이마아래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가벼운 입김으로 불어올리더니 눈을 깜박이며 의아스러워했다.

《그런데 성은 왜 내?》

《에이!》

더 기가 막힌것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비죽이 웃으며 건성으로 듣더니 손을 올려 안전등유리를 닦았다.

《그런데?》

《그런데라니요?》

철남은 흥분했다.

《이런걸 참을수 있어요? 나라면 콧—》

《저참, 남의 일에 어떻게 콧— 한단 말이나?》

철남은 아연해졌다. 어둠속에서 먼바로 눈을 비쳐대는 아버지의 안전등빛을 아버지의 눈인듯 마주 쏘아보며 부르짖었다.

《그게 어떻게 남의 일이에요? 같은 탄부의 일인데!》

《그게 왜 탄부의 일이란 말이나? 그 체네의 일이지. 그 체네가 생각할 일인걸.》

《예?!》

철남은 두번째로 아연해졌다.

《아버진 그럼 아무렇지도 않아요?》

《별수 있나? 사람이란 원래 천충만충인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탄캐는 사람도 있고 쇠깍는 사람도 있는게 아니겠냐? 네 형들처럼 휘발유통이나 잉크병속에 빠져있는 사람도 있구. ... 참, 그건 그거구 오늘 막장에 버럭충이 나타났다면서?...》

《에이!》

이건 정말 너무하다. 아버지까지 이렇게 대답할 줄은 몰랐다. 30여년의 당생활경력을 가진 로당원, 탄속에서 뼈가 굵고 한평생을 탄과 함께 살아온 로탄부가... 자존심도 무디여지는 것인가. ... 아버지는 늙었구나. 철남은 쓸쓸해졌다. 생활이란 그저 이런것일가. ...

렬차에서 만났던 사람들과 그들의 말을 증명하듯 철남의 앞에 나타난 부지배인, 성길의 처녀... 랑만은 사라졌다. 탄전은 그저 일하는 곳일뿐이었다. 어렵고 힘든... 그 어렵고 힘들다는것은 철남

이 생각했던것처럼 영예나 빛이 아니었다. 존경의 대상도 아니었다.

4

채탄장으로 가려면 아버지가 일하는 보갱현장을 지나야 했다.

팅팅 도끼질소리가 들리고있었다.

철남은 아버지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여럿의 가운데 끼여서 갔다.

아버지는 보갱작업에 골몰해있었다. 도끼등으로 동발을 때려넣고있었다.

다행스럽게 그앞을 재빨리 지나쳤다. 그런데 텅텅 울리던 도끼소리가 멎었다.

철남은 저도 모르게 돌아보았다. 아버지의 모자에 달린 안전등빛이 자기에게로 향해있었다. 보이는것은 동그란 안전등빛뿐, 아버지의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불빛은 마치 아버지의 눈빛처럼 의혹과 불만 그리고 《요즘은 웬일이냐?》 하는 엄한 물음을 담고있었다.

팅팅 도끼질소리가 다시 울리기 시작했을 때에야 철남은 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안전등빛이 담고있던 《요즘은 웬일이냐?》 하는 물음은 떨어지지 않고 그냥 따라왔다. ...

이날은 탄벽도 여느날처럼 윤기있게 번쩍거리는 것 같지 않았다. 탄의 질이 나빠진것인지도 모른다. 탄층도 어제보다는 얇아진것 같다.

《젠장!》

그러나 채탄장을 돌아본 갱장은 머리까지 끄덕거리며 기분이 좋아했다.

《탄이 좋군! 성냥만 그어대도 불이 붙겠어!》

그러니 탄벽이 여느날보다 광채없이 보이는것은 철남에게만인듯 했다.

《어때, 그렇지?》

갱장은 오늘따라 별스레 대답을 요구한다. 머리를 끄덕거릴수밖에 없었다. ...

일은 처음부터 성수나지 않았다. 《강력》이 자주 멈칫멈칫했고 그때문에 탄을 시원스레 실을수 없었다. 또 탄층에서 난데없는 버럭충이 나타나 한동안 버럭과 씨름을 해야 했다.

전에 같으면 선탄공정이 있다는것으로 그냥 넘겼을것이지만 소대장은 버럭을 여기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버럭은 탄이 아니요. 우린 채탄공이지 버럭을 캐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요! 더우기 지금같은 때에...》

그렇다, 일본새부터 달라져야 한다, 지금은 그런 때이다, 2009년이다. ... 그러나 버럭처리에 만도 한시간나마 걸렸다. 소대장은 자기가 주장한 일이면서도 이렇게 하다가는 교대에 한순환도 못 하겠다고 초조해했다. 모두들 조급해하였고 부

산스레 오갔다. 땀은 땀대로 흘러면서도 일은 자리가 나지 않았다. 한시간도 훨씬 지나서야 겨우 일은 자리가 잡혔다.

발파에 짹짹 갈라진 탄벽에 지레대를 박아 이리저리 흔들어대자 탄벽은 죽반죽으로 변하는듯 흐물흐물하더니 와르르 무너져내렸다. 그것은 밀어내는대로 강력절삭콘베아에 실려 조구통으로 실려간다. 또 지레대를 박는다. 다음은 전기드릴로 천공하고 발파를 하고 또 탄을 밀어내고...

결국은 하는 일이란 이 공정의 부단한 반복일뿐이다.

《후-》 이상하게 일이 지루하게 느껴졌다. 젖은 작업복이 잔등과 다리에 철땀 달라붙어 짜증나게 했다. 땀에 젖은 옷은 몸을 움직일 때면 팽팽히 헝기우며 팔다리를 구속하였다.

《빌어먹을것!》

허물어뜨리는 탄을 옆에서 《강력》에로 밀어내며 조력을 하는 군필아버이의 숨소리가 참기 어려울 정도로 싫었다. 그러나 군필은 그의 옆에서 줄곧 떠나지 않고있었다. 사실 떠나서는 안된다. 그는 철남의 조력공이기때문이다.

부지배인도 한때는 채탄공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보장부문에서 일하면서부터는 20여년 세월 갱에 거의 들어와본적이 없다. 그러다보니 판청에 온 촌닭처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손발만 허둥거리는 때가 더 많았다.

그의 숨소리가 싫었다. 씹씹거리는 숨소리가 참을수 없이 신경을 파고들었다. 물썩물썩 풍겨오는 땀내는 더욱 참기 어려웠다.

《젠장!》

철남은 더는 참지 못하고 획 머리를 돌렸다. 좀 물러서있으라고 소리치려 했다. 그런데 군필은 밖으로 밀려나온 탄덩이들을 몰아넣느라고 《강력》 옆에 가있었다. 철남은 혼자 있었다. 옆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자신뿐이었다. 역겹게 여겼던 숨소리와 땀내는 그자신의것이였다.

시간은 흐르는것이 아니라 게으른 아낙네처럼 한자리에서 뭉그적거리는듯 했다. 힘겨웠다. 래일도 모래도 이렇게 일해야 할가. 다음순간 그는 다시한번 소스라쳤다. 그 생각때문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는 자신때문이었다. 이 철남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이라도 할수 있을까.

문득 몇달전 탄광을 뜨겠다고 한 굴진공을 비판하던 청년동맹회의에서의 목소리가 귀전을 울렸다.

《동무는 변질되었습니다!》

철남은 부지중 뒤를 돌아보았다. 군필아버이가 탄을 《강력》에로 몰아넣고있을뿐이었다. 철남은 머리를 맹렬히 흔들었다.

그러나 한번 기여들어온 목소리는 집요하게 머리를 떠나지 않고 낮게 또는 높게 되풀이되였다. 얼마후에는 그자신도 생각못했던 목소리가 불쑥 머리속에서 울려나왔다.

《변질되였다. ... 변질되였다!》

《아니, 아니다!》

그는 분명히 부르짖었다. 나는 지금 탄을 캐고 있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탄을 캐것이다. 내가 이 탄벽과 마주서있는 이상 변질이란 있을수 없다. 탄은 썩지 않는다. 오직 타오르는것만을 안다. 나는 석탄이다. 불이다! ... 허나 잠시후에는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변질되였다! 변질되였다!》

점심식사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렸다. 지레대를 거의 떨어뜨리듯이 내려놓은 철남은 러벌러벌 식당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데 아픈가?》

군필의 물음이 뒤에서 울렸으나 그는 머리로 돌리지 않았다. ...

식사를 끝냈을 때 아버지가 보갱공들과 함께 식당에 들어왔다.

《나가서 기다려라.》

《...》

철남은 식당문앞에 우두커니 서있었다. 아버지는 틀림없이 왜 그 모양인가고 따져물을것이다. 아침에도 물었었다. 대답을 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노할것이다.

기대여선 동발에서 축축한 습기가 잔등에 스며든다. 갱벽에 붙어있는 방송에서는 보도를 내보내고있었다. 미제국주의자들이 우리에게 대한 제재소동을 더 악랄하게 벌리고있는것을 단죄하는 보도였다.

《젠장!》

그 백악관인지 뭔지 있는 땅밑에서 화산이라도 확 터져올랐으면! 신문이랑 보면 세계 여기저기에서 화산이 자주 터지던데 왜 백악관을 뒤집어놓을 화산도 하나 없는지 모르겠다. 그뿐인가. 우주공간에서 지구에 떨어지는 운석이 하루에도 수백개를 헤아린다는데 한개만이라도 그놈의 백악관지붕에 면바로 떨어져줄노릇이지.

《철남동무! 철남동무! 같이 가!》

영순의 부름소리에 그는 돌아보았다. 자기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채탄장쪽으로 어정어정 걸음을 옮기고있었음을 깨달았다.

이미 식당에서 나온 아버지는 철남에게 뛰어오는 영순을 본때문인지 그냥 가라고 손짓하고는 몸을 돌려버렸다. 다행스러웠다.

영순은 어느때처럼 말쑥했다. 꼭 맞는 작업복이며 꼭 줄라맨 신발이며가 얼마나 맵시있게 어울리는지 마치 품들여 단장하고 나선 차림새같았다.

얼굴 역시 눈부실 정도로 말쑥했다. 그와 나란히 서니 자신이 별로 더 주접스럽게 느껴졌다. 그래도 사랑한다구? 흥!

《참, 철남동무 들었어? 소식을?》

《무슨 소식?》

철남은 흥심없이 우울하게 되물었다.

《어마나, 아직 몰라?》

《응?》

동그랗게 뜬 처녀의 눈을 보자 철남은 정신을 차렸다.

《무슨 소식인데? 뭐야?》

《오늘계획을 하면 탄광적으로 월계획을 완수한 다는거야. 이틀이나 앞당겨서.》

《뭐?!—》

맥이 탁 풀렸다.

《젠장! 난 또 무슨 굉장한 소식이라구?!》

영순은 놀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

《...》

철남은 터벅터벅 걸었다. 하긴 그렇다. 그게 왜 굉장한 소식이 아니겠는가. 계획을 앞당겨 수행하게 된다는 소식인데. 온 탄광마을에 명절기분을 안겨주는 소식인데. 오늘 밤 아버지는 동년배로탄 부들과 목이 긴 놈을 기울일것이다. 이미 집에 들어앉아 년로보장을 받은 늙은이들도 이런 날에는 모여앉는다. 아이들도 활기에 넘치고 탄부의 안해들도 더 살뜰하게 남편들을 맞이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탄부들의 걸음은 더 무게있어지고...

그런데 나는 왜... 그래 틀림없이 달라졌어. 철남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달라졌어, 변질됐지, 변질...

《요즘 동문 좀 이상해졌어.》

영순의 걸음은 갠안에서도 가볍다. 춤추듯 가볍고 룰동적이다.

《내가?》

《그래. 말이 없어지구, 짜증이 많아지구, 누굴 볼 때도 싸울 때처럼 지름떠보구...》

《...》

《동물 보면 난 막 속상해!》

《속상하다구?》

철남은 그를 돌아보고는 피씩 웃어버렸다. 속상하다는 말과는 달리 목소리가 너무도 맑고 랑랑했고 얼굴에는 방실거리는 미소가 담겨있는 때문이었다.

《기분이 무척 좋았는데?》

철남은 툭 내쏘듯 한마디 했다.

《응, 나 오늘 정말 기분좋아!》

영순은 그 물음만을 기다렸던듯 했다. 속상하던 말은 벌써 까맣게 잊어버렸다.

《막 기분좋아죽겠어!》

《무슨 일이 있었게?》

철남은 아무 흥미없이 되물었다.

《책을 하나 빌렸거든! 재미있는 책!》

영순은 저쪽손에 들고있던 책을 쳐들어보였다.

《무슨 책이나?》

《〈세계력사일화집〉!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 막 보고파죽을 지경이었는데 방금 빌렸거든.》

《세계력사일화집?》

철남은 그제야 좀 흥미가 일었다.

《어데 좀 보자.》

영순은 책을 내줄듯 하더니 불현듯 위구를 느낀 듯 얼른 등뒤로 가져갔다.

《안돼, 또 저부터 불려구...》

전에 그런적이 여러번 있었다.

《안 그래. 차례만 보구는 쥐, 이 자리에서.》

《안돼.》

영순은 책을 꼭 움켜쥐었다.

《조금만 보고 준다는데?》

철남은 손을 내밀고 다가섰다. 영순은 뒤로 물러서다가 동발에 부딪치자 두손을 다 등뒤로 돌려 책을 꼭 움켜쥐었다.

《안돼! 싫어! 싫어!》

두손을 뒤로 돌려 책을 꼭 쥐고 몸을 흔드는 영순은 꼭 어린 소녀에갈았다. 철남은 그의 잔등뒤로 손을 내밀었다. 영순은 그가 왼손을 내밀면 오른쪽으로 가져가고 오른손을 내밀면 왼쪽으로 가져가며 책을 내주지 않는다. 철남은 두손을 다 내밀었다. 어느쪽으로도 피하지 못하게 량쪽으로 팔을 동시에 뻗치어 잔등뒤에 숨긴 책을 덥석 움켜쥐었다.

《안돼! 안돼! 안돼!》

기관총사격처럼 런발 울려나오던 영순의 목소리가 문득 툭 끊어졌다. 뒤이어 툭씩 소리내며 책이 바닥에 떨어졌다.

철남은 그만 얼퍼름해서 영순을 쳐다보았다.

그의 팔을 뿌리쳐버린 새파랗게 독이 오른 처녀가 그의 앞에 서있었다. 파들과들 떨리는 입술, 불꽃을 튕기는듯 한 눈이 그를 쏘아보고 있었다.

철남은 당황했다. 그는 처음으로 영순의 어깨가 가냘프기만 한것이 아니라 동그스름하며 류달리 봉긋이 솟아오른 가슴을 보았다. 가냘프게만 보이던 목은 눈부실만큼 하얗게 보였다. 그의 앞에는 소녀가 아니라 처녀가 서있었다. 그는 영순이면서도 영순이가 아니었다!

《동문, 동문 뭐야? 정말, 정말...》

하던 영순은 더 말을 못하고 뺨 돌아서서 운전실로 뛰어들어가버렸다. 운전석에 무너지듯 주저앉더니 전동기우에 어푸러져버린다. 동그스름한 어깨가 오르내린다. 울고있다. 왜? 왜? 무엇때

문에?...

바닥에는 영순에게 그리도 큰 즐거움을 주었던 책이 되는데로 덩굴고있었다. 《세계력사일화집》, 영순은 그 책을 내버리고 가버렸다. 그에게서는 한순간에 그 책이 아무 가치도 없는것으로 되어버린것이다. 철남이 역시 책에 대한 흥미를 싹 잃고 말았다. 세계적인 그 어떤 사변도 방금전에 일어난 일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아무 가치도 없는것으로 느껴졌다.

그는 책을 집어들고 주춤주춤 운전실로 들어갔다. 책을 조심스레 전동기우에 올려놓았다. 전동기는 무척 따스했다.

《저... 책 가져왔어.》

영순은 못 들은듯 했다. 머리로 들지 않는다. 철남은 그의 어깨로 손을 가져갔다.

《영순이...》

그는 영순의 어깨에 손을 댔다가 얼른 가드라프렸다. 처녀의 어깨가 전동기보다 더 뜨거운것처럼 느껴졌다.

영순은 몸을 뒹 옆으로 돌리며 머리를 들었다.

《비켜! 보기 싫어! 썩 나가!》

철남은 광풍에 불린 나무잎처럼 운전실에서 쫓겨나왔다. 확확 달아오르는 얼굴로 헐썩거리며 채탄장으로 향했다. 《비켜! 보기 싫어!》하는 소리가 그냥 귀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순의 눈에는 혐오와 멸시가 가득 담겨있었다.

《후—》

그는 동발에 이마를 대고 섰다. 싸늘하고 축축한 동발이 이마를 식혀준다. 무슨 일이 일어난것인가. 땡—하기만 했다.

《보기 싫어! 썩 나가!》

이제 더는 영순에게 말을 걸수도 쳐다볼수도 없을것 같았다.

가슴은 심한 갈증에 시달리듯 답답하고 안타깝다. 눈앞에는 한순간에 어른으로 변모되어 서있던 영순의 모습이 후광에 싸인듯 나타났다. 자기가 혐오의 대상으로 된것이 명백한데도 더욱 생생하게 떠오르는 처녀의 자태는 그를 놀라게 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기가 출근길에서나 퇴근길에서나 채탄장에 들어와서나 영순의 모습부터 찾아보게 되리라는것을 깨달았다. 쳐다볼 때면 더 자주 감박거리는 새까만 눈이며 흘러내린 머리칼을 입김으로 불어올리던 그 얼굴이 더욱 생생하게 떠오르며 가슴이 미여지듯 아파왔다.

《아이쿠!》

누군가와 부딪친 그는 비틀거렸다.

《여! 좀 보고다니라!》

성길이었다. 그의 손에서 무엇인가 땅에 떨어졌다. 집어들고보니 편지였다. 그렇게 기다리더니...

《편지가 왔구만요.》

《흥! 온게 아니라 되돌아온 편지야.》

다시 보니 《리순회동무앞》이라는 받을 사람주소 옆에 되돌려보낸다는 쪽지가 붙어있었다. 여러 조항중에서 《본 주소에 본인이 없으므로》라는 조항에 동그라미가 그려져있었다.

《본인이 없다는게야, 후—》

철남의 귀가에는 까닭없이 《보기 싫어!》하던 날카로운 음성이 다시 메아리쳤다. 그리고 전동기우에 얹드려 울던 모습이 눈앞에 밝혀와 다시금 가슴이 찢는듯 아파왔다. 동시에 가슴이 텅빈듯 한 상실감을 느꼈다.

그는 성길을 멍하니 보다가 저도 모르게 내뱉었다.

《시시해요.》

《응? 뭐, 뭐야?》

그때 《강력》이 삐걱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작업시간이었다.

그는 성길의 옆을 떠나 자기 자리로 향했다.

5

탄은 언제나와 다름없이 번쩍거리고있었다. 그의 손에서 무너져내려 《강력》으로 밀려가며 불빛이 스칠 때마다 번쩍! 번쩍! 빛을 뿜었다.

철남은 탄벽과 싸우고있었다. 탄벽에 지레대를 힘껏 들이박아 허물어뜨렸다.

힘겨운 하루였다. 왜선지 모든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갑자기 탄이 지내 많이 쏟아져들어가 《강력》이 멎었는데 군필은 그것도 모르고 그냥 탄을 몰아넣어 반시간나마 삼으로 도로 파제껴야 했다. 지압이 오면서 장벽이 쏠리는 기미가 있다고 하여 또 작업이 중지되었다. 그 하나하나가 한동안씩 씨름질을 해서야 바로잡히곤 했다. 그럴수록 소대장의 이마에는 주름살이 늘어났고 모두의 신경이 팽팽해져갔다.

탄벽도 오늘따라 별로 더 굳어진것 같았다. 전기드릴도 공손히 말을 듣지 않는다. 군필은 줄곧 우물우물하며 도저히 일손을 맞춰주지 못한다. 화만 부각부각 끓어오른다.

탄벽에는 렬차에서 만났던 세사람의 얼굴이 얼른거린다. 성길이 말하던, 아직은 얼굴을 알수 없는 처녀의 모습도. 철남의 가슴에 동요와 의혹, 불만을 심어놓은 얼굴들이다.

《에익, 제길할!》

와르르— 탄벽이 무너져내린다. 무너져서 《강력》으로 밀려간다. 그러나 그 얼굴들은 밀려가버리지 않는다.

... 《그건 너무 처벌이 경하구만! 그런것들은 다...》

울분이 더욱 끓어오른다. 의혹과 불만, 그 모든

것을 탄에 실어 멀리로 보내버렸으면! 그러나 아무리 탄벽을 무너뜨려 흘려보내도 울분은 실려가 버리지 않는다. 점점 더 커질뿐이다. 그것은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중의 한명인 군필이 그냥 옆에 있기때문이다. 부단히 눈앞에서 어물거리기때문이다.

왈각— 전기드릴을 탄벽에 처박는다. 그런데 들어가지 않는다. 전기줄이 팽팽하게 행기워있었다. 잡아당겼다. 줄이 끌려오지 않는다. 그는 돌아보지 않고 소리쳤다.

《줄!—》

아무 반응도 없다. 다시 소리쳤다.

《줄!—》

역시 반응이 없다. 획 돌아보았다. 그러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받쳐올랐다. 군필은 큰 탄덩어리를 깨뜨려 《강력》에 실어놓고는 그것이 실려가는것을 흐뭇하게 보고 서있는것이였다. 전기드릴줄은 미처 밀어내지 못한 탄더미에 깔려있었다.

《뭘해요?!》

그제야 군필은 허겁지겁 달려왔다. 달려와서도 삼을 찾느라고 또 허둥거린다.

《에익!》

철남은 전기드릴줄을 획 잡아당겼다. 툭 소리가 나며 전기드릴이 멎었고 그는 앞으로 넘어지고말았다. 줄이 끊어진것이였다. 그와 함께 자체력도 참을성도 끝장이 났다.

철남은 일으켜세워주는 군필의 손을 획 뿌리쳤다. 그렇다, 이 아버지가 아니었다라면 철차에서의 목소리들은 시간과 함께 사라졌을것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부단히 눈앞에서 얼른거리며 그 말을 상기시키고 긍정해주고 강조해주고있었다. 그의 존재자체가 철남에게는 피로움이였다. 싫다! 나는 싫다! 울분은 출구를 찾았다. 분화구를 찾은 울분은 용암처럼 터져나왔다.

《캐놓은 탄도 처리 못하고 뭘해요?》

《…》

《아버지가 하는게 뭐예요? 똑바로 하는게 뭐가 있어요? 일에 방해만 끼치면서! 그따위로 일하려면…》

주름살진 군필의 얼굴이 해쓱하게 이그러지며 입술이 부르르 떨었다. 탄가루에 얼룩진 얼굴이 해쓱해지는것이 무서운감을 주었다. 《강력》옆에는 또 하나의 해쓱해진 얼굴이 놀라움과 공포에 싸여 철남을 보고있었다. 영순이였다. 그의 눈은 경악과 비난으로 가득차있었다. 그러나 분출을 시작한 《용암》은 멈출수 없었다.

《썩 나가란 말이에요!》

순간 눈에서 불이 번쩍! 했다. 불에 가해진 세찬 타격에 철남은 비틀거렸다. 겨우 가누고 선 철남의 몸은 폭풍에 휩싸인듯 부들부들 떨렸다.

또 한차례의 타격이 가해졌다.

《이놈의 자식!》

우뢰같이 울리는 음성에 앞으로 내달으려던 철남의 몸은 못박힌듯 서버렸다. 앞에는 아버지가 서있었다. 커다란 손을 후들후들 떨며 서있었다.

《어데서 배운 버르장머리냐? 못된놈의 자식!》

왜? 왜? 가슴이 마구 뒤집히는듯 했다.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그따위 머리통을 가지군 탄을 못 캐! 그런 상관대기루 캐낸 탄은 탄이 아니야! 버럭이지! 탄을 더럽히는 자식! 너같은 놈은 탄을 캐 자격이 없다! 썩 나가라!》

탄을 더럽힌다구? 내가? 내가? 탄은 누가 더럽히고있는가? 바로 지금 머리를 싸쥐고 탄더미에 웅크리고있는 저 아버지같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철남은 분연히 머리를 쳐들었다.

《내가 왜 나가요? 난 탄부예요! 나가야 할건 내가 아니라… 아버지 탄광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들 하는지 알아요? 파오를 범한 사람을 두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그런것들은 탄광으로 보내야 한다〉 고 해요!》

그러자 억울함과 야속함으로 왈각 눈물이 쏟아졌다. 눈물은 불을 흘려내려 입으로 흘러들었다. 이제껏 가슴속에서만 소용돌이치던 의혹과 울분, 고민, 그 모든것이 눈물로 되어 쏟아졌다.

《탄부들이 제일이다, 제일 귀중하다, 제일 큰일을 한다 하면서도 왜 그렇게들 말하는가 말이에요?!》

《…》

철남은 주먹으로 눈물을 휘뿌려던졌다. 가슴속은 그냥 쏟아놓아야 할 말로 부글부글 끓는다. 그런데 왜 이렇게 눈앞이 캄캄할까? 귀가 짹 막힌듯 멍멍해지고… 내가 눈을 감고있는것이 아닐까. …

《정전, 정전이에요!》

영순의 비명처럼 울리는 소리에야 철남은 정전되었음을 깨달았다. 갑작스런 정전에 귀에서 웅— 소리가 났다.

틸링 툴링 공구 내려놓는 소리.

《에이, 한시간이면 계획을 끝내는건데…》

《후— 이러니 탄이 제대로 못 나오고 전기는 더 긴장해지고…》

철남은 그 말을 하는것이 자신인듯 했다. 때문에 아버지의 거치른 음성이 울렸을 때 흠뻑하기까지 했다.

《그따위 타령이나 한다구 탄이 나오나? 전기가 오나? 일하는 사람답지 않게!》

그러자 하나의 안전등이 천정에 닿을만큼 불쑥 솟아올랐다.

《웁습니다!》

성길이었다. 다른 사람의 목소리처럼 쇠소리
가 나는 음성이었다.

《군대에서는 조건타발이라는것을 모릅니다. 해
야 한다는것만을 압니다. 전기가 부족하여 탄을
제대로 못 켜다고 타발만 할것이 아니라… 분발해
야 합니다. 탄이 가야 전기가 나옵니다.》

그의 안전등빛이 마치 예리한 탐조등빛처럼 이
사람, 저 사람의 얼굴로 날아간다. 철남은 그 불
빛이 자기 얼굴을 찌를 때 이상하게도 답답하던
가슴이 열리는듯 했다. 소대선동원, 제대군인이
역시 달랐다!

《우리는… 〈강력〉을 손으로 돌려서라도 석탄
생산을 보장해야 합니다!》

《〈강력〉을?》

탄부들은 말이 적다. 일로 말을 대신한다.

《하면 되는거지! 전동기가 돌리는 〈강력〉
을 왜 사람이 못 돌리겠나?》

하고 말하는 아버지는 벌써 《강력》운전실로
가고있었고 모두들 그뒤를 따르고있었다.

소대장의 안전등빛이 뒤로 휩 돌아왔다.

《성길동무네 조는 채탄을 계속하고 모두 〈강
력〉으로!》

《강력》은 험사리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마치
녹아붙은듯 했다. 그러더니 마침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강력》의 사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움직여요! 탄이 가요!》

영순의 기쁨에 넘친 목소리가 힘을 부쩍 더해주
었다. 일단 걸음을 떼면 《강력》은 당기는대로 속
도가 조금씩 빨라졌다.

《이러다 조구가 메지 않을가?》

《걱정두, 게서라구 앉아있겠나?》

그에 대답이라도 하듯 조구통쪽에서 영순의 목
소리가 날아왔다.

《탄을 얼마든지 보내래요!—》

그는 《강력》이 멎은것이 전기때문이 아니라
자기 잘못때문인듯 안타까이 이 끝에서 저 끝으로
달려다니고있었다.

철남은 뒤에서 전동기피대를 당기며 아버지에게
하는 군필아바이의 말을 들었다.

《지금도 하늘에선 〈광명성2호〉가 돌고있겠
지?》

뜻밖의 물음이었다. 한데 스스럼없이 하는 아버
지의 대답은 더 놀라운것이였다.

《아무렴. 우리가 이렇게 탄을 보내는데야!》

천여키로메터상공의 인공지구위성과 천길땅속
의 석탄,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은 그것이 서로 멀
고먼 곳에 떨어져있는것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일까. …

《굴전에선… 오늘이면 예비탄발을… 또 하나…

라고앉는다 했는데…》

《아침에 보니… 저탄장에… 발전소화차들
이… 서있더구만.》

《떠나보냈겠지. 지금이… 어떤 때라구…》

아버지의 생각은 땀과 숨가쁨으로 시간이 더디
게 흘러가는 이곳에 있지 않았다. 아마도 봉락으
로 채탄장이 다 막혔다 해도 아버지는 예비탄발이
나 발전소에 보낼 탄을 걱정했을것이다. 그리고
어느 탄광의 탄부들이 그러했던것처럼 발파구멍을
뚫거나 동발앓힐 자리를 뚫을것이다. 아버지예
게는 자신에 대한 생각이 없었다. 다만…

《성길아!— 〈강력〉이 왜 이리 가벼우냐?》

《탄을… 듬뿍, 듬뿍… 실어라!》

철남은 입으로 흘러드는 찼찼한것을 느꼈다. 땀
인지, 눈물인지 자기도 알수 없었다.

절그럭, 절그럭, 천천히 움직이는 《강력》에서
탄덩어리들이 무겁게, 묵직하게 번쩍인다. 그 소
리가 철남에게는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하는 소리로 들린다. 손으로 돌리는 《강력》에
실려가는 한덩어리, 한덩어리의 탄은 얼마나 무거
워보이고 커보이고 귀중해보이고 눈부신 빛을 뽐
는것인가. 간다, 탄이 간다, 석탄이 간다!…

교대시간을 얼마 앞두고 전기가 왔을 때 모두들
환성을 올렸다. 철남은 마치 자기들이 그사이 멈
춤없이 캐낸 탄으로 하여 전기가 다시 온듯 한 긍
지를, 기쁨을 느꼈다.

얼마후 교대를 알리는 신호등이 깜빡거렸다.

다음교대에 인계해줄 채탄장을 간간히 돌아
본 소대장이 느슨한 미소를 지으며 오늘계획
을 102프로 했다는 한마디로 총화를 대신했다. 계
획한 날에는 총화가 짧은 법이다. …

아버지와 함께 채탄장을 나설 때 철남은 부지중
의혹에 휩싸였다.

무엇때문에 그처럼 우울해하고 신경질을 부리고
성을 내였던가. 열차에서 만난 세사람이 그따위
말을 했다 한들 그것이 어떻단 말인가. 석탄이 버
력으로 되기라도 했는가. 부지배인이 채탄장에 채
탄공으로 왔는데는 어떻단 말인가. 탄은 여전히
변함없이 눈부시게 번쩍거리지 않는가! 그런것
들은 그들이 오늘 손으로 《강력》을 돌려 캐낸
작은 석탄덩어리 하나보다도 더 보잘것없는것이였
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 제가…》

《됐다. 그럴수도 있지, 그래.》

무슨 말인가 더 하려던 아버지는 《강력》으로
허리를 굽혔다. 흘러가는 탄속에서 주먹만 한 버
력덩이를 집어들었다. 어디다 버리려는듯 두리
번거렸으나 그대로 손에 든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
다. 구부정하고 그냥 《강력》을 내려다보며 느릿

느릿 말을 이었다.

《그렇게 망탕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

하고 그는 버럭덩어리를 동발뒤구석에 집어던졌다. 도로 굴러나오지 않는가를 확인하듯 눈여겨보고서야 다시 걷기 시작했다. 구부정하던 잔등이 펴졌다.

《그러나 철남아, 너도 알지 않느냐? 우리 수령님께서 30여년전 온 나라가 휴식하는 자신의 생신날에까지 탄부들을 찾아 나오시였고 자신께서 10년만 젊어도 막장에 들어가 탄을 캐고싶다고 하시였다. 휴식을 권고하는 일군들에게는 석탄만 많이 나온다면 그보다 더 좋은 휴식이 없다고 하시였고… 그런 석탄이다. 우리가 캐는것은…》

쿵쿵 울리는 소리, 어느 편도에서 발파를 하는 모양이다. 아니, 이것은 크나큰 심장의 고동소리와도 같은것이다. 수천길 땅속을 흔들고 지구라는 한없이 큰 땅덩어리를 뒤흔들어놓을… 철남의 심장도 이렇게 큰 고동을 가졌더라면 그런 따위 시시부레한 일로 속을 앓지 않았을것이다.

《당에서는 올해공동사설에서도 석탄공업부문을 경제발전의 생명선이라고 하지 않았나?》

나는 아직 어린 아이였다. 말 몇마디에 노여워하고 억울해하고… 너무도 작은 심장이였다.

《철남아, 나는 서른해나마 탄을 캐다. 무슨 일인들 없었겠느냐. 나도 안다. 깨끗한 일은 아니지. 쉬운 일도 아니구… 채탄장에 그런 사람들이 더러 왔던것두 사실이구. …》

그러나 알아뉘라. 일은 어지러울수도 있구 힘들수도 있지만 그 일에서 생겨나는것은 제일 깨끗하구 훌륭한거다. 일에서는 어지러운것이 태어나지 않는다.

너는 이렇게 생각해본적은 없느냐? 우리 탄부들을 닮으라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로 보내는거라구 말이다. 걸이 아니라 속을 닮으라고 말이다. 우리에게 대한 믿음이지. 일이 어려워수록, 힘들수록 사람은 더 굳세지구 깨끗해지는거다. 일이 첫째로 만들어내는것은 사람이다. 나는… 그렇게 믿는다.》

《…》

나도 믿어요! 하고 말할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허나 철남은 선뜻 그렇게 말할수 없었다. 그런 말은 아버지처럼 산전수전을 다 겪어본, 자신에 대해서는 생각지 않는 그런 심장으로만 할수 있는 말이다.

《나는 오히려 자랑으로 생각한다. 그런 사람들의 병집을 고쳐주라고 우리에게 보내는것을…》

가슴으로 따뜻한것이 흘러드는것 같다. 눈곱이 다시 축축해온다.

《일이 어려운것만은 사실이지. 그러나 너나 나

나 당에서 가장 바라는 곳에, 가장 아파하는 곳에서있다는 자랑은 가질수 있다. 이것이면 전부지!》

아버지의 얼굴은 한결 푸근했다.

《힘들지?》

《힘들어요.》

전에는 해본적 없는 대답이였다. 힘들다는것을 인정하려면 자존심이 상했다. 이때는 자존심이란것이 너무도 하찮은것으로 느껴졌다. 탄부는 자존심이 아니라 그보다 큰것을,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정말… 힘들어요.》

《그래, 힘든 일이지. 탄캐는 일이 쉬울수가 있냐? 앞으로 한뼘를 탄을 캐려면 마음고생도 많을게다.》

《…》

아버지와 아들은 나란히 걸었다. 아버지는 동발에 머리를 쫓지 않으려고 머리를 한쪽으로 찌뱃하고 걸으며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힘들지. 쉽다는건 거짓말이지. 어떤 탄이랴. 너도 말한적이 있었지. 세상에 불을 갖다주어서 한평생을 고생한 사람이 있었다구.》

철남은 배판의 쇠쇠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직이 말했다.

《사람이 아니라 신이에요. 프로메테우스라는…》

《그건 마찬가지다. 큰일을 한 사람이 신이지. 다르게 신이라구. …》

《…》

참말이다. 옛날에는 정말로 프로메테우스라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을수도 있다. 그가 하늘의 번개불이나 운석이 떨어져 일어난 불에서 사람에게 필요한 불을 얻어냈을수도 있다. 그것이 전해지고 전해져 신화로 되고 그 사람이 신으로 전해졌을지 어찌 알라.

《그 사람은…》

아버지는 그것을 기정사실로 단정해버린듯 말했다.

《사람들에게 불을 준것때문에 평생 고생을 했다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일이 그보다 적은 일같으냐? 우리는 사람들에게 불을 주는 탄을 캐는 사람들이 아니냐? 사람들에게 불을 주는 일이 쉽겠냐? 그 사람은 하늘에서 불을 가져왔다지만 우리야 천길땅속에서 불을 캐내야 하니 말이다.》

《…》

땅속에서 불을 캐낸다. 그것은 정말이다. 천길땅속에서 불을 끄집어내어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이 탄부이다. 불, 불, 오늘 불에 대한 그림을 그린다면 하늘에서 불을 가지고 내려오는 프로메테

우스가 아니라 수천길땅속에서 불을 캐들고 올라오는 탄부를 그려야 할 것이다.

《또 우리가 캐내는 불이 어떤 불이냐? 그 불이 있어 우리의 행복두 있구 나라는 더 부강해지는게 아니겠냐. 아마 세상에 이런 불은 없을게다. 이보다 열배, 백배 힘들어두 누군가가 꼭 해야 할 일이지.》

오늘 당에서는 탄을 더 많이 캐것을 요구하고있다. 탄부라면 그것만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만을 생각하려 해도 힘과 시간이 모자랄거다. 잡념이 없어야 한다. 오직 한가지만, 그것만을 생각해야 한다. 아무리 조건이 좋은 채탄장이 마련되구 운탄선로가 개선된다 해두 그 하나만을 생각하지 않으면 탄생산이 늘어날수 없다. 너도 알거다. 그래서 당에서는 정신력을 가장 힘있는 무기라고 한것을...》

《!》

모든 기계소리들이 멎고 정적이 깃들었다. 때때로 발걸음소리와 두런거리는 말소리들, 안전등빛들이 별처럼 인차장으로 움직이고있다. 배판에서 공기흐르는 소리만은 멎을줄 모른다. 그 소리는 탄광이 한시도 멈춤없이 숨쉬고있음을, 더 큰 혁신과 위훈이 자라나고있음을 알리는것이다. ...

인차의 덜커덩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6

인차장에서는 탄부들이 웅성거리고있었다. 인사를 주고받고 뭘 알려주기도 한다. 인차에서 내린 탄부들은 목소리도 높고 걸음도 빠르지만 인차에 오를 탄부들은 느릿느릿 움직이며 말소리도 드문드문 한마디씩이다.

성길이가 철남의 옆으로 다가왔다.

《철남이.》

아까 하던 이야기를 마저 결속짓고싶은 모양이다.

철남은 아까 시시하다는 말만 던지고 돌아서버렸던것이 저으기 미안해졌다.

이제는 그에게 존경이 갔다. 제대군인선동원...

그런데 마주 서있던 성길이의 눈이 갑자기 휘둥그레졌다. 그의 놀랜 시선이 철남의 어깨너머를 보고있었다.

철남은 돌아보았다. 낮설은 한 처녀가 서있었다. 그 처녀 역시 이쪽을, 성길이쪽을 보고있었다. 철남은 다시 성길을 돌아보았다. 그러나 성길은 이미 그 자리에 없었다. 처녀의 앞으로 달려가있었다.

《저- 순희동무가 아니요?!》

《성길동무지요?》

이것이야말로 사변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러나 편지는 돌아올수밖에 없었던것이다.

《그런데 동무가 어떻게 여기에 와있소?》

《저의 아버지가 여기로 자원해왔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소?》

성길의 얼굴은 기쁨으로 환해졌다.

《그런데두 나한테는 알리지 않았단 말이요?》

처녀의 얼굴은 순간에 쌀쌀해졌다.

《그건 왜요? 전 동무를 찾아온것이 아니라 탄광으로 왔을뿐이에요.》

《?!》

뻥해진 성길을 보며 철남은 부지중 《비켜!》 하던 날카로운 음성을 생각했다.

인차가 굴러왔다. 철남은 올라앉았다. 옆에 성길의 자리를 내놓았다. 그런데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둘러보니 성길은 벌써 뒤자리에 처녀와 함께 앉아있었다.

철남은 한숨을 쉬고 편안히 자리를 잡았다. 앞자리에는 아버지와 군필아바이가 나란히 앉았다. (혼자 가야겠구나.)

까닭모를 서글픔을 느끼며 다리를 쭉 펴던 그는 옆에 누가 왔음을 느끼고 돌아보았다. 영순이였다.

《?!》

가슴이 후두둑 뛰었다.

(이제 확 지나가겠지. 다른 자리로... 갈거야.)

영순의 얼굴을 쳐다볼 힘이 없었다. 자그마한 신발만을 내려다보고있는데 신발은 꼼짝않고 그대로 신 약이 오른듯 한 음성이 울렸다.

《저쪽으로 좀 좁혀요. 혼자 앉겠어요?》

《응?》

철남은 화닥닥 한옆으로 물러앉았다. 영순은 옆자리에 앉았다. 더 쌀쌀해보이는 얼굴이다. 가슴이 와당탕와당탕한다. 왜 옆에 앉을가, 아까의 일로 면박을 주려는데 아닐가, 그랬다간 앞에 아버지랑 앉아있는데 큰일이다. 저도 모르게 눈길은 아버지의 구부정한 잔등으로 갔다.

아버지는 군필아바이에게 말하고있었다.

《안됐네. 녀석이 너무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오냐오냐 해주었더니...》

《아들이 팬찮아. 한몫 할것 같애.》

《뭘? 너무 우쭐렁거려.》

《그러면 뭐라나? 그 나이때야 그래야지. 그 나이에 벌써 머털 숙이고있으면 평감냄새가 나서 어데 쓰겠나? 벼이삭이 처음 나올 때부터 머털 숙이나? 처음은 뻗뻗이 쳐들지. ... 여름에야 벼이삭이 머털 들어야 제멋이지.》

새삼스럽게 보인다. 역시 부지배인 하던 사람이

다르다.

《일해보니 어떨나? 힘들지?》

《힘들구만. … 요즘은 길거리에서 탄 한덩어리라도 떨어져있는걸 보면 얼마나 아까운지. 구멍탄을 채 안 탄걸 버린것때문에 로친네와 싸움까지 했네. 요즘은 로친네도 탄이라는데 그대로 팍이라는걸 알게 되는것 같더구만.》

탄이 팍이다. 팍이 없이는 탄도 없다. 탄이 이처럼 번쩍거리는것은 탄부들의 팍에 젖어서가 아닐까. 묻혀있을 때에는 빛없던 탄이 탄부가 캐어놓으면 눈부시게 번쩍거리지 않는가. 탄은 탄부의 손을 거쳐야 번쩍인다!…

《부끄럽구만, 자넌 보기가.》

《그러지 말게. 나야 뭐라나. 자네의 잘못을 두고 제일 가슴아파하는것이 누구겠나? 당이 아니겠나.》

이때야 철남은 부지배인의 일을 두고 침중해있던 아버지가 리해되였다. 아, 아버지는 참으로 당원다왔다, 로당원다왔다, 나는 언제면 저렇게 될가. …

《맥을 놓지 말라구. 채탄장에 들어가 탄부들과 같이 일하며 잘못을 고치겠다고 한 자네의 결심을 듣고… 정말 고마웠네. 같이 일해보세. 다 잘될거네. 탄을 많이 캐서 당의 믿음에 보답하세나.》

그러니 채탄장에는 군필아바이스스로가 온것이였구나, 일의 힘에 대한 믿음은 아버지와 다름없는 아바이였구나, 그런걸 난 공연히…

《고마우이.》

두사람은 인생에 대한 제나름의 생각을 좇는듯 더 말이 없었다.

뒤에서 주고받는 말소리가 들린다.

《왜 날 찾지 않았소?》

《불쾌해서였어요. 동무는 전에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였어요. 탄광에 배치됐으니 스스로 결심하라고 했지요? 그런 편지에 무슨 회답을 하겠어요?》

그렇게 된것이였구나. 성길은 자기 스스로 불신을 만들어낸것이다. 누구를 탓할것도 없었다.

《전 동무를 만날 생각이 없었어요.》

철남은 옆으로 얼굴을 돌리다가 황급히 도로 앞으로 돌렸다. 영순에게서는 얼음장같은랭기만 풍겼다.

불빛속에 동발들이 얼른얼른 지나간다. 습기에 젖은 동발들에는 희끗희끗한 동발꽃이 피었다. …

문득 그는 무엇이 손에 와닿는것을 느꼈다. 내려다보았다. 책이였다. 《세계력사일화집》이였다. 그는 처음으로 눈을 들어 영순을 보았다. 영순은 얼굴을 옆으로 돌리고 동발들을 지켜보고있었다.

《보고싶으면 먼저 봐…요.》

소리로보다 입술의 움직임으로 철남은 그 말을 알아들었다. 가슴이 쿵 하고 거대한 함마에 맞은듯 진동한다.

《봐》가 아니라 《봐요》. 귀가 먹먹해진듯 하고 눈앞으로 별이 흘러갔다. 숨이 가빠졌다.

《동무가 먼저 보…오.》

말끝을 맺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말해놓고나니 천근짐이라도 부러놓은듯 숨이 후— 나갔다. 가슴은 더 세차게 뛰었다.

다음은 서로 외면한채 말없이 앉아있었다. 마주 보기도 말하기도 어색했다. 저도 모르게 인차의 바깥벽쪽으로들 몰려앉았다. 무릎이라도 서로 닿을가봐 겁이 났다. 처음으로 주고받은 반말아닌 두마디가 그들사이에 친밀심연을 파놓은듯 했다. 허나 이것은 심연이면서도 심연이 아니였다. 가장 아름답고 다정한 그리고 신비한 그 어떤 미지의것으로 한껏 충만되어있는 공간이였다.

책은 두사람의 무릎에 한쪽씩 없고 다리처럼 놓여있었다. 인차는 왜 이렇게 들추어떨가.

(책이 떨어지지 말아야겠는데…)

주위가 어수선했었다. 인차는 밖으로 나왔고 사람들이 내리고있었다.

《야, 별도 많네.》

영순의 나직한 부르짖음이다.

머리우에는 여무진 별하늘이 펼쳐졌다. 무수한 성좌와 성운들이 제나름대로 밤하늘을 흘러가고있었다. 하늘에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것인가. 저 별들에도 다 이름이 있다지, 나나 영순의 이름을 가진 별은 없을가. … 별 하나가 긴 활동을 그리며 날아간다. 저 별이 혹시 우리의 별 《광명성2호》가 아닐가. …

《허— 불도 많다!》

앞서서 탈의실로 내려가며 하는 아버지의 말에 철남은 하늘에서 눈길을 내렸다. 등성이아래 불빛들이 반짝이는 탄광마을, 그 뒤산너머로는 밤하늘을 서광처럼 물들이며 멀리에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다. 이밤따라 불빛은 더 찬란하게 안겨온다. 저 불은 바로 우리들이 천길땅속에서 캐낸 그 불이 아닌가.

(모두 내것이구나. 저것도 저것도… 그리고 저것도… 모두 나의것이구나!)

봉— 먼 기적소리가 울린다. 탄광마을변두리의 철길로 불빛을 인 기관차가 불화살처럼 달려간다.

그들의 팍과 눈물, 웃음과 고뇌가 실린 탄이 가득가득 실려가는것이다. 그것은 곧 불이다, 탄부들의 뉘이다!…

탄부들은 두런두런거리며 등성이를 내려가고있었다. …

단시초

포전과 나의 생각

소 경 찬

생활의 토양속에 널린 낱알 모두 주어
기름진 흰쌀밥을 어서나 지어보세

논둑과 논판

논둑은 밟을수록 낮아진다고
논판은 밟을수록 높아진다고

저 사람은, 이 사람은...

저 사람은 왜 추울가 비를 긋는 나무아래서
이 사람은 왜 더울가 처마없는 논판에서

모 춤 한 개

물에 뜬 모춤 한개 작다고 깔보지 마소
그 모춤도 꽃으면 가을에는 떡 한그릇

김

번번했던 발김 달포만에 한뼘이나 컸소
마음의 김도 자주 아니 매면 다들바 없지

실 적 평 가

웃으며 가꾼 밭은 하루계획 200프로
잡생각속에 가꾼 밭은 종일토록 50프로

실농군과 건달군

실농군은 사계절 흙을 주무르고
건달군은 사계절 시간을 주무른다

쌀독과 빈독

홀린 낱알도 다 모으면 쌀독우에 또 쌀독
거둔 낱알도 다 흘리면 빈독우에 또 빈독

명 화

하루새 그린 황금파도가 명화입니까
백날에 가꾼 황금들판이 명화입니까

돌피와 벼이삭

봄 여름 숨어살던 돌피 가을엔 머리숱구며
제 주인 찾소
봄 여름 키쑈구던 벼이삭 가을엔 머리숙여
제 주인 찾소

땅 과 열 매

그대가 오늘 땅이 준 열매를 먹으며 그 땅에
땀을 아끼면
그 땅은 래일 그대가 준 안일을 먹고 그대에
게 열매를 아낀다

《탄약수》 처녀

권 태 여

미끄러운 논둑길
꼭꼭 짚어 밟으며
모집을 지고 가던 처녀
허리굽혀 모춤 하나 집어드네

누가 흘렸담
탄알이라면, 탄알쌈지라면...
안타까운 생각에 젖어
흙털고 검불털어 품에 안는 처녀야

모춤 하나하나에
천으로 만으로 주렁질
그 이삭을 흘린것 같아
무겁게 똑길짚는 그 마음아

모 한포기
모춤 하나
원쑤치는 총알로 여기며
발걸음에 불을 달고 뛰어다닌다는 너

장군님께 기쁨드리자고
모바구니 가득가득 기계우에 실어주며
모집을 지고 뛰는
그 마음도 가룩한 처녀야

그 마음에 허실이 있으랴
그 모집에 난가리를 재워지고
오곡백과 주렁질 가을을 지고 나르는
농장의 《탄약수》 처녀야

사랑의 샘물 외 2편

비전향장기수 손 성 모

물
수도물소리가 들린다
물 한모금도
가물에 단비처럼 그립던 시절
물 한사발에
세면, 목욕 다 하던
감옥시절 어제련듯
삼삼한데

맑은 수도물 넘치는 우리 집에
옥류약수 강서약수
신덕샘물 또한 많은데
또 오누나
룡악산샘물이

이 샘물 마시면
평양의 명산 룡악산
그 기상 가슴에 샘솟고
이 샘물 마시면
애국의 피 가슴에 끓고
옛장수마냥 힘도 용솟네

한번 마시면
만병이 물러가는 옥류약수
또 한번 마시면
한여름도 물러가는 시원한 강서약수
마시면 마실수록 젊어지는
샘물도 많은 내 나라

그 옛날
산 좋고 물 맑은 금수강산
가는 곳 어디나 맑은 물 흐르는
자랑많은 우리 나라였건만
이 맑은 물 이 샘물 이 약수 즐긴이
몇몇이더나
흐린 물에 토질병 만연하여
비명에 떠난이 얼마더나

오늘은 이 나라 집집마다
맑은 수도물 넘쳐흐르고
샘물이며 약수까지 안겨지니
고마워라
인민위해 한평생 바치시는
우리 장군님
태양의 따뜻한 사랑이여
바다같은 은정이여

그 사랑 담아서
더더욱 맑고 달더라
그 은정 안아서
한모금 마시면 십년은 더 젊어지고
또 한모금 마시면 온 나라가 장수하니

인민위한 그 사랑 그 은정
어디나 넘쳐흐르는 이 나라는
장군님 가꾸어가시는
행복의 강산, 사랑의 나라여라
영원한 장수의 나라여라!

새벽운동길

이른새벽
어둠속 안개를 가르며
새벽운동길 걷노라니
락엽진 길가우에
고요를 흔드는
청아한 대동강의 물소리

가벼이 하느적이는
강변의 버드나무
그 잎새 이내 볼 어루쓸고
새들도 지저귀며 맞아주네
은빛배 드러내며 물고기도 반기네

저기 주체사상탑의 봉화
붉은 노을 동녘에 피어올리고
노을에 물든 강물은
환희로이 설레이는데
아 솟는다
드디어 붉은 태양이
장엄히 솟아오른다

오, 태양
우리의 붉은 태양
그 태양 그리워 수십년세월
감히운 남녘의 먹방에서
태양이 빛나는 평양으로 백두산으로
제자리달리기로 마중해가던
감방속 새벽운동길

그 운동길이 오늘은 이 길로 이어졌으니
하루에 열번 뜨면 열번을 달려오고
하루에 백번 뜨면 백번을 달려올
조국의 해맞이
내 인생의 해맞이

눈부신 그 해발
사랑의 그 해발로
새벽마다 이 마음을 씻고
경건히 아침인사 드리며
전사의 맹세를 새롭게 다지는
그 태양은 영원한 아버지 우리 수령님!
혁명의 천만리를 끝까지 따를 우리 장군님!

살 구 나 무

푸른 하늘아래
푸른 숲 펼쳐진 평양
어디서나 흔히 보는 살구나무
깊어가는 추억으로 나를 붙잡네

저 멀리 남녘의 하늘가
내 고향 작은 언덕
바위투성이 황토에
살구나무 한그루
외로이 서있었네

구부러진 허리
검누렇게 벗겨지고
열기설기 높지 않은 줄기
못아이를 시달림 그칠새 없었네
봄이면 연분홍아씨꽃
아지아지 피우고
남먼저 알알이 열매도 맺혔건만

돌을 던져 썰고 모질게 꺾고
짓이기며 기여올라
가지는 떨어지고 잎새는 찢어졌더라
미출한 그 모습 언제였던지
씨앗마저 묵직한 돌에 부서져...

진흙 게발린 너의 허리 어루쓸며
유정한 달빛아래 앉았노라면
스치는 바람결에 너의 한숨소리 들리고
부러진 가지마다 흘러는 눈물 반짝이더라
아, 나무여 살을 벗기고 살을 찢겨도
대지에 뿌리 박고 모질게 서있던 살구나무여

그래도 그래도

해마다 봄이 오면
나무는 살구나무는 또다시
어여쁜 꽃아씨 해빛을 반기고
한여름이면 람스러운 열매
아지마다 알알이 피빛으로 익히며

나에게 속삭이는듯
씨앗을 위해 사는 의미를
하나의 씨앗이라도 싹튼다면
무슨 여한이 있느냐고

아 내 고향의 살구나무
캄캄한 철창속
속절없이 세월 흐를 때
나를 깨우치던 나무여
불품없어 알아주는이 없어도
찢기고 부서져도
너처럼 기어이 뿌리리 혁명의 씨앗
광야에 뿌릴 마음 새겨보던 나무여

내 오늘 평양의 살구나무아래서
떨어진 씨앗 하나 손에 들고
떠나온 남녘의 그 나무 생각하네
통일을 위한
투쟁의 씨앗 싹트고 열매 맺으리라
광풍도 맞받아 거목으로 설레이리

통일의 그날 오면
기쁨의 눈물 행복의 눈물 흘리며
너를 부둥켜안고
투쟁의 삶을 노래하리라
아 내 고향의 살구나무여!

조선속담

조소, 경멸(멸시)

- 개도 싸다니면 몽둥이에 맞는다
- 노래기 회쳐먹겠다
- 시지도 않아서 군내부터 난다
- 장님이 장님을 인도한다
- 젊어서 소 타보지 않은 형감(이) 없다
- 돌미륵(돌부처)이 웃을노릇
- 부처님더러 생선 방어토막을 도적하여

- 먹었다 한다
- 술있이 버썩하니 가랑잎이 할 말 없다
- 까마귀가 아저씨하겠다
- 발가락 티눈만큼도 안 여긴다
- 어디 개가 짓느냐 한다
- 울바자가 혈면 이웃집 개가 드나든다
- 일가싸움은 개싸움



리 룡 운

1

책상을 마주하고 앉은 현옥은 손에 든 도마도알만 훑던 듯 들여다보고 있었다.

미소가 그의 입가에 잔뜩 걸려 있었다.

창문으로 날아든 나비 한마리가 머리를 성가시게 맴돈다. 허나 그는 도마도알만 주무를 뿐 나비를 쫓을념도, 펼쳐놓은 작업반일지를 정리할 생각도 하지 않았다.

빨강고 말랑말랑한 도마도알은 아까 남새분조에 나갔을 때 누군가가 올해 첫물이라면서 쥐여준 것이었다.

(도마도가 벌써 이렇게 익었던 말이지. 참, 세월 두...)

해마다 보아온 도마도이건만 이해따라 보는 감정이 류달랐다. 어느덧 열매가 익는 계절이 막두한 것이다.

문득 쿵쿵 발자국소리가 가까와오더니 진숙이가 문가에 나타났다.

《언니, 텔레비존촬영가들이 온다는게 진짜나?》

두눈이 억실억실하고 보기 좋게 굳어져진 그는 더없이 특유의 서슴을 줄 모르는 걸음걸이로 문턱을 넘어서면서 대뜸 새된 소리를 질렀다.

《어마, 이게 뭐야요?》

바람같이 달려들어 현옥의 손에서 도마도를 얹어든 그는 그것을 번쩍 쳐들며 야단을 쳤다.

《호호, 우습다. 꼭 반장언니같은게...》

방금 세면을 하고난 듯 감실감실한 그의 얼굴은 유난히도 싱싱해보였다. 연한 화장비누냄새가 풍겼다.

《요 눈 좀 봐. 꼭 누굴 비웃듯 하네.》

그제야 현옥은 눈을 들어 진숙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놀랐다. 나이와 체면에 어울리지 않게 도

마도에다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았던 것이다. 저도 모를 장난도 놀랍거니와 눈썹리가 살짝 처지고 입귀가 가웃 들린 그 모양은 어딘가 지금의 자기를 방불케 했다.

현옥의 얼굴이 서서히 달아오르다가 마침내 도마도알보다 더 새빨개졌다. 그런 그를 진숙이 가늘게 찡그린 눈으로 재미스럽게 바라보았다.

《말해보라요, 언니. 지금 무슨 생각을 하지요?》

《농사군이 농사지를 생각밖에 더 있겠니? 당장 풀베기철이 아니냐.》

《피— 내가 말해줄가.》

《까불지 말아. 가서 밥이나 먹자.》

《그래두 밥생각을 다 하네. 반장언니, 솔직히 말해보요. 낮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됐지요?》

《네가 뭘 안다구 그러니?》

현옥이 부러 억양에 모를 세워보았으나 그쯤한데 절끔할 진숙이 아니었다. 도소제지에 집을 두고 대학을 마친 현옥이 6작업반에서 기술원을 하다가 이곳 4작업반장으로 온지 두해째이다. 그사이 한 지붕아래서 한형제처럼 덩굴면서 정이 들대로 들어 그들사이에는 이미 못하는 소리가 없었다.

《으음— 그렇게 보지 말아요. 언니 반장노릇하기엔 너무 이뻐. 이제 두고보지?! 촬영가들이 왔다가 언니를 배우로 데려가지 않나.》

진숙은 두손을 맞잡고 호들갑을 떨었다.

《내가 사내라면 아마 언니한테 욕먹기 위해서라도 계속 못된짓만 할거야.》

그러거나말거나 주섬주섬 책상우를 치운 현옥은 서둘러 밖으로 나섰다. 캄캄한 어둠이 담벽같이 앞을 막았다. 그속으로 반디불이 별찌처럼 날아다녔다. 현옥의 겨드랑이를 바짝 다가긴 진숙이 씨엉씨엉 걸음을 옮겼다. 이런 활랑이가 사람의 마

음을 알아맞추기는 제 주머니속 들여다보듯 한다.
《낮에 있는 일》, 그것은 큰일이 아니었다.

점심참에 현옥은 분조장모임을 가졌다. 매일
부터 풀베기에 총동원되자면 필요한 조직사업을
미리 해둬야 했다.

《이번 풀베기에 력량을 총집중합시다. 분조
별로 물관리공들만 한명씩 떼놓으세요. 그리고 아
주머니들한테는 하루 시간을 주겠어요.》 분조
장들이 모두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놓치지 말
아야 할것은 자그마한 수첩에 꼭꼭 박아써넣었다.

회의가 끝날무렵 2분조장 송재호가 불쑥 일어섰
다. 잠시 머뭇거리듯 하던 재호는 뜻밖의 말을 꺼
내었다.

《저 반장동무, 활성균배양실꾸리기는 언제부터
합니까?》

뜨아한 눈길로 재호를 바라보던 현옥은 곧 그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이번에 작업반종자처리실결에 활성균배양실을
꾸려야 했다. 가을탈곡까지 끝내면 그 《생물활성
토양균》을 대대적으로 배양해내야 할텐데 미러부
터 손쓰지 않다간 늦을수도 있다. 그렇다고 풀베
기로력을 돌릴수도 없고...

참, 리보수반에서 하는 봉사망꾸리기가 이삼
일내에 끝난다고 했다. 이 문제는 자기네 반에만
국한된것도 아니니 관리위원회에 제기하면 될것이
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듯 중요한 일을 자기가 잠
시나마 놓쳤다는것과 그것을 저 송재호가 깨우쳐
주는것이다. 그런적이 이번이 처음도 아닌것이다.

《분조장동무, 제제도 다 생각이 있어요. 그
러니 이번 풀베기준비나 잘하세요.》

그 순간 자기의 말이 왜 그렇게 곱게 나가지
않았는지... 아마 그런 경우를 당하는 자신에 대한
일종의 불만과 질책때문이었으리라.

《이보라구 2분조장, 오지랖이 지내 넓으면 안
들을 말도 듣는거구 걸음을 지내 멀리 내걸다간
물참봉이 되기 십상이야.》 뒤에 앉았던 나이지숙
한 남새분조장이 시롱거렸다. 재호가 뒤를 돌아보
는데 남새분조장이 계속 시카스른다.

《혹시 임자 우야 물속에 뛰여든건 아니겠지?!》
의미있는 그 말에 좌중이 흐하 웃음판이 되었
다. 분조장회의때마다 유일한 총각인 재호를 둘러
싸고 드문히 이런 광경이 펼쳐지곤 했다.

그속에서도 재호는 제 할 말을 다한다.

《물참봉이 되지 않구서야 해염치는 재간이 있
나요? 그러구 또...》

이쯤되면 익살질은 저 송재호의 입에서 무슨 말
이 나올지 모른다. 그래서 현옥은 쏘아붙이듯 말
하였다.

《중학교앞의 강녕이발머리가 패인걸 봤어요?
학생들이 토끼우리보수에 쓸 토끼를 찍는다면서

좀 파갔다더군요.》

그 말에 재호는 머리를 돌리고 짹 벌어진 어깨
를 솟구었다.

《미처 몰랐소. 아침부터 논에 나가있다나니...
에참, 이 땅을 엇고다닐수도 없구...》

그러는 재호의 입에서 또 무슨 우스개소리라도
나올세라 현옥은 잘라매듯 말하였다.

《엇고있어야 해요, 애기처럼. 동무야... 분조장
이 아니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좀더 듣기 좋게 말하
지 못했는지 알수 없다. 혹시 이 땅에 대한 자기
의 정성을 특별히 시위하려고 그런것은 아니였던
지. 아니, 그보다는 언제 보나 너털거리며 종잡기
어려운 그 성미에 대한 은연중의 나무람이 아니였
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그때 목을 꺾고 어깨가 처지는 그를 보
며 한견으로 깨고소한 웃음을 머금었다.

사실 나는 그가 좀더 점잖기를 바라지 않았던
가, 헌데 별일 다 있지, 그게 나하구 무슨 상관이
라구, 아니?! 내가 무슨 생각을. 생각은 이렇게 이
어졌다.

중학교정문앞을 지나 강녕이발머리를 돌아서
는데 앞전에서 《철썽》하는 소리가 나고 뒤따라
시큼한 두엄내가 풍겼다. 어둠속에서 사람의 형체
가 언뜻했다.

《누구예요?》

응답이 없다. 대신 삽날을 땅에 박는 소리가 무
겁게 났다.

현옥은 그리로 다가갔다. 그리고 놀랐다. 흰
내의바람에 삽자루를 움켜쥐고 서있는 사람은 분
명 2분조장 송재호였다. 그러고보니 학생들이 파
낸 자리를 메꾸러 나온것이다. 그도 현옥을 알아
보고 흰 이를 드러내며 병긋 웃었다.

《늦었구만요.》

그 어조가 얼마나 명랑한지 저러다 또 실없는
롱담을 하면 어쩌나싶을 지경이었다.

《저녁전이겠는데 들어갑시다. 우리 어머니가
시원하게 콩국을 해놓았더군요.》

《팬찮아요. 함께 하자요.》

현옥은 진숙이 얻어들고온 새끼줄을 두세겹 꼬
아 삽모가지를 묶었다.

재호는 두번다시 권하지도 않았으며 부디 말리
지도 않았다. 세사람은 말없이 일손만 놀렸다. 하
지만 침묵에 단긴 입을 대신하여 손과 발, 온몸이
많은 이야기를 했다.

현옥은 낮에 자기가 한 말을 스치지 않고 이렇
게 밤깊어 혼자 나온 재호가 무척 고마웠다.

(두엄까지 퍼는군요. 수고했어요! 재호동무.)

일은 잠간사이에 끝났다.

그들은 만날 때처럼 혼연히 헤어졌다.

저녁상을 물린 현옥은 설것이를 끝내고 인차 자

리에 누웠다. 어쩐지 낮에 보고 방금 본 재호의 모습이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 우람한 몸집이 제 말 한마디에 달팽이처럼 가느다란 모양에 웃음집이 흔들거렸다. 소년다운 천진한 웃음이 얼굴에서 떠날줄 모르고 그 어떤 일을 하든간에 웃으면서 해제끼는 사람, 그리고는 그 어떤 평가도 바람이 없이 시침을 따고 아닌보살하는 사람...

《언니, 아직 안 자?》

밤이 얼마나 깊었는지... 진숙이가 살그머니 목을 그러안으며 따뜻한 입김을 귀전에 끼었다.

《자렴, 자라니까.》

현옥은 어둠속에 하얗게 드러난 팔을 뻗쳐 진숙을 꼭 그러안았다. 뭐라고 이름할수 없는 정이 가슴가득히 차오르면서 그의 온몸에 열렬한 애무를 쏟아붓고싶은 강렬한 욕망을 느끼었다.

현옥은 느닷없이 호— 하고 한숨을 지었다.

(내가 왜 점점 이렇가. 혹시 그럼 내가?!...)

눈을 감고 잠을 청하려 했지만 재호를 처음 만나던 그때 일이 화면처럼 눈앞에 떠올랐다.

런 이들을 쉬임없이 내리던 비가 끝내 일을 쳤다.

한밤중에 비속을 뚫고 안골막바지에 이르니 거기서는 벌써 많은 사람들이 드달리며 황토물이 넘실대는 수로뚝을 구원하기 위한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고있었다. 모두들 어떻게 알고 나왔는지.

《뚝아래 흙은 다치지 마시오.》

어둠속에 울리는 목소리가 고막을 두드렸다.

어둠을 찢는 전지불줄기들, 창대같은 비줄기, 사품쳐 끓는 황토물... 레년에 없던 비다.

현옥이도 손에 잡히는대로 흙마대를 지고 달렸다.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겼는지. 목에서는 쇠비린내가 나고 입으로는 단김이 쏟아졌다. 동쪽까지 그렇게 오가기를 몇번... 비에 젖어 흠어진 머리칼이 눈을 덮었다. 끝내 발이 미끄러지며 진창우에 넘어졌다.

등에 진 흙마대가 어깨를 무겁게 내려누른다. 일어나려고 모지름을 쓰는데 잔등의 흙마대와 함께 몸까지 건뚫 들리었다.

《조심하오.》

돌아보니 벼섬만 한 흙마대를 엮은 청년이 뒤에 서있다. 얼핏 스치는 전지불이 비에 젖어 일떠선 짧은 머리칼이며 남달리 둥그런 그의 얼굴을 비쳤다. 흙물에 젖은 흰 내의가 몸에 착 달라붙었다. 목소리는 아까 수로아래 흙을 파지 말라던 그 목소리이다. 처음 보는 얼굴이다. 누굴까?!

그런 속에 청년은 벌써 비 쏟아지는 어둠속으로 저만치 달려간다. 현옥이도 경황없이 따라 달렸다.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들끓었다.

그속에서도 그 청년의 모습은 실로 놀라왔다. 어깨에 지고 옆구리에 낀 흙마대, 미끄러운 동쪽

길을 뛰어다니는 자신만만한 걸음걸이, 현옥이 위험을 느끼고 달려간 곳에는 항상 그가 서있곤 하였다. 날이 푸름히 밝아서야 위험은 사라졌다.

사람들은 흙범벅이 된 물골을 서로 웃어주며 유유히 굽니는 물에 몸들을 씻었다. 이런 때는 처녀들조차도 부끄러움보다는 자기들의 위훈의 흔적을 뽐내고싶어하는것 같았다.

현옥은 옷을 대충 물에 행구어입고 삼이며 공구들을 씻기 시작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머리우에 울리는 말소리에 눈길을 들어보니 그 청년이었다. 밤에 본 그 청년.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제잡담 현옥의 곁에 놓인 삽 한가락을 쥐여 물에 담그었다.

《정말 밤새 고마웠어요. 저... 그런데 누구신지?...》

현옥은 비로소 청년에게 물었다.

《엇그제 제대되어 왔습니다. 송재호라고 합니다.》

《예— 그래요. 오셨다는 얘길 들었어요. 반가워요.》

《절 어떻게 아십니까?》

재호가 의아한 눈길로 물었으나 현옥은 대답대신 따뜻한 미소만 띄웠다. 재호도 더 묻지 않았다.

《참, 어디 다친덴 없습니까?》

《괜찮아요.》

이때 등뒤에서 범석하는 소리가 들렸다.

《저런 흥칙한 사람 봤나. 우리 처녀반장은 어떻게 알아보구 거기서 머물대나?》

깜짝 놀라 돌아보니 남새분조장이 이권으로 걸어오며 큰소리로 떠들었다. 그뒤에서 자기들에게로 향한 많은 눈동자를 본 두사람은 약속이나 한듯 일어섰다.

《뒤에서 보니 다정한 오람형제같은게 보기 좋구만.》

퍼렇게 질린 남새분조장의 얼굴엔 싱글벙글 웃음이 넘쳤다.

난처해진 현옥의 눈길이 허둥대는 서슬에 재호의 얼굴에도 계면쩍은 웃음이 피었다.

그때 현옥은 둘러선 사람들의 눈길에서 호기심과 놀라움, 알곳은 장난의 심리를 읽었다.

팬히 바빠난 현옥은 흙뻑 젖어 검고 윤기흐르는 머리칼을 떨치듯 뒤로 쓸어넘겼다.

재호도 씻어낸 공구를 건어취고 동뚝을 내려섰다. 과연 그 일이 어땠단 말인가.

그러나 사람들은 무엇으로든지 웃고싶어하는 것이다. 하여 처음에는 소곤소곤... 다음에는 웃으면서 큰소리로 주고받은 말이 발을 달고 날개가 돌쳐 자기의 본래모양과는 전혀 다른 색채를 띠고 온 마을을 해매고 돌아갔다.

제대군인 송재호가 오자마자 처녀반장 한현옥에게

받겠다고... 제멋대로 윤색된 이 소문이 본인들의 감정을 어떻게 해치겠는가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하지 않았다. 그저 후련히 웃어보면 그만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알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재호는 마을에서 드문히 만날적마다 어쭙은 낯빛으로 황황히 지나치곤 하였다.

그해 가을, 현옥이네 4작업반이 리안의 열다섯개 작업반중에 세번째 순위에 들었다. 관리위원회에서 종합발표한 수자였다.

《4반에서 대단한데, 처녀반장이 여간내기가 아니야.》

《이보라구 6반장, 임자 여의주를 내놓은 통신세가 됐지. 잡도릴 단단히 해야지 오는해엔 옛 부하한테서 바지벗기우겠네.》

이전에 현옥이 기술원으로 있던 6반이 지난해에도 1등을 했다.

좀더 애타게 노력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았으나 주위에서 들려오는 경탄에 찬 말들은 현옥에게 있어서 야릇한 기쁨마저 불러일으키었다. 그나저나 비료덕을 단단히 본셈이다. 창고에 있던 재고땅에다 추가배정받은 그 비료가 없었다면...

더구나 저 도제를 9정보와 같이 토질이 밍글은 땅에서 어떻게 이번과 같은 소출을 기대했으랴.

(거름생산과 함께 비료장만에 더 관심해야 하겠어.) 그날 밤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현옥은 이렇게 속구구를 하였다. 문득 저앞의 도제를 논머리에 산같이 가려놓은 벼단무지를 배경으로 빨간 불빛 하나가 점으로 깜빡이었다.

소슬한 밤바람에 알싸한 담배내가 풍겨왔다.

자박자박 다가가는 이쪽의 인기척에 벼단무지앞의 그림자가 엉거주춤 일어섰다.

《반장동무 아십니까?》

저편에서 날아오는 귀익은 목소리, 뜻밖에도 재호가 아닌가.

그때 그는 기계화반에 배치받아 숨쉴 틈이 없는 수리공으로 일하고있었다. 그런 그가 여긴 어떻게?!

몇달전의 장마철 그밤이 생각나 현옥의 신경이 자연히 팽팽해졌다. 그것이 마을에 떠돌던 그 실없는 소문때문인지도 모른다.

누가 말했든가, 남자들이란 눈은 코끝을 보면서 마음은 강남에 두고있다고. 더구나 폐년에 없는 수확을 거둔 만가을이 고보면 흑시?!...

《재호동무군요. 무슨 일로 아직까지 여기 계세요?》

현옥은 될수록 부드럽게 말하려고 애썼다.

그간 재호는 성실성과 높은 책임성에 못지 않게 덜렁거리며 지나치게 개방적인 성미로 사람들에게 알려져있었다. 그런 그이고보면 괜히 속이 후둑거리고 본능적인 긴장감이 살아올랐다.

혹은 이미전부터 자기를 기다려온것인지도 몰랐다.

《별구경 나왔습니다.》

의외에 재호의 말소리도 평온하였다. 그럴수

록 현옥의 신경줄이 더욱 행기어졌다. 저 평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재호자신이나 알노릇인것이다. 어둠이 그의 형체를 별로 거울쳐보이게 했다. 능청스러운 사람...

기계화반까지의 출퇴근길에 아침저녁으로 지나치는 이 벌을 두고 새삼스럽다 아니할수 없었다.

현옥은 싱글대는 재호의 둥그런 얼굴이 어둠속에서 보이는듯 했다. 그런데 뒤따라나온 재호의 말이 뜻밖이다.

《밤도 깊었는데 먼저 가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

정말로 별구경이나 나왔다는건가?! 이런 가을풍경감상이야 한낱이 제격이 아닌가. 현옥이 어쩔가 잠시 망설이는데 갑자기 생각난듯 재호가 한마디 했다.

《금년에... 반장동무 수고가... 컸더군요.》

아마 재호도 4반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들은 모양이다. 하긴 새땅찾기계획에 넣어 온 리가 달라 붙다싶이 몇년을 두고 얻어낸 이 도제들이 땅이 척박하다보니 이만한 성과를 거둔것도 크다 아니할수 없었다. 해마다 4반이 리적으로 시원치 못한 순위에서 머물거린것도 바로 이 도제를 9정보 때문이 아니었던가.

이상한것은 수고했다고 하는 재호의 말투이다. 사심없는 진정의 치사보다도 무언가 석연치 않은 의문을 품게 하는 말투였다. 그게 뭘가?

그 어떤 마음의 가책에서 시작된것이 아닐가?! 충분히 그럴수도 있다. 도제를 9정보땅이야말로 재호의 고향땅 한부분이 아닌가. 그러한 땅에서 도시내기의 한 처녀가 이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때 그로서도 자못 생각되는바가 있으리라. 손님덕에 입담게 먹은 사람의 심정 비슷하다 할가. ... 현옥은 마을로 향한 동쪽길을 혼자 걸으며 이렇게 제 나름으로 해석해보았다.

(재호동무, 자기만 이 땅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게 아니예요?)

아니나다를가 며칠 지나서 송재호가 너부죽한 얼굴에 별썩별썩 웃음을 담고 현옥의 앞에 나타났다. 이곳 농산4반에서 일하게 되었다는것이다. 얼마전에 새로 온 땅크병출신제대군인이 기계속엔 자기보다 더 멀쩡하다던지...

《날 꼭 2분조에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현옥은 이렇게 말하는 그가 이해되었고 또 고마웠다. 작업반의 격정거리인 도제를 9정보의 대부분이 2분조에 속해있었던것이다.

현옥이 후에 알아보니 기계화반에 새 제대군인이 온것은 사실이였다. 그렇다고 재호가 그앞에서 두손들고 나갔을만큼 기술이 낮은것도 아니였다.

《허, 구렁이굴속같은 그 사람 속을 알 재간이

있소. 뭐 자긴 꼭 농산반에 나가야겠노라구 떼질 하면서 관리위원회에 복나들듯 하더니만.》

혹시 그 엉큼한 사람이?!... 큰 키에 비해 버쩍 마른 체구를 가진 기계화반장이 의뭉스런 눈초리로 현옥의 얼굴을 넋지시 건너다보았다. 아마 온 마을에 자자했던 자기와 재호사이의 어이없는 풍설을 넘두에 두었으리라.

그때 현옥의 얼굴이 난로앞에 다가선듯 서서히 달아올랐다. 비로소 자기도 기계화반장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데 생각이 미쳤던것이다.

결국은 재호의 그 고집스러운 출현이 자신에 대한 일종의 《익측공격》이 아닌가.

그때부터 현옥은 일껏 마음을 도슬터먹고 있을 수 있는 재호의 《공격》에 대처하여 《방어진》을 구축하기 시작하였다. 시간이 흘렀으나 재호에게서는 그 어떤 《공격》의 기미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일에만 열중하였다. 오자마자 도제를 9정 보주변의 여러 곳에다 짬짬이 정방형의 큰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무슨 지렁이서식장을 꾸린다고 했다. 지렁이를 두고 《땅속의 보습》이라고 이른다지만 눈도 발도 없는 그것들이 어느 하가에 지력이 낮은 이 땅을 비옥화한다 말인가. 그럴새면 어디 가서 거름원천이라도 찾아내는것이 훨씬 현명하지 않을까?!

했으나 재호는 한본새로 여러 곳에 꾸준히 서식장을 꾸려놓고 첫눈이 내리기 전에 달구지로 온한해 쌓아두었던 자기 집 퇴적장을 바닥깊이까지 파내왔다. 분조원들도 그런 그를 도와 제 집의 거름이며 드물같은것을 아침저녁으로 날라냈다.

확실히 재호에게는 말없이 사람들을 당겨세우는 보이지 않는 견인력이 있었다. 현옥의 관찰에 의하면 그것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고집스러운 꾸준성에 지칠줄 모르는 정열, 누구나 웃고싶어지게 하는 룡담과 늘 얼굴에 넘실대는 웃음의 유기적결합이었다.

그앞에서 자기가 일껏 쌓은 《방어진》의 한귀퉁이가 스르르 무너지는듯 한 싱거운 생각도 들었다.

새해가 박두한 어느날 2분조장을 하던 진숙이 아버지가 현옥이와 마주앉았다. 한가마밥을 먹으면서도 작업반일을 내놓고는 별로 객적은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였다.

《...이젠 나이가 나이인지라 분조장일을 하자니 몸이 따라서질 않네. 이젠 분조고삐를 젊은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으면 하는데 반장생각은 어떤가.》

땅에 온 일생을 다바친 실농군의 로고가 얼굴 가득 깊은 주름발로 새겨진 그의 말을 들으며 현옥의 생각도 깊어지였다. 더구나 도제를 9정보같이 《말뼉많은》 땅과 씨름질하느라 수고 또한 얼마나 많으랴.

깊은 생각끝에 후보자로 누가 적합할것 같으냐고 물었더니 뜻밖에도 송재호를 첫손에 꼽는 것이다.

현옥은 머리를 가로저었다. 농사란 살아숨쉬는 생명체를 다루는 일이다. 이달에 미달한 계획을 다음달에 벌충할수 있는 공업생산과도 다르다. 하물며 갓 제대된데다 전문지식도 부족하고 경험마저 어린 재호임에랴...

그의 이러한 생각을 넘겨짚은 진숙이 아버지가 수더분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다.

《내게두 궁냥이 있다네. 모르는건 우리 늙은것들이 뒤에서 훈시하면 될게구. 문제야 일하자는 잡도리가 아니겠나. 자네처럼 젊은 사람들과 맘을 맞추자 해두 난 너무 낡았어.》

...재호 그 사람이 군대에서 중대부업책임자를 했다는데 땅다루는 품이 여간 아니더라니.》

결국 새해부터 2분조장사업을 정식 송재호가 맡게 되었다. 그때부터 처녀반장과 총각분조장이 마주서는 때가 더욱 잦았고 농사일을 두고 싱갱이도 빈번하였다. 나무를 맞비비면 열이 나고 돌이 부딪치면 불꽃이 생기는것은 당연한 리치이다.

어쨌든 재호는 고요하던 자기 가슴에 던져진 돌멩이같은 존재였다.

2

낮과 밤에 따른 제나름대로의 생리를 가지고있는것이 사람의 생활인가보다. 먼동이 흰히 트자마자 마당을 나서는 현옥의 머리속에는 이미 간밤의 잡념이 없었다. 그는 마을을 한바퀴 휘 돌았다. 늘 밝아보는 길이지만 그는 매양 새삼스러운 눈으로 모든것을 간간히 살펴보는것이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온 작업반이 풀베기에 총동원된다. 작업장에 이르니 거기에는 벌써 분조장들이 모두 모여 현옥을 기다리고있었다. 그들이 하는 얘기의 중심은 이번 기회에 마을의 면모를 일신시켜야 한다는것이였다.

누구는 며칠 품을 들어서라도 길을 끝추 뽑고 담장을 고쳐 쌓자고 했고 또 누구는 메기양식장 주변에 꽃이라도 떠다심자고 했다.

어제저녁부터 사람들 모인 곳 어디서나 듣게 되는 이야기였다. 순박하기 이를데 없는 이곳 사람들은 자기 집과 자기들이 사는 마을 그리고 자기들의 얼굴이 텔레비죤화면에 나오게 된다는 사실앞에 한껏 당황하고 한껏 감격하였으며 지어 몸시 흥분하였다. 사람들이 다 모여 간단히 작업조직을 끝낸 현옥은 앞장서서 산판으로 올랐다.

별판에서는 한여름의 무더위가 뽕박질을 하고있었으나 여기 제석산골안의 아침나절은 가을날처럼 서늘했다. 그 기운에 풀 한줌이라도 더 베려고 사람들은 부지런히 서둘렀다. 현옥이도 단참에 열

대여섯단의 풀단을 굴러놓았다.

가득, 개암, 속새... 한창 물오른 잡관목숲속에서는 이슬이 비오듯 쏟아졌다. 곳곳에 늘어놓은 거미줄에도 이슬방울이 맺혀 구슬꺾미처럼 무겁게 흔들거린다. 삼시에 온몸이 물에서 건져낸듯 흠뻑 젖었으나 로동의 희열에 들뜬 현옥은 걸탐스레 눈을 번쩍이며 더 좋은 풀을 찾아 이쪽저쪽으로 났을 휘돌았다.

늘씬한 키에 목이 쭉 빠지고 어깨가 실박한 그가 풀을 벤다는것은 마치 등배운동을 하는것처럼 보기 좋았다. 곳곳에서 풀단 굴러내리는 소리가 났다. 안개흐르는 골안으로 염소떼가 올라오고 그 뒤로 프락포르가 따라섰다.

프락포르에서 진숙이가 뛰어내리는것이 보였다.

진숙은 풀더미결에 서있는 재호한테로 다가가더니 무슨 종이쪽지 같은것을 넘겨주며 손을 흔들기도 하고 사방을 살피기도 했다.

거칠데없이 탁 터진 자연속에서 자란 탓인지 잠시도 한곳에 붙박혀있지 못하는 성미다. 오늘도 창고장과 함께 창고정리를 하라고 땔구어놓았는데 어떻게 수단을 피워 빠져나온 모양이다. 참, 저런 더퍼리가 이다음 시부모앞에서는 어떤 모양으로 압전을 뺄까. 생각만 해도 우스운 일이었다.

진숙이 프락포르결에서 히히 풀단을 올리던지며 뭐라고 소리치는데 재호가 거기에 수궁하듯 머리를 끄덕이며 이쪽으로 올라왔다. 그가 가지고 온것은 보수반장의 쪽지편지였다. 오늘부터 시작된 황성균배양실꾸리기에 인원이 모자라니 세명만 동원시켜달라는것이다. 이미 하던 봉사망꾸리기를 채 마무리짓지 못하고 배양실꾸리기를 긴급지령으로 받다나니 손이 모자란다는 푸념이다.

(감쪽한것, 제가 가져와도 될걸 우정 재호동무편에 보냈구나!)

현옥은 철부지라고만 생각했던 진숙의 엉뚱한 장난이 놀라웠다. 또 그것도 모르고 주는대로 덥석 받은 재호라는 사람이 세상 눈치무딘 우둔쟁이라고 생각되었다.

그래서 재호가 자발적으로 자기네 분조에서도 한명 내겠다는것을 단마디로 거절해버리었다.

《왜 그러오? 이런 부탁이야 아무래두...》

재호가 입가에 비죽이 웃음을 그렸다.

《부탁한다고 다 들어주겠나요? 동문 벌써 지난 겨울에 애타던걸 다 잊었어요?》

재호는 입을 꼭 다물고 현옥을 바라보았다.

현옥이 산아래로 내려가다 피땀 돌아보니 점도 록 섰던 재호가 싱긋 웃으며 고개를 돌리었다. 그리고는 현옥이 놓아둔 낫을 쥐고 세판게 풀을 베나갔다. 그 순간 현옥은 (또 속았네!) 하는 생각이 머리를 때렸다.

현옥은 자신에 대해 화가 불끈 치미는것을 가까스로 누르며 방금 떠나려는 프락포르에 뛰어올랐다.

울퉁불퉁한 비탈길은 쉬임없이 차체를 들볶아했으나 차안에서 현옥은 자기를 지켜보던 재호의 의미심장한 웃음을 생각하며 양양불락한 심정을 달래고있었다.

겨울기운도 한풀 꺾인 어느날 새해영농준비로 협의회를 할 때였다. 갓 분조장사업을 인계받은 재호는 아직 자기한테는 정확한 필지별 품종계획이 서있지 않노라고 꼭 짚어 말했다.

작업반기술원이 설명하고 다른 분조장들도 조언을 주었으나 그는 요지부동이었다.

《어찌자는거예요? 농사를 그만두자는건 아니겠지요?》

보다못해 현옥이 앞으로 나섰다.

재호는 넙적한 손바닥으로 땀발돋은 얼굴을 쓰윽 문다지며 매우 딱한 그러나 명백한 어조로 말했다.

《우리한테는 지금 정당 스무톤씩 널만 한 거름이 없습니다. 끼니번진 자식을 일터로 떠미는 부모야 없겠지요?》

《원, 당치 않게 끼니번지는건 뭐구 부모는 또 뭔가. 우린 지금 농사일을 의논한단 말일세. 이진 그냥 닭다리뻥대듯 우기기만 하니 젠장...》

맨앞에 앉았던 남새분조장이 회의가 길어지는데 화를 내면서 한마디하였다. 그바람에 장내에는 가벼운 웃음이 돌았다. 현옥이도 웃었다.

《어찌됐나요, 분조장사업이 첫해인데. 비료배정때 다시 고려해봅시다.》

현옥은 너그럽게 말했다.

이러나저러나 저 도제를 9정보가 문젠 문제다.

탈곡이 끝나는 차제로 시작된 물길공사에 술한 로력이 동원되다보니 겨울철거름생산이 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았다. 여차하면 지난해처럼 반에 있는 비료예비를 몽땅 도제를 9정보에 돌려야 했다.

일전에 만났던 계획부원도 새해비료공급량에 대해 락관하지 않았던가. 미련이란 이렇듯 검질긴것이다.

재호도 말하다싶이 굵은 땅에 대고 수확을 조를 수야 없지 않는가.

현옥의 말에 재호는 고개를 틀며 시선을 돌렸다. 그러다가 슬며시 눈길을 떨구며 입귀를 실룩이는 그의 표정은 뭔가 못마땅해하는듯 했다.

《화확비료만 믿고 농사를 짓는것은 술로 끼니를 에우는거나 같지요. 또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음식도 어머니젖만 하겠습니까?》

혼자소리하듯 하나 마디마디 의미가 명백한 그의 말은 현옥의 가슴을 면바로 찢었다. 결정적으로 땅의 지력을 높여야 한다는것이다.

현옥이 역시 거름이 충분하지 못한것때문에 늘 속을 앓고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로력이 어찌구저찌구 궁한 소리를 할수도 없는것이다.

그래서 쌀쌀하게 쏘아붙였다.
《방도를 내놓으세요. … 방도를 찾기란 비판보다 몇갑절 어렵답니다.》

말을 마치면서 현옥은 마지막말은 하지 말걸 그랬다고 후회하였다. 구차스런 자기변명처럼 느껴졌던것이다.

그때 재호네 분조는 거름생산으로 눈코뜰새 없었다.
《원 세상에 우수, 경칩이 랠모텐데 아직 품종 배치계획도 세우지 못했으니…》

《이러다가 금년농사는 썩놓은 죽일세.》
분조원들이 주고받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현옥의 가슴은 알찌근했다. 그를 분조장후보로 추천한 진숙 아버지의 소행이 너무 경솔하지 않았는가도 생각되었다.

《난 땅을 사랑하는 그 동무를 믿을뿐이에요.》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끝내 일을 치는것만 같다.
그날저녁 진숙이가 최근에 나온 농업기술잡지 한권을 갖다주었다. 집으로 오던 길에 만난 재호가 준것이라고 한다.

책갈피에 특별히 접어놓은 자리가 있어 펼치니 거기에는 《토양의 생물활성촉진방법》이라는 소론문이 실려있었다. 더우기 놀라운것은 논문의 필자가 다름아닌 모교의 토양학강좌장선생님인것이었다.

현옥은 모교를 찾아 수백리길을 다녀왔다. 이렇게 가져온 《생물활성촉가제》 군주는 실로 놀라운 효과를 나타냈다. 똑같은 량의 부식질거름에서 질소함유량을 몇배로 높였던것이다.

그것을 실어내는 날 현옥은 마지막차를 타고 별로 나갔다. 어쩐지 그곳에 있다는 재호를 만나고 싶었던것이다. 길로, 도랑으로, 논과 밭으로 눈석이물이 지절지절 흘러내리던 날이었다.

겨울을 난 메세들이 풀씨를 쪼아먹느라 뛰어다니는 봄언덕우에 재호는 그린듯 앉아있었다.

뜨락뜨락에서 내려 다가오는 현옥을 향해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름없이 웃었다.

까다롭고 복잡한 군배양을 하느라 며칠밤을 종자처리실결에서 팬 그 수척한 모습을 대하느라니 어쩐지 눈곱이 짜릿해왔다. 그래서 그의 곁에 다가서며 얼른 고개를 돌려버렸다.

《고맙습니다, 반장동무.》
《오히려 제가…》

현옥은 뒤말을 잊지 못했다.
내심으로는 이렇듯 크나큰 가능성을 찾도록 눈 띄워준 그에게 고맙다는 말을 수없이 하고픈데 말은 입안에서 굳어져버리었다. 해별이 가득찬 대지의 한끝을 바라보면서 두 청춘남녀는 풋봄의 훈향에 흠뻑 취해버렸다.

《반장동무, 내 한마디 하랍니까?》
꿈속에서처럼 하는 재호의 말에 현옥은 흘끔 곁

눈으로 그를 살폈다. 이 사람이 갑자기 무슨 말을 하려나. 하지만 그 시각 재호의 눈빛은 너무도 진지했다.

《이 땅을 두고 얘기처럼 여기라던 반장동무의 말이 참 마음에 들더군요.》
《?!》

《땅을 어머니라고 하면서 무턱대고 손만 내미는게 아니라 따뜻하고 친절하게 보살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현옥은 아무말없이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자기의 말에 대해 재호가 그토록 깊은 의의를 부여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었다.

그의 태도가 그날따라 유별나게 이상스러웠다.
《군사복무시절 우리 중대 동무들은 날 두고 박달체질이라고 다들 부러워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지만 어릴 때 나는 소화불량증에 걸려 한동안 고생했지요. 의사들은 식사조절과 약물치료의 배합을 어머니에게 권고했습니다.

그런데 절제없는게 아이들인지라 우리 어머니 내가 조르는대로 아니아니하면서도 다 들어주었습니다. 아마 어린자식 입술게 하는것이 애처로웠던게지요?! 하루는 유치원에서 돌아와 마당에서 구운 고구마를 정신없이 먹는데 아버지가 대문안에 들어서시는게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지 그때 날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이 심상치 않더군요.

그만 어망결에 먹던 고구마를 등뒤로 쑥 감춰버렸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내게 좋다는 약초를 캐러 갔다오는 길이었습시다. 어디서 다쳤는지 한쪽 손이 무섭게 다쳤는데 보기에다 험상궂었습니다.

아버지는 들어서시는길로 어머니를 호되게 다들렸습니다. 자식의 속에서 커가는 병집은 보지 않고 눈던 사랑에만 움해있다구요.

난 그때 어머니가 우는걸 처음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막 미웠습시다. 아버지가 날 고와하지 않는다고 여겼으니까요. …

참,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어이없는 생각입니까.》

재호는 잠시 말을 끊고 가늘게 뜯 눈으로 저 멀리 별판의 한끝을 바라보았다. 거기서는 연한 아지랑이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있었다.

《그 이후로 다시는 어머니에게 먹을걸 조르지 않았습시다. 어머니의 눈물을 또 보고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아버지가 달여준 약을 열성스레 먹었습니다.

…자라면서 언제 제 병이 나았는지는 몰랐습시다. 아버지의 그 웅심깊은 사랑에 고마움을 느낀것은 그로부터 썩 이후였습시다.》

재호는 더이상 말하지 않았다. 허나 현옥은 그 말의 의미를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것은 자기에 대한 힐난이기 전에 곡진한 충고였고 따뜻한 깨우침이었다.

진정한 주인의 자각을 불러일으키는 절절한 호소이기도 했다. 그들은 오래도록 말없이 그렇게 앉아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그날 그들이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였는지도 몰랐다.

그날의 그 언덕이 지금 저 차창밖으로 흘러가고 있다. 현옥은 자기도 모르게 뿌려놓은 무수한 추억의 씨앗들이 푸르싱싱 자라고있는 여기저기를 새삼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거기에 방금 헤어진 재호의 익살긋은 얼굴이 겹쳐졌다. 자기가 조금이라도 발을 헛디딜세라 그런 식으로 일깨워주는 그였다.

단지 안타까운것은 그런 재호에게 어쩔수없이 화를 내고 짜증을 부리게 되는 자신의 처사였다. 그리고나서는 곧 괜히 그랬노라고 허끝을 깨물게 되는것은 무엇때문인지...

그것은 같은 극끼리 마주선 두 자석의 밀기와도 같은 그런것은 아닌지. ...

3

마침내 그날은 왔다. 평양에서 텔레비존촬영가들이 내려온것이다. 깨끗이 정리된 마을을 빙 돌아본 촬영가들은 풀거름더미가 바라보이는 뽕밭을 배경으로 촬영기자리를 잡았다.

《기막힙니다, 농촌전경이 이쯤이야 돼야지요!》

구도경을 들여다본 연출가의 말이었다. 무엇이 기막힌지, 무엇이 농촌전경의 《본보기》로 되는지는 알수 없으나 아무튼 그들이 작은 산같은 풀거름무지를 중시하는것만은 틀림없었다.

그날 보수반장에게서 바늘귀로 황소몰아넣을 녀자라는 귀면 욕을 들으면서까지 로력을 한명도 호트리지 않고 풀베기를 다부지게 내민것은 참 잘한 일이었다.

영화라는건 하루일을 마친 농장원들이 일터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찍는것이었는데 사람들의 동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애를 먹었다. 그럴사하게 보아서인지 별로 환해진 농장원들은 잔뜩 굳어져 관청에 온 촌닭처럼 어릿어릿하기만 했다.

여느때는 씩씩거리며 사람들을 곧잘 웃기던 재호도 이런 때 보면 역시 《촌바위》였다.

《음- 재호오빠, 왜 자꾸 내뒤로 숨는거예요.》

그래도 젊고 미끈하게 생겼다고 맨앞에 내세운 재호가 자꾸 움츠러들자 진숙이가 통을 주는 소리였다. 그 바람에 꺾끗하던 대렬이 탁 흐트러지면서 웃음판이 터졌다. 그 서슬에 촬영기가 자르르- 하고 돌아갔다.

《좋습니다.》

촬영가는 만족하여 손을 번쩍 쳐들었다. 그때가 벌써 열흘전의 일이다.

요즘에 와서 현옥은 몸이 열개라도 손이 모자랐

다. 오금이 부서지게 뛰어나도 새 일감들이 기다렸다는듯 연줄 다가섰다. 얼마나 많은 일거리들이 이 기간에 겹쳐드는것인가.

가을걷이준비와 탈곡장수리, 강냉이창자보수와 가을남새씨뿌리기... 밤낮이 따로없이 때식도 잇고 그 많은 일감들과 씨름질하면서도 현옥은 하냥 즐거웠다. 어쨌든 이 모든것이 제 손이 가야 할 것이었다.

그중에서도 제일 기쁜것은 목마르게 기다리다 문득 도착한 추가비료였다. 밤따라 가려는데 장대나타난 격으로 때는 이삭비료철이었다.

비료를 보니 제일먼저 언뜻 생각나는데가 2분조의 도제를 9정보였다. 재호가 유기질비료에다 지력높이기에 좋은 여러가지 첨가제를 배합한 이삭비료를 이미전에 장만해두고있다는것은 현옥이도 알고있다. 하지만 어쨌든 그것만으로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6반에서는 올해에도 1등을 놓지 않는다고 불이 붙었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며 현옥의 가슴에도 그 어떤 야심같은것이 거불처럼 누긋이 타기 시작했다. 문제는 저 도제를 9정보였다.

그래서 받은 비료의 거의 전부를 재호네 분조로 돌렸다. 그속에는 온 한해를 땅에 붙어살다싶이 하는 재호에 대한 자신의 눈에 띄지 않는 《배려》도 있었다. 자기가 언제부터 그에 대해 이렇게 원심을 쓰게 되였는지.

아니, 현옥은 그것이 한 인간에 대한 관심이기 전에 그뒤에 있는 땅에 대한 사랑이라고 굳이 믿고싶었다. 하물며 한해의 복잡한 그 모든 영농공정이 더 많은 알곡생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현옥은 도착한 비료를 그 자리에서 체장 2분조로 떠나보냈다. 그러면서 비료를 싣고가는 통계원에게 해당한 시비절차까지 루루이 일러보냈다.

그런 다음 자기는 그길로 거의 완성단계에 이른 《활성균배양실》로 나갔다.

오후에 모자라는 기와때문에 관리위원회로 가던 길에 진숙이 아버지를 만났다. 재호에게 분조장사업을 인계한 뒤로 분조의 고문격으로 있으면서 중요하게는 비료시비를 맡고있는 그다.

《아침에 보내준 비료를 받았나요?》

《받기는 받았네만...》

전이 약간 우그러든 농립모밀의 진숙이 아버지의 낫빛은 그닥 맑지 않았다. 차례진 비료를 두고 누구보다 기뻐해야 할 그가 아닌가.

《무슨 일이에요요?》

《좀전에 작업반으로 다시 실어보냈다네.》

《?!》

진숙이 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적여 담배갑을 꺼내들었다. 걷어올린 바지가랭이밑으로 까맣게 탄 정쟁이가 보였다.

《분조장의 말이 갓 피어나기 시작한 땅에 또

비료질을 하려다구 날 나무람하네. 그런 식으로나 일해서야 땅이 뭐가 되겠느냐구. 장만해둔 유기질 비료면 모든게 넉넉하니 보내준 비료를 돌려보내자고 하더군.》

진숙이 아버지의 눈길은 현옥의 어깨너머 어디엔가 가있었다.

《처음엔 나두 뒤두어서 나뻐게 있냐구 섭섭한 소릴 했네. 헌데 듣고보면 재호 그 사람 말이 옳거던. 떡맛 든 놈이 손에 든 떡 먹지 않을수 있겠나? 더우기는 매년 소다리보다 금년 새다리가 낫기루 생각해선 농사군노릇을 못한다는 말에 할 말이 있어야지.》

뜨직뜨직 하는 진숙이 아버지의 말이 멀리서처럼 아슴푸레하게 들려왔다. 동시에 안개에 가리운 듯 뻗어있던 그 무엇인가가 자기의 실체를 확연하게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해 가을의 어느날 밤 이 도제를 두렁가에 늦도록 앉아있던 재호의 모습이였다. 과연 무엇때문에 그가 여기 앉아있었으며 여기서 무슨 생각을 했으리라는것이 명백해졌다. 그리고는 여기서 일하게 됐노라고 너스레를 피우고...

현옥의 온몸이 이를 못할 모순된 감정속에서 활발 타는듯 했다. 아무리 그렇기로서 보내준 비료마저 어찌면, 무시당한 자존심이 일종의 배신감으로 환원되어 전신을 엄습해왔다. 경황없이 작업반 쪽으로 올라가던 현옥은 걸음을 되짚어 다시 관리 위원회로 향했다. 이왕 올려보낸 비료는 창고에 입고됐을것이고 당장은 모자라는 기와부러 해결해야 했다.

이삼일어간에 비가 예견된다고 했다.

관리위원회에서 돌아오던 현옥은 동쪽엿의 도랑에서 풀을 베고있는 2분조원들을 만났다. 땅거미가 그물그물 내려앉는 저녁이였다. 이삭이 뽕뽕뽕 패기 시작한 논두렁너머로 두런두런 말소리가 나길래 바라보니 그들이였다.

그들도 현옥을 알아보고 어딜 갔다오느냐고 한마디씩 한다. 아까 만났던 진숙이 아버지도 그속에 있었다.

《에에, 젊은 시아버지 섬기기가 벅차구만.》

《분조장이라는게 그저 앞으로밖에 모르는 <판료주의자> 라니까.》

두렁길을 따라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는 현옥을 바라보며 저마다 한마디씩 하는 말이다.

그 말들에는 자기들이 하는 일에 대한 긍지와 자랑이 해학적형태로 숨배여있어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다 웃고싶어지게 하였다.

《그러게 매년엔 다른 분조로 가라구.》

진숙이 아버지의 통명스런 말에 이권 사람도 지지 않는다.

《갈려구 생각했었는데 임자 잘사는 꼴 보기 싫

어 그만두려네. 이제 와서 논밭 실컷 살지워놓고 내가 왜 가.》

재호가 그만하자고 소리치자 사람들은 저마다 베놓은 풀단을 들고지고 길가로 나섰다. 풀단을 가득 실은 달구지가 떠나는데 꼭 산더미가 움직이는듯싶다. 이윽고 저앞에서 처녀들의 랑랑한 목소리가 들린다.

《빨리 가자요. 오늘 저녁 텔레비죤에서 전번에 찍어간 우리 마을이 나온대요—》

그 소리는 물안개 피는 저녁별관에 방울소리마냥 명랑하고 또렷이 울리면서 생에 대한 희열과 끝없는 의욕을 갖게 했다.

길은 멀리서 깜박이는 마을의 불빛을 향해 곧추 뻗어있었다. 그 길을 따라 현옥은 재호와 나란히 걸었다. 낮에 체험한 재호에 대한 야속한 감정을 부디 되살리고싶지 않았다. 그러기엔 너무도 좋은 저녁이였다. 또 그가 원칙적으로 옳다는것은 자기도 알고있는것이다.

재호는 쫘쫘 묶은 큼직한 풀단을 골박아지고 걸었다. 괜히 말라드는 입술을 감빔던 현옥의 입에서 왕청같은 말이 나왔다.

《힘들지요?》

아마 이 말로써 재호에 대한 자신의 관심을 보여주려 함은 아니었던지.

재호는 묵묵히 걷기만 했다. 한참 지나서야 《하고싶어 하는 일은 몸에 좋다더군요.》 하며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기와를 받았는가고 물었다.

《래일중으로 해결해주겠대요. 잘 지으라더군요. 무슨 참관소리도 하던데...》 대수롭지 않은 듯 심드렁히 말했으나 현옥은 내심 그 참관이 싫지는 않았다. 그런중에도 불시에 이 한해사이에 몹시 꺼칠해지고 별에 그들은 재호에 대한 편민의 마음이 솟구쳤다.

그래 잠시 망설이다가 《저... 무리하지 마세요. 분조장은 책임진 사람이니 그렇다치구 분조원들이 견디겠어요?》 하고 말해주었다.

그래도 아무 웅대없이 수직수직 걷는 재호다.

참으로 멧적은 밤산보다. 무슨 사람이 이런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점점 이상해진다니까. 혼자서 홀 달아나고싶은것을 차마 그러지 못하고 함께 걸자니 은근히 약이 올랐다. 마을앞 갈림길에 이르러서야 재호는 멈춰섰다.

《반장동무, 내 꼭 말할게 있소.》 하고 말을 떼는 그는 뒤에 풀짐을 올려놓아서인지 마주보기가 별로 숨가뻘다.

《다름이 아니구 난 반장동무가 이 땅에 대한 견해를 좀더 명백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에?)

무엇인가 가슴속에서 꿈틀 돌아눕는 순간 현옥은 현훈증 같은 어지러움을 느꼈다. 놀라왔다. 그

말자체가 놀라운것이 아니라 너무도 뜻밖의 말이어서 놀라왔다.

《한알의 낱알이라도 더 내서 강성대국건설에 이바지하려는 반장동무의 심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다만 자식의 한생에서 부모가 절반이라고, 이 땅에서 우리 당대만 사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우는 강성대국이 영원토록 서있을 땅이거던요.》

재호는 잠시 현옥의 대답을 기다리듯 서있다가 《잘 가시오.》 하더니 어둡숙으로 성큼성큼 멀어져갔다.

현옥은 급기야 온몸의 힘이 싹 빠져나가는듯 다리가 매시시해왔다. 그러나 주저앉지는 않았다. 오히려 고개를 높이 쳐들고 보폭을 넓게 내짚었다. 그에게 있어서 송재호의 말, 그 자체는 별로 중시할것이 못되었다. 닥친 일에 다쫓기여 풀베기를 룡두사미격으로 만든데다 낱알의 가을에만 몰두하여 추가된 비료시비량을 내려먹이려 하였으니 재호로서는 충분히 그런 말을 할만도 했다. 중요한것은 것처럼 가혹한 말을 서슴없이 뱉어내치는 사람에게 자기는 그 어떤 따뜻한 미련을 가지고 대해왔다는것이다.

그가 자기를 타매하는 모난 말들을 준비할적에 자신은 어리석게도 정서적인 감정속에서 헤매인것이다.

(바보, 너는 바보다.)

현옥은 이때처럼 자신이 혐오스러워보기는 처음이었다. 또 그 가차없는 비난에 한마디말도 못한 자신이 미워났다. 이제 가을까지는 얼마 안 남았다. 아니, 그때 가서도 나는 아무말도 안할것이다. 생활은 논리가 아니라 논리의 응용이라는것을 모르는 그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할수 있단 말인가.

(독선주의자, 동무는 자기만이 이 땅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요.

재호동무, 언젠가 동무가 하던 말이 생각나요.

군사복무의 그 나날 어려운 고난을 웃으며 꺾듯이 이겨나가는 인민들을 보며 너무도 마음이 아팠다고,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 그 땅을 기름지게 가꾸리라 맹세했노라고.

나는 그 말을 믿었고 지금도 믿어요. 동무는 장차 실농군이 될거예요. 다음해부터 일하면서 농업대학도 다니겠다니 수준도 오를거구요. 하지만 동무의 그렇게 뻥뻥한 심장에 어느 처녀가 자기의 뜨거운 사랑을 바치겠나요.

재호동무, 부디 행복하세요.)

4

감성과 리성은 하나의 사고테두리안에서도 물과 기름같은 존재였다. 발길은 이미 돌아섰으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기운차게 달리는 트랙토르에 앉은 현옥의 생각은 지금 온통 앞서가는 차에 있

는 송재호에게 가있었다.

가을, 또다시 가을이다. 풍요한 전야를 바라보며 지나온 한해를 새삼스레 돌이켜보았다.

이 한해 저 송재호와 자기는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다툼질을 해야 했던가.

씨뿌리기현장에서, 모내던 들판에서, 때로는 한뼘의 땅을 놓고... 그 다툼은 앞으로도 또 있을것이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그런 다툼위에는 반드시 둘의 사이가 퍼그나 가까워진듯 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것이다.

마치 소나기가 내린 뒤의 먼산이 투명한 대기속에 가까이 바라보일 때처럼... 아마도 그것은 귀여운 아기를 요람에서 흔들며 잠재울것인가, 아니면 따뜻한 아래목에서 다독이며 잠재울것인가를 신경이하는 젊은 부모의 사랑싸움비슷한것인지도 모른다. 그 아기야말로 다름아닌 이 땅이 아니겠는가. 그 과정에 현옥은 지금껏 가슴속 깊은 곳에 잠자고있던 알지 못할 잠재의식이 바시시 깨어나는듯함을 느꼈다.

허나 재호는 달랐다. 그는 언제 그랬느냐싶게 흥얼거리며 하찮은, 그렇다, 전혀 하찮은것에 관심하면서 현옥의 감정쯤은 아랑곳도 않는것이다. 그것이 언제나 현옥의 부아를 돋구어놓았다. 그래서 그의 앞에서는 더욱 독을 피우고 나가는 말도 끊지 않았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재호가 옳다는것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자신으로서도 해결하기 어려운 모순이었다. 현옥은 오늘 군에서 조직한 경험발표회에서 토론을 해야 한다.

그러나 재호는 이 두대의 트랙토르를 끌고 군에서 20여리 남짓한 광천제염소까지 갔다와야 한다. 그곳에서 지난해 겨울부터 모아놓은 까리흙을 실어와야 하는것이다. 소금을 내고난 뒤에 염전바닥을 긁어낸 이 까리흙이 지력을 높이는데는 《천연보약》이었다. 그는 아침에 이 일이 제기되자 성큼 일어나 출선 말아나섰다. 보나마나 실어다 절반은 자기네 분조창고에 《슬쩍》 할것이다. 필요한 욕심을 채기는데서는 가을청서 한가지였다.

《자식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앞질러 알아주는게 부모들의 심정이라더군요.》

재호의 말이 옳은것 같다.

부지깽이도 곤두선다는 가을걷이를 앞두고 현옥은 이틀간 시간을 내어 도소재지에 있는 집에 다녀왔다. 말이 이틀이지 집에 앉아본것은 불과 떠나기 전 서너시간이었다. 떠나기 전에 재호가 부탁한 문제로 이태만에 만난 어머니와 변변히 얘기도 나누지 못했다.

재호의 부탁이란 다툼이 아니라 도에 있는 농업과 학원분원에서 일하는 자기의 친구를 만나는것이였다.

《꼭 들러보십시오. 희한한 보물을 줄겁니다.》

현옥은 길으로는 재호의 부탁에 대수롭지 않은

척 했으나 속으로는 호기심이 바짝 동했다. 그 분
원에서는 개량한 다수확품종을 비롯하여 농사에
필요한 별 희한한게 다 나온다.

했으나 여러번의 걸음끝에 그 《친구》라는 사
람에게서 받은것은 겁석하고 자그마한 지함 하나
였다. 뚜껑을 열어보니 논판이나 물웅덩이에서 흔
히 볼수 있는 골뱅이였다. 그 친구라는 연구사의
말이 논벼천적잡이용우렁이라고 한다.

어쩐지 미심쩍어하는 현옥을 보며 그 연구사가
말했다.

《재호 그 친구 언제부터 보내달라구 독촉이 불
같았지요. 그렇다구 그 실용가치가 확실치 않은걸
보낼수가 있어야지요. 금년 한해 여러 지방에서
시험했는데 팬찮다고 인정되었으니 마음놓고 보냅
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하는 말이 이 우렁이의 배설물
이 그 어느 비료에도 못지 않다는것이였다.

그때 현옥은 무엇보다도 땅을 먼저 생각하는 재
호의 그 진정에 마음이 후더워졌다. 그러면서 언
제보나 웃기 잘하는 그의 너부죽한 얼굴이 떠올랐
다. 집떠나기 전에 겨우 몇시간을 영치불인 딸에
게 이것저것 두서없이 얘기하던 어머니는 갑자기
웃방으로 올라가 옷장문을 열어제켰다.

거기서는 크고작은 트렁크며 갖가지 색깔의 사
계절옷들이 쏟아져나왔다. 어느 한 트렁크에는 순
남자용옷들과 기호품들이 짝 찼다.

의아해하는 딸에게 어머니는 칭원하듯 말했다.

《처녀가 네 나이쯤이면 제 등지 틀 생각도 해
야 한다. 녀자한텐 일이 전부가 아니야.》

어이없는 표정을 짓던 현옥은 문득 이상한 생각
이 들었다. 이 술한걸 어머니가 언제?!...

더구나 놀라운것은 어머니의 말이였다. 바로 이
모든것이 자기가 중학교를 졸업해서부터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둔것이라지 않는가.

한편으로 망칙한 생각도 들었으나 자식의 장래
를 두고 것처럼 마음을 기울이는 어머니의 극성에는
감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자식가진 부모들의 그 애틋한 심정을 저 덜렁바
우 같은 사람이 어떻게 알가. 지금도 뒤창에 비치
는 그의 모습을 보니 운전수와 무슨 말을 주고받
는지 떡판같은 잔등을 들썩이며 웃어제킨다.

재호와 자기는 목적에 따라 옷차림도 판이했다.

현옥이 하르르한 미색의 제긴형양복을 입고 밤
알처럼 반들거리는 구두를 신었다면 재호는 재빛
나는 작업복에 물날은 로동화를 신었다.

어느 누가 한해농사를 총화짓기도 전에 이런 모
임을 조직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현옥은 이때문에
오늘의 걸음이 즐겁지 않았다. 일전에 완공된 활
성균배양실을 보러왔던 군농촌경영위원회 위원
장이 작업반뜰거름더미며 농사작황을 돌아보며 만
족해하였다.

《처녀반장이 손이 걸구만!》

그때 현옥은 낮이 뜨거웠다. 썩으면서 푹푹 꺼
져앉는 거름더미의 키를 계속 자래운것은 자
기가 아니라 송재호네 2분조원들이였다. 오늘
또 술한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선망의 눈길을 받
을걸 생각하니 그때처럼 난감해지는 심정을 금
할수 없었다.

프락포르가 벗어나는 바람에 현옥은 생각에서 깨
여났다. 어느덧 경영위원회쪽으로 들어가는 네거리
어구에 그들은 서있었다. 현옥은 차에서 내렸다.

먼저 내린 재호가 다가왔다. 그는 차체에 비스
듬히 기대서며 담배를 붙여물었다. 그리고는 쪼프
린 눈으로 현옥을 바라보며 소리없이 웃었다.

자연을 즐기듯 담배연기를 슬금슬금 날리는 그
의 입가에는 하냥 만족스러운 웃음이 넘실거렸다.

《웃이 참 보기 좋군요. 사람이 다 달라졌습니
다.》

재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행동거지는 레사로왔
다. 혹시 이 사람이 여기를 분조포전의 논머리로
착각하는게 아닐가싶을 정도로 천연스러웠다.

그런 그를 보며 현옥은 더구나 어서 떠나야겠
다 고 생각했다. 잠시 잊었던 죄스러운 감정이 다시
금 머리를 들었던것이다. 이런 자랑스러운 걸음에
는 송재호나 그의 분조원들이 어울린다고 그는 진
심으로 생각했던것이다.

《동문 참, 여기가 어디 작업반실 앞마당인가
하나보죠?》

현옥이 눈을 활기자 그는 손을 내저었다.

《아니, 정말이요. 색깔도 그렇구... 그런데 앞
이 좁... 여기 말이요.》

손으로 옷깃모양을 그려보이며 고개를 기웃거리
더니 이윽고 차림새의 빈구석을 지적했다. 제껴진
앞가슴이 너무 허전하다는것이였다.

재호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났는지 사방을 두리
번거리였다. 마침 공업품상점앞이였다.

재호는 다짜고짜 현옥을 이끌고 상점으로 들어
갔다. 끈장 섬유잡화매대로 다가간 그는 판매원에
게 좋은 목수건이 있는가고 물었다.

판매원이 그들에게 연보라빛의 하르르한 목수건
을 내놓았다.

《들러보오!》

명령조였다.

(어마나, 이 동무가?!)

현옥은 얼굴을 빨갛게 물들이며 잠시 주저하듯
망설이다가 그것을 집어 목에다 매었다. 그가 거
울앞에서 물러났을 때 재호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
를 끄덕이였다.

《종구만, 정말 멋있소.》

봄비는 속에서 그들에게 관심하는 사람은 하나
도 없었다.

급살하게 생긴 판매원만이 재미있다는듯 생글생

글 웃을뿐이었다. 현옥은 재호의 그 진정에 감동되었다.

(웁아요. 재호동무, 동무가 웁았어요. 제가 그 사이 그만...)

현옥은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는것이 놀라왔고 또 이 순간이 그지없이 행복하였다. 재호가 고마웠다. 그의 진정이 고마웠다. 이런 진정은 이 땅에서 나서자라 이 땅을 지키고 가꾸어온, 그래서 이 땅을 닦아버린 그런 사람이 아니고서는 누구한테서도 바랄수 없는것이였다. 이런 사람은 변하는 법이 없다. 땅이 자기의 속성을 변하지 않듯이.

회의장은 초만원을 이루었다. 연단에 올라선 현옥의 눈앞에는 드넓은 벌판이 보일뿐이었다. 거기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농장원들이 가을걷이준비를 서두르며 땀을 흘리고있을것이다. 낱알향기, 들국화향기, 물웅덩이에서 풍기는 비릿한 감탕내가 섞인 들바람을 어서 맞고싶었다. 하여 그는 해질녘 나그네마냥 서두르면서 가장 요긴하다고 생각되는것만을 추려서 짤막하게 이야기했다. 그것은 도제를 9정보의 땅과 그것을 가꾸는 사람들, 제 욕심으로 그 땅에 비료시비를 내려먹이던 때의 이야기였다. 토론을 끝내고 장내를 둘러보면서 그는 원고에는 없었으나 가장 하고싶었던 말을 녀성다운 담담한 어조로 엮어나갔다.

《여러분, 땅을 사랑한다고 하여 저처럼 되지 마십시오. 이 땅에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이 있고 또 보다 행복할 래일이 있습니다. 저의 체험에 의하면 땅은... 미래를 위해 가꾸어야 했습니다.》

요란한 박수갈채가 일었다. 현옥은 약간 상기된 얼굴로 이쪽저쪽에 대고 사의를 표하고나서 다소 곳하고 연단을 내렸다.

박수갈채에 이어 찾아든 긴 침묵속에서 사람들은 자리를 찾아가는 그 녀자의 조심스런 발자욱소리를 귀기울여 들었다. 회의는 《생물활성첨가제》생산의 공업화문제와 겨울철에 자급비료생산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운 다음 끝났다.

현옥에게는 가져온 우렁이를 겨울어간에 잘 관리할데 대한 특별과업이 따로 떨어졌다. 래년부터

더 많이 증식시켜 온군의 논벌에 놓아주자는것이였다. 황혼의 저녁무렵이였다.

현옥은 뺨스에서 내려 마을로 걸어들어오고있었다. 서편하늘에 마지막노을빛이 스러지는데 제석산정수리의 동천가가 희분해왔다.

미구에 달이 뜨려는것이다. 우수수 불어오는 가을바람에 잘 익은 나락이 금과만경을 이루면서 안길듯 달려온다. 현옥은 그러한 벼바다속으로 들새마냥 옷자락을 날리며 걷고 또 걸었다.

어리광치듯 허벅다리에 휘감기는 벼이삭의 무게도 즐거웠지만 부딪치며 짜랑짜랑 울리는 벼알의 탄주는 그대로 노력의 보람을 노래하는 찬가였다.

여기는 2분조구역이다. 《생물활성첨가제》가 은을 내어 다른데 못지 않게 작황이 좋다. 진심을 바치면 보답을 하는것이 땅이다. 그래서 래년에도 래후년에도 우리는 친부모된 심정으로 너를 가꾸리라!

문득 삼으로 뭉쳐 끓여놓은 논두렁이 나졌다. 아마 벼가을을 앞두고 물을 뽑으려고 그랬을것이니 그런 자리는 곳곳에 있었다.

도제를 논두렁에 올라서던 현옥은 흠칫하고 굳어졌다. 누군가가 논머리에 네활개를 쭉 펴고 번듯이 누워있었다. 머리에는 삽자루를 베었다.

다가가 봤다. 송재호였다.

헤쳐진 앞자락의 드러난 가슴팍우에 휘늘어진 벼이삭 하나가 어리광치듯 불을 비비고있었다.

쿵, 쿵 심장의 박동소리마저 들리는듯싶다.

저고리를 벗어 덮어주려던 현옥은 가까이 손에 잡히는대로 벼이삭을 휘여 그의 이마우에 얹어놓았다.

그 순간 재호는 눈을 떴다. 그리고는 곧 다시 잠아버렸다. 뜨거운 사랑이 격류로 고삐치는 가슴으로 이 땅의 숨결을 듣고있는지도 모른다.

현옥은 그의 머리맡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밤새, 아니 온 일생이라도 이렇게 앉아 뒤척이는 대지의 숨결을 그와 함께 듣고싶었다.

손바투 놓인 재호의 머리칼에서 밤이슬이 돌돌 굴러내렸다. 방금 떠오르는 달빛에 이슬방울은 별처럼 반짝이였다.

상 식

잠잘 때 주의해야 할 10가지 사항

- ① 반듯이 누워 자지 말아야 한다.
- ② 잠자리에 누워서 여러가지 잡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 ③ 잠자기 전에 성을 내지 말아야 한다.
- ④ 잠자기 전에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
- ⑤ 잠자리에 누워서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 ⑥ 전등을 마주 향해 잠을 청하지 말아야 한다.
- ⑦ 머리를 뜨거운 곳에 놓고 자지 말아야 한다.
- ⑧ 입을 벌리고 자지 말아야 한다.
- ⑨ 얼굴을 덮고 자지 말아야 한다.
- ⑩ 바람을 맞으면서 자지 말아야 한다.

열매는 어떻게 무르익는가

김 철 순

트락토르설계연구소 설계가 남정필은 퇴근시간이 지나는데도 모르고 설계도판을 마주하고있다가 문득 팔목을 들어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팔과 한 약속이 생각키웠던것이다.

그의 딸 남순심도 트락토르공장의 어느 한 기술 준비부서에서 설계원으로 일하고있었다.

오늘 아침에 옷방에서 출근준비를 서두르던 정필은 간밤에 다 읽은 소설책을 아래방 경대앞에 마주앉아있는 딸에게 내려다주며 말했다.

《열매전에 나온 소설인데 정말 괜찮더라. 너도 한번 읽어보렴.》

《아버지두 참, 요새 새형의 트락토르를 만드느라 너나없이 바쁜 때에 언제 소설책을 읽을 짬이 있어요.》

《허, 무슨 소리. 일이야 항상 바쁜거구. 바쁘다구 책을 읽지 않으면 생활의 정서가 메달라져. 난 좋은 소설책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삶의 의욕과 랑만을 북돋아주는 작가들이 고맙더라.》

《나닷없이 순심은 경대에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깊은 한숨을 호— 내쉬는것이였다.》

《아버지, 작가들이 쓴 소설처럼 생활이 그렇게 랑만적이구 재미있기만 하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해서 아버지에게 그런 속비틀린 소리를 해본 적 없는 딸이였다.

요새 와서 순심이의 얼굴색이 밝지 못하고 어딘가 수심에 잠긴듯 한 인상을 받곤 하였는데 정필은 그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나이찬 처녀가 까닭없이 수심에 잠길적에야 어떤 《사랑의 고민》에라도 빠진거겠지. 행복이기도 하고 고통이기도 한것이 사랑이라지 않는가. ... 그 나이에 누구나 흔히 겪을수 있는 일이고 더우기 리상이 높은 처녀들일수록 일생 문제인 사랑에 작용하는 고민도 그만큼 클수 있을거라고 정필은 생각하느터였다.

아버지된 심정들이 다 그러하겠지만 남정필 역시 딸의 장래운명에 행복만이 깃들기를 몹시도 바라고있었다. 그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것을 쟁그리 다 쏟아부고싶었다. 그런데...

애모쁜 심정으로 가득찬 일렁이는 마음속 호심에 텅텅! 돌맹이가 떨어지는듯 한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불길한 예감이였다.

《아버지...》

순심이가 경대앞에서 일어나며 조심히 불렀다. 불러놓고도 잠시 주저하다가 입을 열었다.

《저녁 퇴근길에 아버지와 조용히... 의논하고싶은 문제가 있어요.》

분명 딸의 신상에 심상치 않은 일이 있는거구나 하고 생각하며 정필은 선선히 응했다.

《그러자꾸나.》

《여섯시쯤에 구내공원에서 기다리겠어요.》

하루종일 일에 파묻혀 경황없는 속에서도 정필은 약속한 시간을 잊지 않으려고 애썼다. 오후 5시마침내부터는 몇번이나 저도 모르게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사실 요즘은 어느때없이 바빴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설계연구소와 공장에서는 앞구동이 있는 새형의 트락토르시험생산준비가 진행되고있었다.

처음부터 심각한 문제들이 제기되고있었다. 앞구동장치를 개방형으로 할것인가 밀폐형으로 할것인가를 놓고 날카로운 논쟁들이 벌어지고있었는데 며칠후에 있게 될 공장 기술집단과 설계연구소의 종합기술협의회에서 그 문제를 최종적으로 략착지어야 하였다.

밀폐형은 남정필이 제기한 안이였다.

두가지 안이 다 현재 우단점이 있었다. 개방형은 제작이 쉬운 반면에 운영상 안정성이 낮은 결함이 있었다. 마른 땅에서 작업할 때에는 별일 없지만 트락토르가 물논작업할 때는 장치안에 감탕이 들어가 고장이 자주 생길수 있는것이다.

밀폐형은 운영상 안정성이 높은 반면에 개방형에 비해 다소 제작과정이 어려운 측면들을 가지고 있었다.

아무리 제작이 어렵더라도 운영상 안정성이 높은 밀폐형을 해야 한다고 남정필은 강하게 주장하였다.

(주장만 해서는 안된다. 제작상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할수 있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

하여 며칠간의 고심어린 탐구끝에 실머리를 찾아내고 지금은 설계개조안이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서고있었다.

배심이 든든해졌다. 결그림작성을 비롯한 종합기술협의회 변론준비도 이미 끝낸터였다. ...

남정필은 서둘지 않고 하던 일을 주섬주섬 거두

었다. 가방안에 박사론문집필에 필요한 자료문헌들을 챙겨넣고 퇴근길에 나섰다.

집에 가면 또 밤새워 논문을 집필해야 하였다.

그것은 30여년 프락포르설계가의 한생의 총화와도 같은것이였다.

시간을 받아 논문을 집필하라는 권고도 없지 않았으나 그는 그렇게 하고싶지 않았다. 바야흐로 비약의 시기를 눈앞에 둔 현대적이고 주체적인 우리 나라 프락포르공업의 생산실천속에서 논문을 완성하고싶었다. 리론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가장 완벽한것, 그것이 목표였고 이제 거두게 될 한생의 열매가 조금이라도 설익은것이라면 자기의 인생 그자체가 실패하는것이라고 그는 간주하고있었다.

구내공원의 감나무 밑에 놓인 긴의자에 순심이가 두손을 동질한 무릎우에 포개엿고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오래 기다렸니?》

《방금 왔어요.》

순심이는 하얀 손수건을 옆자리에 퍼주었다. 정필은 그것을 집어 도로 쥐여주고 그냥 앉았다.

잠시 말없이 앉아있는데 왕밤알만큼 한 새파란 감알 하나가 순심이의 발치앞에 툭 떨어졌다. 순심이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젓히고 감알들이 조롱조롱 달린 나무우를 쳐다보았다. 그 떨어진 감알이 처녀의 마음에 애달픔을 더해주는듯싶었다. 예민해진 딸의 심정을 눈썰며주고싶어 정필은 일부러 대범한 어조로 말했다.

《뭐 그다지 아쉬워할게 있니? 버려라. 익지 못할 열매야 애초에 일찍 떨어지는게 낫지. 공연히 다른 열매들이 익는데 방해나 돼.》

순심은 그 말에 눈을 할기죽하며 입을 비죽 내밀어보였다.

로골적인 원망과 어리광이 뒤섞인 딸의 표정에 정필의 마음은 조금 가뭄되지는듯 했다.

《아버진 젊었을 때 작가가 되려고 하셨다지요? 지금도 소설책을 그렇게 좋아하시는걸 보면 그 말이 옳은듯 한데 이런 댜 돌처럼 너무 무정하셔. 어떤 댜 호랑이처럼 무섭기두 하구.》

《허허, 내 그래서 작가가 못되구 딱딱한 공학자가 된게 아니냐.》

정필은 이루지 못한 젊은 시절의 꿈에 대한 회오의 감정이 살아나 쓸쓸히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가 쓸쓸해하는것을 보자 순심이는 인차 자기 말을 시정했다.

《아니예요. 아버진 나한테 한번두 딱딱하구 무섭게 구신적 없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의 어깨에 얼굴을 꼭 가져다대었다.

《혹시 알겠어요? 70고령에 첫 작품을 내구 유

명한 작가가 된 사람도 있다는데 아버지두 이제 작가가 될지... 참, 박사론문이나 완성하구는 소설을 한번 써보시지 않을까요?》

《그렇가?》

말하기 어려운 마음속 고민을 차마 터놓지 못하고 곰살궂게 빙빙 에도는 그 심정이 가슴에 미쳐와 정필은 함치르르 흘러내린 딸의 머리를 부드럽게 쓸어주었다.

아버지의 따뜻한 애무에 용기를 얻은듯 순심은 정색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아버지, 내 이제 정말 소설같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

마음 어질구 눈물혜픈 한 처녀의 마음속에 언제부터인가 한 총각의 모습이 자리잡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은 꼭 닫겨있던 처녀의 가슴속에 처음으로 던져진 작은 불씨였어요. 처음엔 피여날지 꺼질지 알수 없을 작은 불씨이던것이 바람이 불적마다 조금씩 조금씩 커지다가 나중에는 건잡을수 없는 불길이 되어 처녀의 온몸을 휩싸버렸어요. 처녀의 맘속엔 이미 그 총각의 모습이 이 세상 그 어느 남자와도 견줄수 없는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자리잡혔던가봐요. 그런데 난데없는 비바람이 불어왔어요. 심연같은 강물이 순식간에 그들사이에 가로질렸어요. 처녀는 자기 마음속에서 멀어져가는 총각을 소리쳐불렀으나 그는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아무리 발을 동동 구르며 울어도 그는 고개 한번 돌려주지 않았어요.》

순심이는 아직도 버리지 않고있던 새파란 감알을 만지작거렸다. 잃어서는 안될 그 무슨 소중한 것이기라도 한듯 그것을 더 꼭 그러쥐었다.

《남의 이야기같질 않구나. 에돌지 말구 말해보렴.》

아버지의 진지한 어조와 은근한 재촉에 순심이는 숙였던 고개를 들었다.

《설계연구소의 그 총각은 프락포르공업의 미래속에 자기의 미래를 엮은 좋은 동무예요. 프락포르와 더불어 박사, 영웅도 될 꿈을 꾸었어요. 아마 그 꿈이 처녀의 마음속에 사랑의 불씨로 되었던지도 몰라요. 처녀는 행복했어요. 고심어린 탐구와 피타는 심혈을 기울여 그 총각은 개방형앞구동장치설계를 완성하여 드디어 자기의 첫 열매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녀는 더 행복했어요.》

설계를 완성한 날 그는 〈이건 나의 첫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첫 열매요.〉 하고 기쁨에 겨워 말했어요. 앞바퀴동력전달장치 구조설계를 새로운 방식으로 전개하는 파정에 그는 학위논문종자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열매가... 떨어졌어요.

며칠후에 종합기술협의회에서 최종판결을 내린대요. 프락포르설계분야의 권위자인 그 처녀의 아버지가 바로...》

순심이는 차마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갑자기 공

기부족을 느끼는 사람처럼 숨을 들이그었다가 천천히 내쉬었다.

남정필은 모든것을 깨달았다.

알릴듯말듯 떨리며 가늘게 흘러나오는 딸의 숨소리가 보이지 않는 비수처럼 가슴속에 서서히 날아와 박히는것 같았다. 온몸을 선통하게 하는 예리한 아픔에 정필은 흠칫 몸을 떨었다.

결국 내가 내 손으로 딸의 앞길에 불행의 함정을 파고있었던 말인가?...

아니다, 나는 언제 한번 그것을 원한적 없었고 상상조차 해본적이 없다. 생활이 아무리 예측할수 없는 복잡한것이라 하지만 상상조차 해보기 두려운 그러한 일이 바로 자기앞에 불쑥 닥쳐든것이 놀랍고 잘 믿어지지 않았다.

딸이 지금 원하는것은 무엇인가. 지금껏 주장해온 내 설계안을 포기한다면 모든 일은 순조롭게 풀릴것이다.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이든 다 하고싶은것이 내 소원이 아니었던가. ... 정말 내가 그 젊은 기사의 심혈이 깃든 귀중한 첫 열매를 너무 무심히 대한것이 아닐가.

그 나이에 독자적으로 새로운 분야의 대상설계 구조방안을 연구작성한다는것은 결코 흔한 일이 아니다. 개방형앞구동장치설계안이 통과되어 그가 대상책임을 맡게 된다면 그는 틀림없이 프락포르 설계분야의 혜성으로 등장하게 될것이다. 그 과정에 학위논문도 완성하게 될것이고...

젊은 기사들의 그러한 강렬한 진취성과 학구적 열정 또한 귀중한것이 아닐가.

인간의 명예심을 결코 허영이라고만 단정할수 없지 않은가. 어찌 보면 그것은 인생을 추동하는 날개와 같은것이기도 하다. 나에게도 그러한 젊은 시절이 있지 않았던가. 나는 지금 금방 활짝 펼친 인간의 날개를 꺾으려 하고있다. 혹시 그가 자기의 설계안이 가지고있는 치명적인 결함을 퇴치할수 있는 어떤 방도라도 찾아낸다면... 아니, 형태자체가 달라지기 전에는 피할수 없는 결함이 거기에 있다는것을 나도 여러번이나 연구하고 확증하지 않았던가.

문득 정필은 자기 주장을 철회할 구실을 애써 찾고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편뜻 놀랐다.

여직껏 생명처럼 간주해온 과학자의 신념과 랑심이 순식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져내리는듯 한 허탈감에 그의 마음은 괴롭기 그지없었다.

인정이란 이렇게 무서운것인가... 지금껏 자기가 부르짖어온 과학자의 신념과 랑심도 한갓 위선에 불과한것이 아니였는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

자기가 옳다고 확신한 이상에는 아직 한번도 자기 주장을 굽혀본적이 없는 정필이었다.

이미 여러해전에 자기가 처음으로 《천리마》호 프락포르앞구동장치안을 제기했을 때도 이전 연구소소장의 반대에 부딪혔었다.

《소장동무가 돌아본 그 다른 나라들의 수준이 세계의 전부는 아니지요. 더구나 과학은 한순간도 제자리에 머물러있지 않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정필은 어느 한 나라의 최근 과학문헌잡지를 보여주었다.

《지금 프락포르공업의 추세는 기관출력을 높이는 방법이 아니라 앞구동을 하는 방법으로 오히려 제작원가와 운영원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초보적인 계산에 의하더라도 앞구동이 없는 프락포르의 자기 무게의 60~70%정도 힘으로 전환됩니다. 나머지 30~40%의 무게는 기관출력손실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동력전달이나 굴음저항 소모 같은것에 비해 대단한 량의 손실입니다. 앞구동을 하면 전체 무게가 힘으로 전환되어 기관마력수를 올리지 않고도 실견인력을 상당히 높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천리마〉호 프락포르앞이 가볍기때문에 오히려 그게 역효과를 가져올수 있소.》

《그 문제도 고려해보았습니다. 앞구동을 하면 일정하게 앞질량이 올라가기도 하거니와 일부 설계를 개조하여 질량분배를 다시 해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작업환경에 맞는 만능적인 질량분배는 어렵겠지만 조절질량을 도입하는 방법으로 해결할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게 무슨 아이들 소꿉놀이처럼 그렇게 단순한거요? 도면 한장, 견본 한번 본적도 없이 잡지에 난 그림따지 한장 놓고 어떻게 한다는거요.》

《웁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프락포르공업이 또 한발자국 큰걸음을 내짚어야 하겠기에 무조건 해야 합니다.》

《동무, 우리 설계사업소(당시는 설계연구소가 아니라 사업소였다)는 동무의 공명심이나 만족시켜줄만큼 한가지하지 않소. 중뿔나게 나서지 말고 가서 말은 설계과제나 착실히 하오.》

그러한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정필은 당면설계과제들을 수행하면서 밤을 껴워 자기의 연구를 심화시켜나갔다. 하여 고심어린 탐구끝에 《앞구동장치도입에 의한 〈천리마〉호 프락포르의 견인성능제고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학계에 발표하였다. 논문에서 앞구동프락포르의 견인성능에 미치는 여러가지 인자들의 영향을 분석하고 그에 따르는 합리적인 설계구조를 완성함으로써 종전 《천리마》호 프락포르의 견인성능과 통과능력을 훨씬 높이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그의 논문은 학계의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소장은 자기의 독단과 무능을 인정하고 스스로 자리를 내놓았다. 그때 몇몇 사람들속에서 남정필 이때문에 소장이 해임되었다는 말이 돌아간것을 그도 모르지 않았다. 자기가 그 누구를 해치려고

의도한적은 꼬물만큼도 없었으나 구태여 변명하려 하지 않았다. 과학자, 더우기 과학기술집단을 책임진 일군의 충실성과 실력은 그 한 개인의 운명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고 그는 생각했기때문이었다.

얼마전에 새형의 프락포르설계안을 놓고 일군들이 모여 심의를 할 때도 그러했다.

물론 설계는 기술적으로 별로 나무랄데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우리의 《천리마》호계통이 아닌 전혀 다른것이란데 있었다.

남정필은 그 설계를 찬성할수 없었다.

이미 공장 설계집단에서는 각이한 마력수를 가진 《천리마》호계통의 새형의 프락포르설계를 진행하고있었고 일부 프락포르는 벌써 시제품까지 나온 상태였다.

《혁신적인 측면들이 있지만 나는 〈천리마〉호계통이 아닌 다른 설계를 절대 찬성할수 없습니다. 계통을 바꾼다는것은 곧 새 공장을 짓는다는 소리나 같은데 공업잠재력이 있고 발전됐다고 하는 나라들도 투자를 줄이기 위해 기본계통을 그대로 두고 새형을 부단히 개발하고있습니다. 발전속도측면에서도 그렇고 운영상측면에서도 그것이 유리합니다. 우리 농민들은 오래동안 〈천리마〉호 프락포르에 익숙해있는데 갑자기 계통을 바꾸면 이미 있는 수만대의 프락포르수리운영에 필요한 부속품생산보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대한 투자를 해서 새 공장을 세울바치고는 그 본전으로 이미 있는 계통의 프락포르를 새롭게 갱신하고 발전시키는것이 더 효과적이라는거야 너무나 명백하지 않습니까.》

남정필의 반박할수 없는 논거에 할 말을 못하고있던 설계총국일군이 다시 입을 열었다.

《동문 지금 자기가 나라의 획기적인 프락포르 공업발전에 저애를 주고있다고 생각되진 않소? 솔직히 말해보오. 혹시 동문 지금 자기가 하고있는 새형의 프락포르 대상책임을 뺏길가봐 두려워하는게 아니요?》

다소 야비하게 들리는 그의 점잖은 말투에 정필은 격분을 느꼈다. 막상 입을 열면 자기도 미처 자제할수 없는 말이 튀어나올것 같아 아래입술을 지그시 깨물었다.

《동문 너무하구만. 우리두 프락포르공업의 발전을 두구 모색하던중에 과학원 해당 연구소와 편계를 맺구 이 설계를 내놓은거란 말이요. 동문 다른 사람들의 애국심과 심혈이 깃든 탐구의 열매는 무시하구 늘 자기 주장만 주장이라구 우긴단 말이요. 이런 안하무인이 어데 있소. 일전에두 이러루한 일로 동무 문제가 복잡하게 제기돼서 여러번이나 총국에까지 상정되지 않았댔소. 좀 자중하시오. 어떤 땐 건잡을수 없게 혁신적이더니 오늘은 또 갑자기 답답한 보수분자가 됐구만.》

남정필은 침착성을 잃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입을 열었다.

《한가지 제기하겠습니다. 본설계 설계자측과 공장 설계연구소가 다같이 참가하는 심의를 다시 조직해줄것을 정식으로 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측의 변론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후 공장에서는 《천리마》호 계통의 새형의 프락포르를 만들어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여드리는 영광을 지니었다.

주체88(1999)년 5월 30일 강원도 안변벌에서 새로 만든 프락포르의 물론써페작업을 보아주시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어려운 때 금성프락포르공장 로동계급이 큰일을 했다고, 우리 농민들에게 오래동안 익숙된 《천리마》호 계통을 발전시킨것이 잘한 일이라고 높은 치하의 말씀을 해주시었다. 그러시면서 현존조건에서 우리 실정에 맞게 《천리마》호 계통의 프락포르를 새롭게 더욱 발전시키며 앞구동장치도 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던것이다. ...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남정필은 눈길을 들어 바람에 잎새를 흔드는 감나무를 이윽히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사이에서 한창 커가는 감알들이 저녁해빛에 반짝거리고있었다. 무심히 보아오던 그 열매들에 무엇인가 깊은 의미가 깃들어 있다는 생각이 새삼스레 그의 마음속에 갈마드는 것이었다.

《순심아, 너 저 열매들이 어떻게 익는다고 생각하니?》

《그야... 땅속의 자양과 맑은 공기와 그리구 햇빛...》

순심이는 자기의 대답이 너무 단순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말끝을 맺지 못하고 아버지의 생각깊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뿐일가? 난 저 하나하나의 열매들두 단지 자연의 법칙만이 아니라 다 제나름의 꿈과 소원, 희망으로 맺히고 무르익는게 아닐가 하는 생각이 드는구나. 우리 매 사람들이 가꾸는 생활의 열매가 그러하듯이 말이다. 그 꿈과 소원, 희망에 사심이 깃들면 그 열매는 달고 향기로울수 없지.》

사실 나두 처음엔 개방형앞구동장치를 시도하구 설계구조방안까지 다 작성했었다.

하지만 우리에게겐 무연한 밀밭이나 가는 프락포르가 아니라 물론작업두 안전하게 마음대로 할수 있는 프락포르가 더 절실히 필요하겠기에 힘들지만 밀폐형앞구동장치를 다시 시작했지.

순심아, 난 너희들이 시고 뺏어서 버림받는 열매를 거두게 하고싶지 않아서라두 내 설계안을 포기할수가 없구나.

최종기술협의회에서 너의 그 사람이 기술문제만이 아니라 자기의 사심없는 과학자적량심까지 변

론할수 있다면 난 기꺼이 내 설계안을 포기하겠다. 내가 그걸 간절히 바란다고 그 사람에게 전해라.》

순심이는 고개를 떨구었다.

오래도록 까딱 움직이지 않은채 깊은 생각에 잠겨 앉아있었다. 반듯한 앞이마에 흘러내린 몇오리의 머리칼이 바람에 파르르 떨리고있었다.

이 아버지를 원망하는가. ...

정필은 갑자기 피로를 느꼈다. 하루종일 설계도판앞에서 긴장하게 일한때문만이 아니었다. 젊은 사람들 못지 않은 왕성한 정력이 그에게 있었다.

환갑을 훨씬 넘긴 그에게 이제는 설계심의사업이나 하는게 어떨가고 권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았다. 그런 사람들에게 남정필은 《난 마지막까지 창조자로 살겠소.》 하고 말하곤 하였다.

창조에 대한 강렬한 지향, 창조가 주는 가슴벅찬 희열이 생을 추동하는 활력소이고 열정의 원천이라고 그는 믿고있었다. 해야 할 일, 하고싶은 일이 아직도 많았다.

그는 심신의 피로움에서 오는 마음속 피로를 느끼고있었다. 사랑하는 딸의 말없는 원망, 희열만이 아니라 뜻밖의 피로움을 준 자기의 창조...

의자우에서 일어날 힘마저 자기에게 남아있을상 싶지 않았다. 그 무너져내리는 마음을 일으켜세우려고 정필은 모지름을 썼다. 등골이며 이마에 내배는 끈적한 진땀이 느껴지며 속이 답답해왔다.

《순심아, 달리는 할수 없는... 이 아버지를 용서해라. 그러나 옳바른 신념이 없는 인간, 신념이 나약한 인간은 병들고 연약한 나무줄기와 같다고 본다. 그런 나무에서 어떻게 충실한 열매를 기대할수 있겠니. 사람의 불행중에 가장 큰 불행은 열매없는 인생을 사는거라고 난 생각한다.》

그것은 딸에게만이 아니라 자기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였다.

문득 순심이가 일어나 감나무앞에 다가갔다. 감나무밑에 무릎을 꿇고앉아 나무꼬챙이로 땅을 우벼 자그마한 구멍이를 만들었다. 거기에 손에 들렸던 새파란 감알을 넣고 꼼꼼히 묻었다. 그 자리에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가 일어나 아버지앞에 다가왔다.

《아버지, 아버지가 어떤분이신줄 잘 알면서 두 제가 공연히 아버지를 괴롭혔나봐요. 전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어떤 경우에두 정의와 진리와 양심으로 사시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순심은 눈덩이같이 하얀 손수건으로 아버지의 얼굴에 내뺨 땀을 살뜰히 닦아주었다. 아버지의 마음속 고뇌의 흔적을 깨끗이 씻어내기라도 하려는듯 꼼꼼히 닦았다.

정필은 딸의 부드러운 손길이며 손수건에서 풍기는 향긋한 냄새를 들이켰다. 타들고 답답하던

가슴에 맑고 시원한것이 샘처럼 흘러드는것을 느꼈다.

《그럼 넌 나를 이해한단 말이나?》

순심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이 반짝 빛났다. 자기를 이겨낸 궁지로 빛나는 그 눈은 웃고있었다.

《그 사람두 이해할가?》

순간 순심이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두눈을 살췍이 내리깔았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하지만 나에겐 아버지를 괴롭힐 권리가 없어요. 행복은 웅당 달구 향기로운 열매를 가꾸는 사람의것이 되여야 해요.》

《순심아!》

순심이는 다시 눈을 빛내이며 아버지앞에 손을 내밀었다.

《아버지, 저때문에 피로우셨죠? 자, 가시자요. 제가 일으켜드릴게요.》

정필은 딸의 손을 잡고 의자에서 움쭉 일어났다.

《그래, 가자.》

딸의 손에 이끌려 정필은 힘있게 걸음을 내짚었다.

며칠후 종합기술협의회에서는 남정필의 설계안이 채택되었다. 회의끝에 정필은 앞구동있는 새형의 프락포르 대상책임을 개방형앞구동장치설계안을 내놓았던 젊은 기사에게 맡길것을 공장참모부에 제기하였다. 그러는 그의 속깊은 마음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

지난 주체91(2002)년 12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순천시 내남벌에서 시험운영 중인 앞구동있는 프락포르의 작업모습을 보아주시고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면서 그 프락포르에 《천리마 2000》이라는 이름을 몸소 달아주시였다.

그리고 새형의 프락포르를 다량 생산할수 있는 현대적인 생산체계를 갖추는데 필요한 여러가지 조치들도 취해주시였다.

어느날 퇴근길에 순심은 새 프락포르의 시험시험현장에서 보내온 애인의 편지를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순심동무, 난 이번에 여기 와서 설익은 열매를 한사코 고집했던 자신의 실책을 다시한번 뼈저리게 절감하였소.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그 설익은 열매를 경애하는 장군님께 보여드렸다면, 그래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색을 조금이라도 흐리게 하였다면 내 그 죄를 어떻게 씻는단 말이요.

지금 여기서 개방형앞구동장치가 달린 다른 나라 프락포르운영시험을 함께 하는데 물논같이작업을 할 때면 감탕흙이 치차며 리데나고무까지 밀고 들어가 여간 애를 먹지 않소. 비닐로 둘둘 둘러감

소원

박영만

불비속을 뚫고 락동강을 넘어
열여덟에 총메고 떠나온 고향
남강과 덕춘강이 어우러지는
내 고향 진주의 상까래마을
우리 조상들 대대로 살아온 고향

용서해다오 고향아
내 어엿한 건축가로
락원의 도시 곳곳에 일떠세웠건만
아 남녘의 내 고향에는
작은 집 한채 남긴것 없구나
부모님들 묘소에
비석돌조차 세우지 못하였구나

아 헤어져 수십여년
애타게 찾던 혈육들 서로 갈라져
눈감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대이
잠들지 못하는 이 땅
그들의 사무친 소원
그 언제면 풀어주랴

봄은 오리라
6. 15의 해살따라
통일의 봄은 오리라
미제와 매국노를 몰아낼
민족속원의 그날을 위해
머리에 흰서리 내리어도
나는 늙지 않고 그날을 앞당겨
오늘도 젊음에 넘쳐 사나니

그날이 오면
내 남먼저 통일열차에 오르리라

령남땅 내 고향 진주를 찾아
민족수난기 리항민의 설음 달래던
《진주라 천리길》이 아닌 길

오랜 세월 막혔던 분렬의 장벽 허물고
사품쳐 흐르는 노도와 같이
온갖 불신과 반목을 쓸어버리는
통일의 대하따라
행복에 울며 웃으며 달려가리라
내 고향 진주라 기쁨의 천리길을

애젊은 시절에 떠나갔다가
백발을 날리며 돌아온 이 아들을
고향아 그날엔 반겨다오
물장구치며 놀던 남강아
이 아들을 안아다오

아 꿈에도 어려오던
조상들 묘소에도 찾아가리
사랑하는 동생들
어린시절의 벗들과 고향사람들
얼싸안고 부둥켜안고
그리웁던 정 한껏 터치며
통일된 조국의 인민된 도리 다할 뜨거운 약속도
밤을 새우며 말한들 끝이 있으랴

아 그날을 위해
단군조선 태양민족으로
통일된 내 나라 길이 빛내이며
행복한 삶을 이어갈 그날을 위해
나는 더 늙을수 없다
통일을 위한 열정에 젊음으로 사노라

아도 별반 소용없소.

설계가는 도판앞에서 점 하나를 찍고 선 하나를
긋기 전에 먼저 우리 농민들에게 더 좋은 기계를
안겨주시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의도를 어떻게
하면 더 잘 받들겠는가 하는 일념으로 심장을 불
태워야 한다는것을 깊이 깨달았소.

우리가 가꾸는 하나하나의 열매는 그 높은 충실
성과 깨끗한 양심으로 무르익는것이 아니겠소.

공명심을 앞세우고 눈앞의 자기의 성과에 현혹
되어 잠시나마 동무와 동무의 아버지를 괴롭힌 나
를 용서해주오. 용서하겠지?...》

《아버지, 이 동무를 용서해줄가요?》

정필은 다 읽은 편지를 딸에게 넘겨주고 한손을
쳐들어 구내길에 뻗어나온 굵직한 나무가지 하나
를 애무하듯 어루쓸었다. 곳곳하고 억세게 높이
뻗어오른 감나무우듬지를 흐뭇한 마음으로 바라보
았다.

《용서하구말구 있니? 난 이번에 큰일을 한 그
사람이 이제 오면 한바탕 업어줄란다.》

《아이, 망측하겠네. 난 그런 웅졸한 사람 맘에
없어요.》

아버지의 호방한 웃음소리와 딸의 행복에 겨운
맑은 웃음소리가 기분 좋게 어울려 길가의 놀란 참
새떼와 함께 하늘높이 날아올랐다.

당 원 증 의 1편

박 철

불을 적시는 눈물로
당원증을 받아안던
그날의 그 순간인듯
나는 받쳐들었다
아들의 당원증

마치와 낫과 붓이
뚜렷이 새겨진 당원증
아들의 한생에
높뛰는 심장이 되어줄
존엄높은 우리 당의 당원증!

뿌듯한 가슴이여
오늘을 위해
아들을 그리며 살아왔구나
초소의 전호가에 마음 세우고
날과 날을 함께 맞아왔구나

부모 한생에
자식을 키워 누릴 복 무엇이던가
정말 큰일 했다고
자식을 품에 안고
기쁨에 목이 메일 때 언제이던가

아들은
위대한 당의 당원이 되어
아들로 대견하고
부모는 훌륭한 자식을 두어
부모로 자랑스럽나니

아버지와 아들
이제는 혈육의 관계만 아니다
하나의 기발 들고
하나의 뜻을 위해 함께 싸우는
혁명동지며 길동무!

나의 눈곱에 안해의 눈가에
소리없이 고이는 이 눈물
고마움의 인사여라
아들을 안아 당원으로 키워준
인민군대 그 혁명대학에 드리는

아, 불을 적시는 눈물로
당원증을 받아안던 그 순간인가
나는 간직하였다
부모평생의 가장 큰 소원
아들의 당원증 마음속에 품었다

증

표

이 나라의 젊은이면
웅당 지녀야 하는것이어서
이렇게도 수수한가
아들이 품속에서 꺼내준 제대증

한손에 쥐여지는 수첩처럼 작다
허나 무거워라
아들의 군사복무년한—
그 세월이 마음에 실려

청춘시절을
총대로 빛내이고 돌아왔으니
제대증은 초소의 그 해와 달
아들이 맞은 눈비 가슴에 쏟아준다

원췌에게 죽음을 주리라
백리, 천리 훈련길을 달리며
땀으로 젖고젖던 군복
아들의 병사생활 안겨준다

인생의 얼마나 소중한 시절을
총대에 총탄으로 채워
조국의 전초선에 세워놓고
가슴에 안고온 제대증인가

잡았던 총처럼 무거워라
흘린 땀처럼 뜨거워라
어머니조국앞에 방패로 세웠던
그 심장처럼 고귀해라

이 나라의 젊은이면
누구나 지녀야 하는것이지만
지니여 시대앞에 떳떳한
아들의 청춘시절!

이 제대증
조국에 청춘을 바쳤다는 증서만이라
병사시절처럼 삶을 불태워갈
아들의 한생을 담보하는 증표여라

아 버 지 마 음 외 1편

김 호 수

언제면 내 아들도 다 자라
군복을 입을가
아장아장 첫걸음 떼던 그날부터
간절히 바라던 아버지의 마음

놀이감을 안겨주어도
나무총을 쥐여주었노라
제법 거수경례를 붙이며
퇴근한 이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땐
너무 기뻐 일싸안고
방을 빙빙 돌기도 했고

빨간별 가슴에 달고
유치원에서 돌아온 그날은
꼬마군대라 으시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기뻐 웃던 이 마음

내 찾아가는 집집들의 밝은 벽들에
아들딸 형제들의
조선인민군입대증을
바라보던 이 마음은
얼마나 부럽기만 했던가

온 마을의 바래움을 받으며
꽃송이 달고 꽃목걸이 걸고
빙글빙글 웃으며 초소로 떠나는 자식들
동구밖 멀리까지
손저어 바래주는 부모형제들
내 정녕 얼마나 부러웠던가

그러나 이제는
가사

옆집 뒤집 앞집 온 마을이 찾아와 축복해주고
온 기업소 종업원이 떨쳐나 축하하는
바래움속에 아들을 떠나보내며
나도 동구밖 멀리까지
따라서며 손저어주었나니

초소로 아들을 떠나보냈더니
오늘은 《조선인민군입대증》이 왔구나
우리의 당기와 군기가 펼쳐진
내 아들의 입대증이

온 가정의 기쁨이여라
안해는 벌써 그 몇번
딸애도 몇번
읽어보고 읽어보고 또 읽어보며
정히 액틀에 끼워
군복입은 아들의 모습과 함께 벽에 거는
행복한 저녁이여

창가에 비쳐드는 별들아 둥근달아
너희들도 우리 가정의 이 기쁨 축복하느나
별들은 반짝반짝 속삭이고
달은 빙글빙글 웃으며
기쁨을 더해주는 잠못 드는 밤

언제면 내 아들도 다 자라
나도 병사의 아버지 될가
자라는 아들의 모습만 지켜보던 이 마음
오늘은 땃땃이 자랑하노라
나도 선군시대공민의 자부
장군님의 병사로 내 아들을 키웠음을

쭉은 좋아

봄이 오면 산과 들에 새움이 움트고요
선들선들 봄바람에 춤추며 자란다오
파란잎을 싹싹 베어 처마밑에 말리우면
약재로도 좋구요 맛난 음식 제격일세
에요 에요 에헤요 쭉은 좋다네

부들부들 말린 쭉은 여름한철 향기 좋고
보골보골 끓이면 입맛 좋은 차라오
슬쩍슬쩍 데치어서 입쌀 넣고 쿵쿵 찜어

경구, 격언

- 질투는 증오보다 질이 더 나쁘다
- 질투는 쯤이 옷을 못쓰게 만들듯이 질투하는 사람을 쯤먹는다
- 같은 욕심을 가진 사람은 서로 미워하고 갈

기름 살짝 바르면 군침 꿀꺽 쭉떡일세
에요 에요 에헤요 쭉은 좋다네

대대손손 우리 민족 사랑해온 쭉이요
오늘에도 즐겨찾는 건강장수 보약일세
우리 장군님 민속전통 꽃피워주시여
우리 민족 향기 높아 온 세상에 이름높네
에요 에요 에헤요 쭉은 좋다네

- 은 근심을 가진 사람은 서로 친해진다
- 질투는 영광에 붙어다닌다
- 질투하는것은 자신이 멸등함을 시인하는 것이다

《나》의 시점에서의 서정시인

박 설 란

서정시는 시인 자신이 서정적주인공이 되어 《나》의 사상감정을 토로하는 독특한 시이다. 따라서 서정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개성적인 성격을 창조하는 문제가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서정적주인공의 성격이 새롭고 그 성격이 사람들의 심장에 새겨질 때 그 작품의 서정미도 살고 시인의 개성도 뚜렷이 드러나게 된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의 모습이 뚜렷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신할수 없는 독특한 정서세계가 펼쳐져야 한다.》

시에는 시인의 얼굴과 목소리가 뚜렷한 서정세계를 펼쳐놓아야 한다.

시의 서정은 시인 자신의 정서를 직접 표현하는 주정이다. 시에서는 서정적주인공으로 나타나는 시인의 남다른 얼굴이 직접 표현된다.

그러므로 시에서 시인의 얼굴이 엿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벌써 창작에서 실패를 가져온다.

시에서 시대의 주도적인 감정을 개성이 뚜렷한 독창적인 체험세계에서 노래하는것이 바로 시의 서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요구이다.

이러한 요구를 창작실천에 구현하는 형상적비결이 바로 서정적주인공의 개성적인 성격을 탐구하는것이다. 서정적주인공의 개성적인 성격탐구는 시문학의 본성으로 보아 매우 어려운 창작공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서정적주인공의 개성적인 성격은 시인 자신의 성격과 체험된 감정이 시대와 생활의 본질과 합법칙성을 반영하여 전형화되었을 때 시작품을 통하여 생동하게 드러난다.

때문에 시인들은 일생토록 시대와 인간생활의 한복판에서 주도적인 감정을 찾고 그것을 자기의 독특한 성격과 목소리로 노래하기 위해 모지름을 쓰는것이다.

시인 박호범을 《나》를 중시한 서정시인이라고 말하게 되는것은 그가 일생동안 체험속에서 가슴에 꿰이며 살아온 자기의 감정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을 통하여 서정적주인공의 성격, 《나》의 고유한 성격을 창조하였기때문이다.

시인은 무엇보다먼저 창작에서 항상 자기의 고유한 체험의 터밭에 의거하여 서정적주인공의 성격을 창조하였다.

시인은 생사를 판가리하는 전호에서 시를 배웠

고 총탄이 우박치는 고지에서 원썩을 노려보며 시를 쓴 화선시인이었다.

그는 자기의 시집을 《영원히 행군길에서》라는 제목으로 발표하였다.

병사의 행군으로 시작된 그의 서정시는 제대된 이후에도 병사의 행군으로 계속 이어지고있었다.

그의 시집을 펼치면 《어머니에게 보내는 편지》(1), (2), (3), 《전사》, 《병사의 토론》, 《영원히 행군길에서》, 《주먹밥에 대한 이야기》, 《취사원》, 《남해에》, 《조국산천》, 《사랑의 맑은 물》, 《별도 많은 초소의 밤》, 《아들의 맹세》, 《전사의 노래》 등 병사시절의 체험을 노래한 시들이 시집의 기본주제로 노래되고있음을 알수 있다.

이 시편들에서 감정의 바탕과 착상의 중심에는 자기가 체험한 병사생활을 안은 개성적인 서정적주인공이 서있다.

그가 병사생활을 노래한 시들에는 《우리》, 《인민》 등으로 생활을 막연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명백하게 《나》라고 말할수 있는 사람, 자기 직업이 있고 나이가 있고 생활경력이 있는 그런 개성적인 인간이 있다.

또한 시인의 구체적인 생활모습이 있으며 그의 이야기가 있고 심리가 있고 행동이 있으며 그의 속삭임, 그의 눈물겨운 추억과 량심의 고백이 있다. 한마디로 말하여 눈앞에 생동하게 보이는 산 인간, 《나》의 생활이 그대로 감정으로 펼쳐지고 시로 승화되어있다.

시인이 병사시절의 체험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못 잊어 항상 그 시절에 자신을 세워보는가 하는것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잘 알수 있다.

언제인가 퇴근길에 시인은 정류소에서 버스를 기다리고있었다.

이때 빨간 령장을 단 한 애송이병사가 나타났다. 그를 보는 순간 시인은 마치도 어제날의 병사, 자기를 보는것 같았다.

시인은 《규정위반》으로 병사의 군모를 벗겨 자기 머리에 올려놓았다.

병사의 심정은 안중에도 없는듯 시인은 자기의 허연 수염볼을 끌어만지며 어린애처럼 웃었다. 병사도 웃고 함께 가던 작가들도 따라웃었다. 아마 백발우에 군모를 올려놓은게 여간 우습지 않은 모양이었다.

《할아버지, 멋있는데요.》 진짜 《멋》이 있었다. 군모아래 《백발》, 전쟁로병의 모습은 류달리 젊어보였다. 잠시 없어본 그 《오각별지붕》 아래서 순박하게 웃는 늙은이가 한생토록 마음속에 군복을 벗지 않고 붓을 버린 시인이라는걸 병사는 알리 없었다.

퇴근길에 피딱 맞다는 한 병사의 모습에서 어제 날 병사시절을 그려 시인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서정시를 읊고있었다.

후날 《조선문학》 잡지에 발표된 시 《병사여, 네가 부럽다》를 보고서야 동행했던 작가, 시인들은 박호범을 새삼스레 알게 되었다.

...

내 오늘도 조국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는 그런것이 있다면
그것은 1211고지를 지켜냈다는 그것
병사여 그대는 대동강 아름다운 기슭에
다리를 건설했다는 그것
청춘의 날에 두어깨로 떠받들어올린 다리우로
조국의 력사가 굽이쳐흘러간다는 그것
내 젊은 날에 피젖은 손에 거머쥔 시가의 총창
오늘도 그 붓에 너의 땀을 찍나니
병사여 너와 나 소리합쳐 노래하자
조국수호도 피와 땀으로 이루어지지만
조국의 기념비건설도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리고 노래하자 피도 젊은 날의 피가
제일 붉고 제일 불타고 제일 값있다는것을!

길지 않은 이 시를 더듬어보느라 조국수호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말아 돌파구를 열어가며 이 땅우에 만년대계의 대기념비를 세워가는 병사에 대한 다함없는 축복의 감정과 함께 전화의 그날처럼 마음속에 시가의 총창을 다시금 버려드는 로병의 웅심깊은 자각이 꾸밈없이 안겨온다.

시인은 창작생애의 전기간 꼭 병사생활을 반영한 시들만을 쓰지 않았다.

시집 《영원히 행군길에서》의 《창조의 나날》, 《영원히 행군길에서》 편을 번지면 1960, 1970년대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생동한 시형상으로 소박하게 안겨온다. 시 《소낙비》에서는 발전소연계건설자인 청년주인공이, 시 《노래》에서는 철탑건설자가, 시 《조선은 강이 많은 나라》에서는 수력발전소건설자가, 시 《사랑하노라, 공장여》에서는 단조공이, 시 《어머니의 손》에서는 제강소로인이 주인공 《나》로 등장하여 자기들의 심정을 터치고있다.

연계건설자건, 철탑건설자건, 제강소의 용해공이건, 단조공이건, 합숙생이건, 이마에 주름깊은 로인이건 시의 서정적주인공들인 그 모든

《나》들은 다 시인자신이라는것을 시구절을 통하여 느낄수 있다.

물론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시인들이 자기의 감정을 굴절시켜 일반화, 전형화하는 보편적인 창작원칙과 방법이다. 그러나 이 시인의 경우엔 시인자신이 《나》로 되었거나 일반화, 전형화된 인물이 《나》로 되었건 다같이 시인자신의 체취가 짙게 풍기고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시인들의 시와 확연히 구별되고있다. 거기에서 병사시절의 시인의 체취와 면모를 찾아보게 된다.

시인 박호범의 창작생애를 더듬어볼 때 시인의 인간적량심, 작가적량심이 형성되던 병사시절의 시편들에서 서정적주인공은 기본적으로 시인자신이였다. 그런데 그가 현역작가생활을 할 때부터는 시집 《영원히 행군길에서》뿐아니라 여러 출판물에 발표한 자기의 시들에서 의연히 자기자신의 시점에서 서정적주인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적지 않았으나 우리 시대의 인간전형들인 평범한 인간들이 주인공 《나》로 많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그가 당사상전선의 전초병으로서의 작가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생활의 한 전선만이 아니라 각 방면에 걸쳐 여러 생활의 전구에서 생활을 체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 시대의 참된 인간들을 발견하고 그들의 사상정신세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보다 전진적이고 혁신적인 시세계를 개척해보려는데로부터 선택한것이라고 볼수 있다.

시인은 날에 날마다 새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는 벅찬 현실속에서 시대를 노래하고 격동적인 사변들을 시줄에 옮기면서도 자기 체험의 터전, 시의 주소를 잊지 않고있었으며 언제나 병사시절의 추억을 시대의 정서로 승화시켜 형상하였다.

전승기념탑앞에 서면 전쟁참가자만이 느낄수 있는 승리의 환희를 터쳐 시 《승리한 전사의 노래》를, 전승기념일을 맞으면서는 시 《우리 승리만세》를, 조선인민군창건기념일을 맞는 격정을 담아 시 《우리 군대는 승리의 군대》를,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미제를 병사의 이름으로 단죄하는 시 《내 장검의 칼날을 받아라》, 《시의 성명》을 썼다.

《병사시인》으로서 서정적주인공 《나》의 체험을 노래한 시묶음 《병사는 노래한다》[주체90(2001)년]는 시인의 얼굴과 성격, 목소리가 집중적으로 표현된 작품이다.

시인이 전쟁에 참가하여 병사시절을 보낸 1950년대와 이 시묶음을 내놓은 주체90(2001)년사이에는 웅근 반세기라는 세월이 놓여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오늘도 병사라는 자세로 그날의 전쟁시기를 추억하며 자기 한생을 더듬고 이야기하는것인가.

그것은 시묶음에 들어있는 6편의 시들이 그대로

말해준다.

시 《병사와 시》는 사실상 시인이 시를 배우고 시를 쓰던 창작의 고향에 대한 소개인 동시에 그가 이 시묵음을 내놓게 된 창작동기를 보여준다.

시 《봄비》는 전쟁시기에 넘었던 직동령을 다시 넘으며 고향을 그려보던 서정적주인공의 못 잊을 사랑의 감정이 흥겨운 민요의 가락에 실려 따뜻한 정서로 안겨온다.

시 《군공메달》에서는 전승기념일을 맞으며 포연내 스민 그날의 군공메달을 가슴에 달아보는 시인의 감회깊은 추억과 함께 그 군공메달을 단체로 돌격전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에 대한 아픔으로 군공메달의 무게를 새삼스럽게 안아보는 웅심깊은 토로가 있다.

시 《청춘시절은 병사시절》은 조국의 최전연 1211고지를 다시 찾은 시인이 총천 병사의 모습에서 자기의 병사시절을 그려보며 단순한 부러움이 아닌 백발로병의 마음속에 깃든 조국수호의 몇몇한 긍지와 자부심이 맥박치고있다.

시묵음의 마지막시인 《전쟁에 대하여》는 어제날 전쟁을 겪은 한 로병의 추억이 아니라 이 땅우에 수시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는 미제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에 가슴을 뚫이며 이 땅우에서, 아니 이 지구우에서 미제의 마지막멸망을 선언하는 조선인민군 병사의 무자비한 정신력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있는가를 격조높이 선언하였다.

시인은 이렇게 병사시절의 체험과 오늘의 충격을 하나로 융합시켜 선군시대 우리 조선인민군의 영웅적성격을 체현한 서정적주인공을 개성이 뚜렷한 서정세계로 노래한 병사시인이었다.

시인은 다음으로 인간의 량심문제를 자기의 주제로 제기하고 늘 관심하면서 그것을 작품에 구현하였다.

이것은 시인의 개성을 이루는 중요한 측면의 하나라고 말할수 있다.

시인은 자기의 생활세계, 서정세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시인은 필요에 따라 이런 생활, 저런 생활을 그릴수 있으며 아무 생활, 아무 주제에 막힘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자기의 생활령역, 주제분야를 가지는 것은 좋으면 좋았지 나쁠것은 없다. 자기의 체질에 맞고 자기가 잘 아는 생활, 자기의 마음속에 항상 안고 사는 진정을 노래하는것은 시인으로서 늘 관심해야 할 문제의 하나이다. 시인은 인간의 량심문제를 자기의 인생앞에 무거운 질문으로 내세우고 그것을 지키기에 고심분투하였으며 또한 시창작에 그것을 그대로 구현함으로써 시적개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량심문제는 인간의 품격을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 기준으로 된다. 원래 량심은 료리도덕적개념으로서 사람이 자기의 준비정도에 따라 자기스

로가 사회앞에 지니는 의무이다. 그런것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량심이 없다면 패덕한이 되고 량심이 있다면 아름다운 인간으로 되는것이며 량심이 폐허로 된 인간사회는 좁이 없고 꽃이 없고 또 향기가 없는 패덕한의 사회로 될것이다.

량심은 인류가 발생된 때로부터 지금까지 존재해오는 인간본성에 관한 문제의 하나이다.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본성으로 하는 자주적인간의 량심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수많은 작가, 시인들이 이 문제를 관심하고 때로는 작품의 사상주제적파제로, 때로는 인물의 성격과 세부, 일화 등에서 상세하게 구현하기도 하였다.

시인은 그 어떤 철학적인 개념으로, 순수 도덕 일반에 대한 시적형상으로가 아니라 그 도덕의 밑바닥에 놓여있는 량심문제를 직접 시에 구현하였다. 그러면서도 허공에 뜬 개념풀이로가 아니라 서정적주인공인 시인의 구체적인 모습과 숨결, 목소리가 생생히 살아나는 생활의 시로 형상하였다.

서정시 《마지막 한발》, 《취사원》, 《그는 평범한 사람이였다》, 《군량미》, 《어머니의 손》, 《그날 밤의 이야기》, 《전보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의 한토막》, 《눈송이》 등은 시인이 직접 작품에 서정적주인공으로 나섰거나 현실에 있는 산 인간, 전형화된 인물들을 등장시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순결한 량심의 세계를 정서적으로 깊이 파고든 작품들이다.

시 《마지막 한발》은 량심의 인간인 시인의 얼굴과 숨결을 느끼게 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시인이 직접 체험한 생활적인 정황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길에 혹시 겪을수도 있는 비상한 정황을 상상하여 그려보면서 쓴 량심주제의 시라고 말할수 있다.

인간의 가치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더 명백해지는 법이다. 작품에는 조국의 부름에 홀로 적진을 뚫고나가야 하는 엄숙한 시각, 돌아갈 길마저 막힌 생사의 판가리결전에서 목숨을 바쳐야 하는 최후의 순간이 극적인 정황으로 조성되어있다. 이러한 정황은 시인이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함께 싸운 전우들이 다시 돌아오지 못한 습격의 길에서 피로써 체험한 정황이였다.

바로 이러한 정황속에 시인은 자기를 세워본것이다. 시인은 만일 《홀로 적진을 뚫고 나아가라면》, 《피값을 받아낼 최후의 순간이 온다면》라는 상상속의 정황에 《나》를 세워 신념을 걸고, 그 신념이 뿌리내린 량심을 걸고 자기의 할바를 찾았다.

《나는 서슴없이 떠나가리라/ 탄창에 가득 총탄을 채워가지고》라는 시구와 《나는 세찬 불을 뿜으리라/ 마지막 한발만은 남겨두고》라는 시구는 생사기로의 정황에 처한 서정적주인공의 정신

세계를 밝힌 의미깊은 감정으로인 동시에 총을 잡은 병사의 마지막총탄이 무엇을 위해 필요한가 하는 문제를 해명하기 위한 감정의 디딤돌로 되고있다.

이어 시인은 사람의 모습은 마지막순간의 모습이라고 밝히면서 남겨두었던 마지막 한발의 총성이 이름모를 적구의 산밭에서 전사인 자기를 향해 높이 울리거든 어머니조국이여 고향의 언덕에서 나를 부르던 그때처럼 이 아들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달라고 부탁하면서 이 아들은 몸은 가면서도 인간의 지조만은 남겨두고 갔다고 여운있게 시를 끝맺고있다.

인간 시인이 마음속에 그려보고 상상해본 참인간, 조국의 아들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이름모를 적구에서 살아 원썩에게 잡히기보다는 죽어 어머니조국이 기억하고 불러주는 참된 아들로 영생하리라는 전사의 목소리는 또 얼마나 맑고 깨끗한것인가. 시인은 이렇게 가장 량심적이고 고결한 지조를 지닌 인간을 마음의 거울로 비추어보며 언제나 자기 인생을 다듬고 다듬어왔으며 그런 인간의 높이에 오르기 위해 백발이 되도록

록 자신을 채찍질하며 살아왔다.

시인 박호범의 시들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것은 시대의 전형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상하고 순결한 량심의 세계를 노래한 시들이다. 시인이 그런 주인공들의 참다운 인간량심의 세계를 파고드는데 초점을 두었다는것은 인간의 량심을 인간의 고상한 인격형성의 기본으로 보고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량심, 그러한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애국열에 불타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복무의 길에 헌신할수 있는 인간들이라고 보았기때문이다.

이것은 그가 한생토록 일관하게 지켜온 생활의 신조였으며 창작생애의 전과정에 하나의 창작적지론처럼 여겨온것이였다.

이처럼 시인은 전화의 그날 병사시절로부터 현역작가로서 생을 마무리한 창작생활의 전기간 남과 구별되는 개성적인 체험으로 자기의 서정세계를 펼쳐였으며 자기의 고유한 주제명역을 가지고 뚜렷한 모습을 남긴 시인, 《나》를 중시한 서정시인이였다.

밤알이 떨어지는 소리

리 일 섭

나는 지금 서있다
밤나무 많아 밤동네라
그리도 정답아 부르던 고향
오늘은 원한의 대명사로 된 땅
강서군 수산리 옛 밤창고앞에

산들산들 불어오는 봄바람에도
구수한 밤향기 실려오는듯
조용히 눈감으면
마음속에 후두둑— 후두둑—
그날처럼 밤알들이 쏟아져내리는 소리

얼마나 즐거웠으랴
해방된 그 가을날들엔
아이들 주머니에 불룩불룩 차고넘쳐
집집의 자루마다 그득그득 차고넘쳐
소잔등 휘게 밤가마니 실어다 쌓았을 밤창고

허나 그날의 그 기쁨과 웃음은 어디—
오늘은 저 텅빈 창고안에서
세월을 넘어 그칠새없이 울려오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어른들의 아우성소리
그리도 이 가슴 허비는것이냐

보기만 해도 소름끼치누나
저 창고안에 무고한 주민들 가둬넣고
불을 지르고 총탄을 퍼부으며
너털웃음 짓던 미제와 계급적원썬들
그 피묻은 물결 아직도 눈앞에 삼삼해

생각만 해도 분노에 치떨리누나
저 창고기둥과 담벽을 그려안고
맞아죽고 찢려죽고 불타죽으며
승냥이 야수들에게 저주를 퍼붓던
그 피맺힌 부르짖음 아직도 귀전에 쟁쟁해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한들 잊으랴
이 땅 이 주권을 빼앗기면 노예된다고
죽어도 하소할 곳 없다고
찾아오는 새 세대들 심장에 복수의 불을 달며
오늘도 밤창고의 령혼들 피울음 울거니

오, 후두둑— 후두둑—
봄바람에도 밤알들이 쏟아져내리는 소리
알알이 복수의 총탄되어 폭탄되어
이 나라 천만군민의 가슴 만탄창해주며
사계절 변함없이 밤알들이 떨어지는 소리여

전쟁에 대한 이야기

박 향 미

전쟁

나는 이 말을
책이나 영화에서 익히지 않았다
전쟁
이 말은 나의 곁에 있었다

거슬러보는 추억에도 피가 흐르는
50년의 그 여름
아직 빠도 채 굳지 않은
나의 아버지는 다섯살
뛰어가다 넘어져도
엄마의 가슴 아프게 하던 소년
바로 그 소년의 다리에 미국놈의 기총탄은
씻을수 없는 원한으로 날아와 박혔거니

그때부터
나의 아버지는 어린 수난자
마음껏 뛰어노는 자기포레 아이들
창가에서만 부러워 바라보아야 했던
불행한 소년

전쟁은 그것으로 끝났던가
아 전쟁은
총잡을 그 나이에
입을래야 입을수 없는 군복을 두고
몸부림치며 모대기던 아버지의 아픔
그래서 더더욱 아물수 없었던
아버지의 상처자리

아버지의 불행으로
끝날줄 알았던 그 상처가
꽃리봉 달고 깨끔질하며 뛰놀던
어제날 이 딸의 어린 동심에도
파편처럼 날아와 박혔으니

어느날이던가 그날은
개나리꽃 무리져 피던 학교운동회날

사람찾기경기에서
아버지란 쪽지를 불쑥 쥐었을 때
함께 달릴수 없는 아버지를 두고
두손으로 얼굴을 싸전채
나는 얼마나 흐느껴울었던가

아 전쟁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순간들에도
이렇게 불쑥 찾아와
그날의 상처를 헤집으며 괴롭혔거니

전쟁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침략자 미제
어제는 나의 아버지에게
불행을 들씌우고
오늘은 나에게
그 아픔을 강요하거니
이제 더 그 고통을 넘겨받을
그런 세대가 이 땅에 또 있던가

오 달리는 될수 없는
나는 복수자
하기에 나는 군복을 입었다
피맺힌 결산만이
뿌리깊은 상처를 가실수 있기에
한세대에 차려진 군복만이 아닌
아버지가 입지 못한 그 군복도
나는 마음속에 함께 입었다

전쟁
그것은 백년숙적 미제와의 총결산
나는 이 말을
군복을 입고 더 똑똑히 알았거니
아 끝없는 사랑과 증오로 피끓는
전쟁과 우리 가정이야기...

상 식

모기를 죽여버리는 특수한 군복

무더운 여름철 야외에서 근무를 설 때 병사들을 가장 괴롭히는 《적》은 모기이다. 어느 한 나라의 과학자들은 모기가 한번 물기만 하면 곧 죽여버리는 특수군복 즉 살충 및 말라리아 방지군복을 제작하였다. 이 군복에는 살충제인 《페이리진》을 침투시켰다고 한다.

동남아시아지역에 파견된 어느 한 나라 병사들이 이 군복을 착용하였는데 모기성화를 완전히 막았다고 한다.

한식술 한가정 외 2편

박성애

나는야 작업반의 막내야
보람찬 일터에 첫 자욱을 내디딘
나어린 단발머리

작업반명부에
또박또박 새겨지는 내 이름
손퐁금작업반에 새 식솔 늘었다고
기쁨속에 믿음속에 걸어주는 꽃목걸이

수리공아바인
친손녀를 맞은듯 싱글벙글
나의 등을 두드려주고
반장어머닌 막내딸을 이끌듯
내 손목을 꼭 잡고 작업장을 돌고

축하의 꽃다발 대신이라
내 손에 사과 한알 슬쩍 쥐여주고
휘파람 휘휘 불며 일손 잡는
땅크병출신 제대군인오빠

훌륭한 손퐁금 만들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면
두툼한 악보책을 안겨주는 저 언니는
공장이 사랑하는 예술소조의 씨꿀새

인정 많은 《할아버지》도
다심한 《어머니》도
미덥고 친근한 오빠 언니도 많고많은
정다운 나의 일터 나의 작업반

오고가는 사랑과 정 뜨거워
마음맞고 일손도 맞으니
척척 조립되는 손퐁금마다
도레미화솔라씨
화음도 맞고 음정도 잘 맞지요

아 언제나 어느때나
사랑담아 정담아 불러보는
나의 작업반
혁신의 노래 넘치고
화목한 노래의 집
한가정 한식술입니다

은방울쳐녀

공장정문을 나서서
불밝은 거리를 거니는데
어디선가 울려오는 손퐁금소리
내 마음을 흔드는 손퐁금소리

그 손퐁금 몇년생일자
누구의 솜씨일자
고요히 깊어가는 밤하늘에
정답게 울려퍼지는 행복의 노래소리

조립공, 내 품에서 태어난 손퐁금이
온 거리에 기쁨을 안겨주는
이런 때 이런 저녁이면
저도 몰래 가슴가득 차오르는 이 긍지

언젠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던
나어린 재간둥이의 어깨우에
번쩍이던 그 악기도
나의 손길이 깃든 은방울손퐁금

멋쟁이공연이라 치하해주신
군무자에술축전

장군님께 기쁨드린 그 병사의 손퐁금도
우리 만든 《은방울》

불밝은 무대와 극장을 지나
오곡백과 무르익는 전야
우등불 타오르는 발전소건설장
조국땅 그 어디나 울려가는
은방울의 메아리

그 어찌
청고운 목소리를 지녀서만
은방울쳐녀이라
정성담아 조립해가는 손퐁금으로
나는 온 나라에 노래를 주고 기쁨을 주는
은방울쳐녀

별빛밝은 이밤도
장군님 가고가실 전선길 굵이굵이
이 마음 손퐁금의 노래안고 따라서는
나는야 장군님의 딸
은방울가수랍니다

내 삶의 지성곡

이 세상에 태어나는
내 생명이 고고성을 울리듯
나의 손풍금은 태여납니다
언제나 월미도 영육이의 노래를
첫곡으로 울리며

조립된 손풍금을 메고서
두손이 건반우를 달릴 때면
불타는 참호속에 노래부르던
동갑이의 그 모습 마음속에 다가섭니다

순간도 불발을 몰라야 할
멸적의 총대처럼
한순간도 불협화음이 없어야 할
나의 손풍금

영육이와 나란히
이 몸도 결전의 전호가 병사런듯

손풍금은 심장의 불을 뿜는
나의 무기
원쭝격렬의 노래대포

올려가리
나의 숨결
나의 사랑 손풍금
전선산발 저 넘어
수백수천 영육이들이 지켜선
고지와 전호가에서

불러다오 올려다오
네 가는 고지마다
병사들의 가슴마다
이 노래 위훈의 불씨되어
애국의 불길로 타오르라
내 삶의 영원한 주제가
월미도 영육이의 노래여

..... ◆

쪽 거 울

정 영 삼

혁명박물관 진렬함속에
소중히 놓여있는 거울
항일대전의 포성 우는 백두산에서부터
어느 녀대원의 품에 안겨
불길만리, 눈길만리를 왔을 쪽거울

이제는 수은칠이 벗겨지고
유리마저 누렇게 변색이 되었어도
거울우엔 선명하게 비껴있구나
그 어떤 역경에도 비판을 모른
항일빨찌산의 아름다운 생활이

또 한차례 전투 끝내고
불연기에 그스 얼굴 티없이 다듬으며
밝게 피워보던
그 웃음

조국진군 잊지 못할 그 봄날
삼지연못가의 진달래꽃 부여안고
감격의 눈물 지으며
해방의 날 그러
군복깃 정히 여며보던 모습이여

생각은 절로 뜨거워져라
불속을 가도 티 한점 앓지 않고
물속을 가도 물 한방울 튀지 않는
정결한 생활
아름다운 그 마음

세월의 모진 눈비바람속에서도
흐려질줄 모르고 흠어질줄 모른
투사들의 혁명적락관은
파연 어디에 뿌리를 두었던가

오 그것은 정녕 그것은
혁명의 위대한 태양이신
아버이수령님 계시여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비옥한 신념의 토양이었으니

아, 거울
투사들 소중히 지녔던 쪽거울
경애하는 장군님 따라
선군혁명천만리길에 나선
우리 신념 비쳐보기엔
더없이 맑고 큰 혁명의 거울이여!

붉은광장 열병식 외 3편

엔. 엠. 그리바체브(이전 소련)

41년도 그때처럼 눈보라 이는 광장
군인들의 열병대로, 철의 대오 나아간다
귀청을 찢는 경보신호 소용없나니
그들은 싸움터가 아니라 병영으로 간다네

쌀쌀한 추위속에 열기는 더욱 달아오르고
풍성한 명절오찬은 기다리고있으리
저녁녘 구락부에서는 합창단도 모여오고
군무자들의 경축무도회도 열리리

그리고 그 이후엔
텔레비죤이나 영화관에서
화면으로 볼수도 있으리
오래전 일로 되어버린 그 전쟁을

그러나 나는 추억한다
오래전의 그때를
크레플리성벽에서 곧추 뻗어간 전선길을
죽음의 백병전이 벌어지던 그곳을

대대들이 지나갔다 중대들이 흘러갔다
처음이자 마지막일수도 있었으나
그들은 어깨로 박격포를 끌고
허리에는 전투예비탄대들을 두르고

찬눈송이 덮이는 흑한속에서
더욱 랭담해지고 강해진 그들
어머니조국과 영원히 작별하듯이
그렇게 인사를 하고 떠나들 갔다

그때의 지상로케트도 여기엔 없고
멀리서도 동음소리 요란하던 기계화부대도
없건만
장례식에서 울리던 일제사격의 메아리
슬픔의 눈물로 적시던 전사통지서 어이 잊을수
있으랴

그들은 수도를 뒤에 남겨두고
생소한 타고장에서 행군을 끝마쳤다
나는 저들의 얼굴에서
오래전의 가혹했던 그해를 보고있다

나에겐 생각되노라 기적이 일어난듯
쓰러진 그들이 피젖은 가슴마다 훈장을 번쩍이며
모두들
그들모두가
바로 이 순간에
거기에서
다시 돌아와 열병대로 앞장에서 나아가고있는듯

지휘관들에게

레오니드 슈까브로

우리는 지휘관들을 잊지 않고있다
련대에 소속되어온 우리들에게
앞으로의 전투를 준비시키며
병사의 강의성을 가르쳐주던

그리고

끊임없는 강행군속에서도
온갖 화력속에서도
이겨내는 법을 가르치던것을...

그속에서 우리는 깨달았다
병사는 언제나 전쟁에 서있다는것을

투쟁한 삶

엔. 엠. 그리바체브

한중칸같이 달아오른 무더위
그 기진맥진한 7월의 한낮
나는 종합탈곡기의 동음소리가 아니라
총알이 날아오는 소리를 듣고있다
총탄소리, 총탄소리

휘파람소리를 내기도 하고
낮추 뜬 구름에서 가랑비를 뿌려대는것 같기도 하고
나는 오래전 전쟁을 끝장냈는데
왜 그 소리가 또다시 들려오느냐?

어이하여 선량한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 샘에서 또다시 물을 마시려 하느냐?
그것은 옛 상처의 발작
나의 그 추억은 끝없이 울부짖는다

으르렁대던 한낮의 그 전투가 있는 때로부터
7월은 서른번이나 지나가지 않았던가
거기서 큰소리를 내지르던 그 탄알들이
오늘도 우리를 따라오누나

악마의 육체같이 죽지도 않고
풀밭에 땀한 이슬같이 사라지지도 않는다
비행기속에서도 론쟁속에서도
잠자리에서도 요동치며 울부짖는다

너 력사가여 서둘러 우리에게
동정을 베풀지 말라
그렇게 투쟁한 삶은
열배로 더욱 강해졌으니!

이 거리는 가르쳤다

엔. 엠. 그리바체브

나에게 말하지 말라
내가 가혹하다고, 아니 아니다!
제정신으로야 어찌 사람들에게 무자비하라
시인은 그럴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비슷한 현상속에서
그 특성과 차이 갈라보지 못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사업도 휴식도 식사도 함께 하며
노래를 부를 때도 길을 갈 때도 함께 있을
것이다

그들을 떠난다는것은 잠에 취한 메기 제 기습
떠나
달팽이에게 먹힐수 있는 심연속에 외로이 있는
것과 같으리
하기에 나는 사람들이 들끓는 이곳에서
밝은 세계를 지향하는 그들의 모든 욕망 사랑
하노라

그러나 만일 누가 싸움을 원한다면
코마루가 부어오르고 앞머리칼이 먼지에 형
클어졌어도
불평을 부리지 말라
그리고 슬프게 울지도 말라

어떤 방법으로 계속 살아갈것인가
흰기를 들고
공포와 순종속에서
높이 쳐든 주먹아래 무릎을 꿇겠는가

아니 아니다! 나에게 이 거리는 가르쳤다
전쟁 또다시 전쟁이 일어나
원썩가 덤벼들 때면 굶어들지 말라고
타격으로 완전히 꺼꾸러뜨리라고!

(리정임 역)

괴성이 물린 후



리 금 철

1

적도의 밤.

한낮의 폭양에 달아있던 여기 싼포스항구에 깃들은 밤은 열대의 무더위로 지쳐있던 선원들을 시원한 해풍으로 식혀주며 꿈의 안식으로 이끌고있었다. 어느 나라 선박에서인지 울리던 광기어린 자즈의 선률도 멎은지 오래고 술에 취해 부르던 선원들의 노래가락도 맥이 진한듯 서서히 잦아드는 속에 항구의 밤은 고즈넉이 깊어가고있었다.

새벽 3시.

이제는 바다바람조차 조는듯 잠잠해지고 아득한 밤하늘의 남십자성도 기울고있는 때 불현듯 앞바다쪽에서 고요를 깨뜨리며 가벼운 발동소리가 울리었다. 이어 그쪽의 수평선우에 검은 형체가 희뵈히 나타나 항구쪽으로 서서히 다가들었다. 그것은 선체가 그리 크지 않은 경비정이었다. 경비정은 여러 나라 무역선들이 정박하고있는 부두를 에돌아 아직은 계류삭을 걸지 않고 외파로 떠있는 한 외국선박으로 조용히 다가들었다.

《무슨 일지요?—》

선박의 갑판우에서 졸음이 실린 당직선원의 목소리가 울리었다.

《해상경찰이요. —》

느릿하게 내뿜는 대답소리와는 달리 휘익— 경비정에서 올라가미가 배전우로 살같이 날아올랐다.

란간우에 허리를 굽히고 아래를 내려다보던 당직선원은 《꼭—》 소리를 지르며 건공잡이로 바다물에 떨어졌다. 하건만 주위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싶게 여전히 고요한 밤세계에 묻혀있었다.

이어 경비정에서 배낭식추진기를 등에 진 여럿의 검은 피한들이 선박우로 날아올랐다. 순식간에 선장실과 무전실을 점거한 그 피한들은 나는데

선원실로 뛰어들었다.

《꿈짜말앗! 반항하면 쏜다!》

잠에서 깨어난 선원들은 복면을 쓴 사나이들이 겨누어댄 자동소총의 검은 총구를 바라보며 부르르 몸들을 떨었다. 한순간에 선원들은 그 피한들에게 많은 돈과 귀중품을 강탈당하였다.

×

이국땅의 아침은 대진이에게 류다른 정서를 자아냈다. 조국의 평해를 지켜온 군사복무나날에 무수히 맞고보낸 바다의 아침이건만 지금도 이 젊은 부선장은 바다의 해돋이를 할 때면 심신을 휘감는 상쾌감으로 하여 삶의 희열과 생의 정열을 가슴뿌듯이 느끼곤 하였다.

하긴 바다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으며 누군들 바다의 해돋이를 싫어할 사람이 있으랴. 그래서인지 대진의 편인도 언젠가 스스로없이 이렇게 속삭인적이 있었다.

《저도 바다의 해돋이를 사랑해요.》

이것은 처녀의 가슴속에 간직되어있는 대진에 대한 애정의 속대사이기도 하였다. 아마 그 정아 역시 지금쯤 조국에서 저 해돋이를 맞고있으리라.

잔잔한 바다의 푸른 물처럼 맑고 고요한 눈가에 언제나 웃음만이 넘쳐있는 정아의 모습이 불현듯 눈앞에 떠오르자 대진은 가슴이 뻘근해들었다. 이제는 그와 헤어진지도 한달이 남짓하다.

하지만 어느 하루도 대진의 생각속에서 떠나본 적이 없는 처녀이다.

대진의 정겨운 눈길에 왼쪽팔목에 채워져있는 류다른 손목시계에 가뭇었다. 조국에 있을 때 정아가 기념으로 준것이다.

《항행기간 한시도 이것을 몸에서 떼지 말아주세요. 약속하지요?》

아무렴... 이 대진이 사랑하는 처녀의 체취가 스민 기념품을 몸에서 떼어놓을수가 있는가. ...

기분이 유쾌해진 대진은 다시 고개를 들어 떠오르는 아침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두팔을 뒤로 젖히고 가슴을 펴며 힘껏 심호흡을 하였다.

그러던 대진은 부두의 잔교에서 들려오는 떠들썩한 소음에 그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무슨 일때문인지 경찰들이 다급하게 뛰어가고 그뒤를 따라 촬영기와 사진기를 든 한때의 사람들이 왁자거리며 밀려가고있었다. 보매 기자들 같았다.

대진은 호기심에 끌려 배전란간으로 다가섰다. 이곳에 나란히 떠있는 《유쾌한 사나이》호의 갑판우에도 벌써 여러명의 외국선원들이 몰려서서 잔교쪽을 내려다보며 불안에 잠겨 수군거리고있었다. 무슨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모양이었다. 대진은 그들에게 소리쳐물었다.

《왜들 저런가요?—》

《간밤에 끼브로스선박이 해적들의 습격을 받았다고요. —》

《해적?!... 이 항구에서 말이요?》

깜짝 놀란 대진은 이렇게 되물었다.

《경찰들은 그새 뭘하고있었는지... 정말 개판이요》

구레나룻이 유료한 선원이 찌뿌둥해서 이렇게 투덜거리었다.

바다의 아침이 가져다준 흥그러움은 대진의 마음속에서 깡그리 사라져버렸다. 무인지경의 공해상도 아닌 이런 번잡한 항구에서까지 감행되는 해적들의 강탈행위는 정말 격분하지 않을수가 없었다. 하면서도 대진의 가슴은 긴장으로 굳어졌다. 조국을 떠나오기 전날 퇴근길을 함께 걸으며 나직이 말하던 정아의 걱정어린 당부가 다시금 귀전에 되살아났다.

《이번 항행길에 말레싸해협을 지나게 될텐데 전 근심이 생겨요. 원에서 열린 과학축전때 저와 낯을 익힌 유럽인과학자가 있는데 글썽 그 사람이 얼마전에 공해로 현지실험을 나갔다가 그 말레싸해협근방에서 해적들한테 화를 당했다더군요. 저처럼 생물전기학을 전공하는 과학자인데 애써 연구한 탐측기도 빼앗기고 부상까지 입으면서...》

그때는 별로 심중히 대하지 않았던 정아의 그 말이 지금은 대진에게 현실의 심각성을 시사해주고있었다.

시대의 변천속에서도 의연히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빈번해지고있는 해적행위, 그 해적행위가 제일 우심한 곳이 바로 대진이네 《동산》호가 이제 곧 통과하게 될 말레싸해협이다. 말레싸해협은 인디아양과 태평양을 이어주는 국제수로로서 세계적으로 해상운수가 활발한 수역의 하나이다. 그래서 이곳 해협은 해적들에게 풍부한 《먹이사냥터》로 되고있었다. 지난해에만도 그곳에서 수십척의 평화적인 선박들이 중무장한 해적들의

습격을 받았었다. 국제사회계가 우려를 안고있는 그 해적행위가 공해상도 아닌 항구에서 그것도 바로 자기들의 곁에서 일어났으니 해병출신의 이 젊은 부선장은 정의감으로 가슴이 들쭉였다.

잠시후 《유쾌한 사나이》호에서 구레나룻의 석연한 목소리가 다시금 날아왔다.

《이보우, 〈동산〉 호! — 그래서 말이요, 우리 선장님은 출항을 미루었다고요. —》

출항을 미루다니? 대진은 아연해서 《유쾌한 사나이》호 선원들을 바라보았다. 국적은 달라도 서로가 동무해서 대양의 풍랑을 함께 헤치며 이곳까지 온 그들이다. 대양을 항행하는 많은 선박들이 들려 음료수와 식료품 그리고 연유를 보충받는 이곳 쾰프스항구에 그들이 닳을 내린것은 이틀전이였다. 《동산》호와 《유쾌한 사나이》호는 그간에 제각기의 일을 끝내고 오늘 출항하여 말레싸해협을 지나 뱃길만의 《A》항구까지 함께 항행하기로 되어있었다.

《여보시오! 바다사람들의 약속이 뭐 아이들 장난인가 하오?》

대진의 항변에 주눅이 든듯 구레나룻은 게면쩍게 두손바닥을 비벼대더니 풀이 죽어 대꾸했다.

《당신 방금 현실을 보고도 그러누만. 이렇게 항구에서까지 해적들이 날치는 판국인데 공해에 나가면 무슨 변을 당할런지 어찌 알겠소?... 그래서 우리 선장님이 당신네 선장과 의논하려고 방금 전에 거기로 건너갔소.》

그 시각 《유쾌한 사나이》호의 구스타프선장은 자기네 1등항해사와 함께 《동산》호의 선장실에 와있었다. 오랜 바다생활과정에 인연을 맺은 이곳 항무장으로부터 간밤에 있는 해적들의 습격소식을 남먼저 들은 구스타프는 아침일찍 이렇게 바빠 자기의 동행자를 찾아온것이다.

대진이 선장실에 들어섰을 때는 이미 상당한 이야기가 오고간듯싶었다.

구스타프는 대진을 알은체 해보이고는 다시금 마주앉은 《동산》호선장에게로 눈길을 돌렸다.

《오늘 오후에 〈알프스〉호가 여기로 입항한다고요. 항무장의 이야기니 정확할거요. 그 배는 우리들보다 크고 또 선원들도 많기때문에 해적들이 감히 범접하지 못할거요.》

《동산》호선장은 두눈을 지그시 내려감고앉아 아무런 응대가 없었다.

《선장, 우리 〈알프스〉호를 기다렸다가 함께 따라가기로요. 그 배가 27일에 출항하여 말레싸해협을 통과할 예정이라오.》

옆에 서있던 대진이 참견해나섰다.

《그럼 웅근 나흘씩이나 하는 일없이 여기에 놀러있는단 말입니까? 남들이 알면 웃겠습니까.》

성격이 과묵한 《동산》호선장과는 이야기할 재미가 없던차라 구스타프는 대진이한테로 몸을 돌리었다.

《그런들 어찌겠소. 죽는것보다 까무러치는편이

더 낫다는 말이 있지 않소. 그러니 당신들도 출항을 미루오.》

《아니! 우린 혼자서라도 떠나겠습니다.》

대진의 단호한 대꾸에 구스타프는 어깨를 으쓱 추켜올리며 두팔을 좌우로 벌려보였다.

《이보우 젊은 친구, 당신의 그 용기에 탄복이 가누만. 그런데 그것이 죽는것이 아니라 사는것이기. 바라오. 살아야 고국에 돌아가서 예쁜 색시도 안아볼게 아니요.》

옆에 앉아있던 1등항해사가 자기 선장의 이죽거림에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대진은 두 외국인에게 묵중한 어조로 대꾸했다.

《산다는것은 곧 자기를 지키는것이요!》

지금껏 아무말없이 침중히 앉아있던 《동산》 호선장이 고개를 들었다.

《서로가 할 이야기는 다한것 같소. 이만합니다.》

구스타프는 서운한 표정을 가시지 못한채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전 10시.

《동산》 호는 예정대로 싼포스항구를 출항하였다.

수십일간의 항행길을 함께 하여온 《동산》 호를 홀로 떠나보내는 미안감때문인지 아니면 걱정때문인지 배웅하는 《유패한 사나이》 호의 배고동소리가 그들의 등뒤에서 오래도록 울리었다.

2

씨몬 필리프의 아이적 꿈은 원래 과학자가 되는 것이었다. 일생에 수많은 발명품을 내놓아 갑부가 되었다던 에디슨은 씨몬이 늘쌍 동심속에 안고 산 동경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그의 운명은 달리되었다.

자그마한 운송점에 명줄을 걸고있던 집안이 기업파산과 함께 덮쳐드는 생활고로 빈곤에서 허덕이자 해병대의 병역을 마치고 돌아온 씨몬은 학문 세계에로가 아니라 생존마당에 뛰어들었다. 돈만이 모든것을 좌우하는 생활의 타류는 씨몬을 점점 범죄의 낭떠러지에도까지 떠밀어갔다.

파산된 아버지의 운송점에서 걸어진 크지 않은 발동선을 타고 야음속의 미씨피피강을 오르내리며 상선들의 재물과 선원들의 돈주머니를 털어내던 그가 경찰들의 추적을 피해 방황하던 끝에 정착한 곳이 바로 여기 동남아시아해역의 이름없는 무인도이다. 말이 무인도이지 실제 이곳은 잘 위장된 해적들의 비밀기지이다.

씨몬은 이곳의 해적무리속에서 손꼽히는 무전수이며 전자도청명수이다. 그만큼 그는 전자기구와 그 장치물들을 뜯금으로 다루었다. 그러나 한 달전에 그의 동료들이 말레싸해협군방에서 어느 한 나라의 어선을 들이치고 강탈해온 이름도 알수 없는 특이한 기구는 아직도 씨몬에게 자기의 속내막을 드러내보이지 않고있었다. 크기가 소형헬

레비존만큼한 그 기구는 형광막이 붙어있는것을 보아서 무슨 탐측기가 분명한데 어선에 타고있던 학자인듯 한 그것의 주인이 총에 맞고 쓰러지면서 까지 두팔로 그러안고있었다는걸 봐서는 대단히 귀중한 물건인것 같았다.

《그래서 빼앗아왔는데 좀 봐주게. 이게 혹시 몇십만팔라어치의 값이 나가는것일수도 있어.》

그 탐측기를 가져온 사람은 씨몬과 동향인인 빌든이었다.

두목의 심복부하인 빌든은 자주 무전실에 나타나 씨몬이 알지 못하는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펼쳐놓곤 하였다. 오늘도 그는 새 소식을 가지고 씨몬을 찾아왔다.

《엇그제 밤 〈스꾸팔리〉 네 께들이 싼포스항구까지 원정했다누만. 빌이가 팬찮았던 모양이야.》

빌든은 자기가 빼앗아온 그 탐측기를 주무르고 있는 씨몬의 곁에 와앉으며 씨부렁거렸다.

《그러니 〈바이킹〉 이 단일이 나하겠는걸. 혹시 우리도 원정으로 내몰지 않겠나?》

덮개를 열어제낀 탐측기의 기관에 눈길을 박은채 씨몬이 이죽거리는 대꾸였다.

《바이킹》이란 씨몬네 해적두목의 별칭으로서 중세기때 악명을 떨친 해적두령을 가리켜 부르던 말이다. 이곳 해역에는 크고작은 수많은 섬들이 널려있는데 바로 그곳에 지난 해적력사에 흔적을 남긴 악한들의 이름으로 불리우는 두목들이 거느린 여러 해적집단이 은거해있었다.

《그러지 않아도 〈바이킹〉 이 〈스꾸팔리〉 네한테 협공을 의뢰했다네. 어제 오전에 〈동산〉 호가 싼포스항을 떠나 말레싸해협쪽으로 오고있다누만. 그 배에 인삼보약이 실려있다네.》

빌든은 담배를 꼬나물고 라이타를 켜댔다. 벌써부터 그한테는 선창에 가득 쌓여있는 그 값비싼 상품이 눈앞에 보이는지 얼굴에 흐뭇한 표정을 짓고 담배연기를 내불었다.

《〈동산〉 호? 어느 나라 배인가?》

《조선배네.》

씨몬의 눈길이 별안간 탐측기의 기관에서 떨어저나와 빌든의 길쭉한 얼굴에로 가뒀었다.

《조선배?!...》

신음소리를 지르듯 씨몬은 괴롭게 뇌이였다.

빌든은 담배연기때문인지 아니면 제 동료의 접먹은 인상때문인지 눈살을 찌프리였다.

《걱정말게. 〈동산〉 호는 군함이 아니니까.》

씨몬은 아예 일손을 털고 빌든옆에 나앉았다.

《일없을가? 그 나라는 군력이 강하다던데... 〈동산〉 호를 다쳤다면 도리어 우리가 화를 당할수 있어.》

《허! 이제 보니 자넨 겁도 어지간하군그래.》

《빌든, 내 말 좀 듣게. 이젠 내가 해병대에 있을 때 직접 목격한 일인데... 언젠가 우리는 동맹국의 해상무력과 함께 조선동해의 공해상에서 합동군사연습을 벌린적이 있었네. 그때 우리 구축함

한척이 그 나라의 령해깊이까지 불법침입하였는데 갑자기 청청하늘에서 요란한 퇴성이 울리지 않겠나. 그러더니 공중에서 붉은색의 빛줄기가 뿜어져 내리는데... 휴— 어찌된것인지 그 구축함은 그 자리에 굳어져 오도가도 못하고말더군.»

《그게 뭘데?...》

《모르지. 그때 우린 그걸 그저 〈붉은 번개〉라고 불렀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빛을 맞을가봐 겁이 나나?》

빌튼은 절반도 채 타들지 않은 담배대를 바닥에 내동댕이치고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씨몬, 안심하라구. 그 〈붉은 번개〉인지 〈빨간 번개〉인지 하는 빛이 아무 하늘에서나 쏟아져내리지는 않을테니까. 여긴 조선이 아니라 말레췌해협이야.》

빌튼은 킬킬거리며 씨몬의 어깨까지 툭툭 쳐댔다.

《〈바이킹〉의 지시네. 무전기정비를 잘해두게. 이제 곧 출동할테니까.》

일망무제한 바다우를 함께 따라다니던 태양도 지친듯 점점 뒤흔어지더니 이제는 아예 서쪽의 수평선우에 앉아 맥없이 빛을 뿌리고있었다. 찌는듯한 무더위가 가해지는 바다의 이 저녁은 《동산》호의 선원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즐거운 휴식의 한때이다. 선원들이 모여앉은 갑판의 여기저기에서는 노래소리, 웃음소리가 흐르고있었다.

하건만 대진은 홀로 현측갑판의 안전란간대에 두손을 짚고서서 배전밀으로 흘러가는 흰 물갈기를 내려다보며 자기의 세계에 잠겨있었다. 그는 매일 이맘때면 조국에 두고온 정아와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있었던것이다. 어느때와는 달리 이번 항행길에 그 처녀가 느닷없이 자기의 뇌리속에 뛰어들어 마치도 눈앞에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듯하는 그 리유를 대진은 아직 가늠이 가지 않았다. 사랑이 열렬하면 마음이 지척이라더니 그래서인지 대진의 생각속에서 떠나지 않는 정아였다.

생물공학연구소의 상급연구사인 심정아를 대진이 처음 알게 된것은 그가 어퇴정 갑판장시절때였다.

어느해 여름날, 그때 대진이네는 훈련중 13호 해구근방에서 날아오는 긴급조난신호를 받게 되었다. 그 근방은 암초가 많은 구역이어서 좀해서는 물고기잡이를 하지 않는 곳이었다.

대진이네가 전속으로 달려간 그곳에서는 뜻밖에도 웬 처녀가 뒤집어진 단정을 부여잡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있었다. 그가 바로 대학을 갓 졸업하고 바다로 현직관측을 나온 애젊은 연구사 정아였다.

대진은 구원된 정아에게 이곳 수역은 위험하니 다시는 들어서지 말것을 권고했다.

그런데도 다음날 정아는 또다시 그곳에 나타났다.

대진은 이번엔 화를 내었다.

《연구사동무, 이건 뭐 놀음입니까? 당장 돌

아가시오!》

《해병동문 저한테 그런 명령을 할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전 여기서 놀음을 하고있는것도 아니구요.》

정아는 도리어 제편에서 깔끔하게 내쫓으며 자기가 탄 단정에 견인고리를 걸려는 대진의 손을 땀째 뿌리치기까지 하였다.

대진은 그만 아연해졌다. 생김이 아련하지만 성격은 여간만 도담한 처녀가 아니었다.

《허! 이것 참 야단이군. 총각이 처녀를 계속 안아낼수도 없구. ...》

대진의 능청에 어퇴정의 갑판우에서는 해병들의 웃음이 터지었다.

귀뿌리가 빨갛게 달아오른 정아는 대진이에게 두눈을 흘기었다.

《걱정마세요. 그런 일은 다시 없을테니까.》

사실 어제 정아는 곱등어들의 뇌파관측을 위해 암초구역에까지 들어갔다가 소용돌이에 단정이 뒤집혀져 그런 봉변을 당했던것이다.

돌아가자느니 안 가겠다느니 하며 둘이 서로 옥신각신하는 때 기지로부터 어퇴정으로 다음과 같은 명령이 전신으로 하달되었다.

《...갑판장 김대진동무가 책임지고 심정아연구사의 해양연구사업을 방조해줄것. ...》

물론 그 기일은 길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부터 맺어진 그들의 인연은 그후에도 편지로 이어졌고 대진이 제대되어 해운대학을 다닐 때에는 차츰 련정관계로까지 승화되었다. 그때는 정아가 단독으로 큰 연구과제를 맡아안은 실력있는 과학자로 성장한 뒤였다. 그러나 대진은 지금까지도 정아가 연구하는것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무엇에 필요한지 아직 다는 모르고있었다. 다만 이번 항행을 떠나오기 전에 그의 연구실에 한번 들어가본적이 있을뿐이었다.

처녀는 그때 대진을 무슨 알지 못할 장치물앞에 앉히고 그의 머리우에 옛날 무사들이 쓰던 투구처럼 생긴 《모자》를 씌워주었다.

《보세요. 저건 바로 동무의 뇌파형이에요.》

정아가 가리켜보이는 장치물의 화면에는 가는 톱날같은 파형이 파란색을 띠고 흐르고있었다. 처녀는 마치도 그것이 소중한 발견인듯 정성스레 기억장치에 입력시키고있었지만 대진의 입에서는 뻘뻘해진 소리가 튀어나왔다.

《허! 그새 많이 발전했소. 7년전에 진행하던 물고기뇌파관측이 오늘엔 사람의 뇌파관측으로 도약했으니 말이요.》

대진의 이 말에 정아는 웃음을 지었다.

《동무야 늘 저의 곁을 떠나있지 않나요.》

《그러니 애인의 뇌파도 동무의 연구대상이라는 거겠소?》

이 말에도 정아는 생글생글 웃기만 하였다.

정아가 연구를 완성했다는 소식을 듣고 대진이 꽃을 들고 찾아갔을 때였다.

《고마와요. 하지만 전 동무가 동남아시아행을 끝내고 돌아온 다음에 이 꽃을 받겠어요.》

《우리가 동남아시아로 떠나는걸 동무가 어떻게 아오? 방금전에 선장동지와 내가 관리국에 올라가 받고 온 과업인데...》

《호호... 그뿐인줄 아세요? 〈동산〉 호는 닷새후에 출항하지요. ... 동무가 이제 조국을 떠나지만 우리는 서로 생각속에, 마음속에 함께 있게 될 거예요.》

정아의 그 말은 사실이였다. 조국을 떠나오는 날부터 지금까지 대진의 생각과 마음속에는 언제나 정아가 자리잡고있었다. 지금도 대진은 마음속으로 처녀와 다정히 속삭이고있었다.

(정아, 우리가 헤어진지도 어느덧 한달이 넘었구만. 왜선지 이번 항행길엔 동무가 더욱 그림구만.

우린 지금 말레짜해협을 통과하고있소. 이제 이 해협을 지나 뱃길만까지 가면 우리의 항행은 끝나게 되오. ...)

이때 불현듯 감시소에서 다급한 웨침이 터지였다. 《좌현 4 000! 정체불명의 선박 발견! 우리한테로 접근해오고있다.》

뒤이어 선원 한명이 다급히 대진이한테로 달려왔다.

《부선장동무, 선미쪽으로도 정체불명의 배들이 다가옵니다.》

정말 2척의 배가 무척 빠른 속도로 《동산》호를 따라오고있었다.

《국적을 밝히라고 하시오.》

인츰 《동산》호의 계양줄에 기발신호가 올랐다. 그러자 그에 대한 화답인듯 뒤따르던 배에서 목화송이같은 흰 연기가 물씬 피어오르더니 《동산》호의 마스트우에서 병곳 섬광이 일었다.

《파르릉-》

한번, 또 한번...

(해적들이다!)

대진은 다급히 조타실로 달려갔다. 그곳에서는 선장이 선내확성기의 마이크를 쥐고 연방 큰소리를 터치고있었다.

《무전실! 무전실! 빨리 조국에 알리오. 해상좌표 ×-037-2881...》

그러나 확성기에서 울리는 통신장의 대답은 너무도 절망적이었다.

《선장동지, 무전설비들이 모두 마비되었습니다. 방금전에 날아와 더진것이 전자기파포탄입니다.》

《뭐라구?!》

선장의 주름진 얼굴이 무섭게 이그러졌다.

전자기파포탄이 터지며 방출하는 강력한 전자기파가 마스트의 안테나를 타고들어와 무전설비의 전자장치들을 모두 파괴하였으니 《동산》호의 처지는 너무도 치명적이다. 또다시 감시소에서 터지는

웨침소리가 팽팽한 조타실안의 공기를 깨뜨렸다.

《배들이 우리를 포위합니다.》

선장의 두눈에는 번개불이 일었다.

《절대로 침로를 바꾸지 말것!》

《알았습니다. 침로 곧바롯!》

별안간 바깥에서 기관총의 위협사격소리가 두어번 터지더니 확성기로 울리는 귀설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산〉 호! 그 자리에 멈춰서라! 배를 세우지 않으면 사격하겠다.》

창박을 내다보니 《동산》호의 좌우현측에는 벌써 해적선들이 나란히 붙어서 달리고있었다.

《기관실! 기관 전속으롯!》

그런데도 해적선들은 점점 더 가까이로 접근해들었다.

《한놈도 우리 배에 오르게 해서는 안되오. 부선장! 우현을 말소. 난 좌현측으로 나가겠소.》

《알았습니다!》

대진은 선장을 뒤따라 밖으로 뛰쳐나갔다.

3척의 해적선은 《동산》호의 량측면과 뒤에 붙어서 고함을 질러대며 따라오고있었다. 대진이 달려간 우현측에는 이미 해적선이 《동산》호와 50여메터가량의 간격을 두고있었다. 해적선의 갑판우에는 얼룩무늬가 찍혀진 전투복차림의 해적들이 《동산》호를 향해 총구를 휘둘러대며 제가끔 무어라 고아대고있었다. 해적선의 상갑판우에는 배낭식추진기를 등에 진 수십명의 해적들이 이쪽을 노려보고있었다. 이제 해적선이 조금만 더 가까이 접근하면 《동산》호의 갑판위로 날아들판이다.

대진은 조소의 눈길로 그놈들을 묵묵히 쏘아보았다. 이제 《동산》호의 선체둘레에 방위마당이 형성되면 놈들의 침입기도는 좌절될것이다. 이놈들, 어디 덤벼들어봐라!

곧 배전실쪽에서 웅글은 전기음이 울리였다. 때를 같이하여 《동산》호에로 다가들던 오른쪽 해적선이 별안간 흠칠 선체를 떨더니 요란한 기관소리를 터치였다. 아무리 기운을 썼됐자 더는 《동산》호에로 다가들수 없는지라 해적선은 선수를 앞방향으로 돌리였다. 《동산》호의 우현측에 방위마당이 형성되어 더는 접근해올수가 없었던것이다.

그 방위마당이란 선박의 항행시 바다우에 떠다니는 얼음산이나 여러 방해물들이 선체에 부딪치지 못하게 자기적힘의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로 물면우에 형성되는 특수한 힘마당이다.

저들의 최신식무장장비와 숙달된 략탈능력을 믿고 오만하게 덤벼들던 해적들은 뜻밖에 조성된 《동산》호의 대응에 악이 난듯 기관총사격을 가해왔다. 배의 좌현쪽에서도 자지러진 총성이 울리였다. 그곳에서도 방위마당때문에 해적선이 다가들지 못하는 모양이었다.

《어리석은 놈들, 우리를 어찌보겠다구?...》

《저놈들이 우리 〈동산〉 호를 잘못 보았지.》
이때 선원 한명이 다급하게 대진이한테로 뛰어왔다.

《선장동지가… 중상을 당했습니다.》

《뭐요?!》

대진이 좌현측으로 달려갔을 때 선장은 의사의 무릎위에 머리를 얹고 갑판위에 누워있었다. 정복자락이 갈기갈기 찢어진 그의 복부부위는 시뻘건 피로 얼룩져있었다. 선장은 고통으로 얼굴을 찡그린채 대진을 힘겹게 올려다보고있었다.

《부선장… 배를 부탁하오. 절대로… 우리 배를 저놈들한테…》

그는 잦아드는 목소리로 겨우 몇마디 하고는 의식을 잃었다.

《선장동지!—》

우르릉— 우르릉—

이번에는 《동산》 호의 상공에서 요란한 발동소리가 터지었다.

《부선장동무, 저기…》

의사가 가리키는 하늘로 눈길을 든 대진은 온몸이 굳어졌다. 언제 떠올랐는지 소형직승기가 《동산》 호의 마스트를 스칠듯이 날고있었던것이다.

《항복하라!—》

《배를 세우라!—》

직승기의 확성기에서 연방 위협적인 고함이 울려나왔다. 해적들은 물우에서의 침입이 실패하자 공중으로 날아내릴 차비였다.

분노한 대진은 분연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두눈에는 섬광같은 불씨가 튀기었다.

《이놈들! 감히 누구를…》

대진은 선장의 발치에서 튀구는 휴대용확성기를 움켜잡고 조타실의 지붕으로 달려올라갔다.

《부선장동무! 위험합니다!》

해적들의 시야에 몸을 내댈 대진을 띠여본 선원들이 경악해서 소리쳤다. 해적선들에서 울리던 총소리와 고함소리도 멎었다.

대진은 《동산》 호를 에워싸고 따라오는 해적선들과 하늘에 뜬 직승기를 엇갈아 쏘아보며 휴대용확성기를 입가에 가져갔다.

잠시 주위에는 엄엄한 정적이 흘렀다.

《내 말을 똑똑히 들으라! 어느 놈이건 우리 배에 발을 붙이면 절대로 살아서 돌아가지 못한다!》

직승기의 해적들은 무서워 선뜻 뛰어내릴념을 못했다. 원래 나쁜짓을 하는 놈들일수록 겁은 더 많은 법이다.

불시에 좌현측의 해적선이 도망치듯 빠른 속도로 달려나갔다. 그 배가 《동산》 호의 침로앞쪽을 가로지르며 선회할 때에야 대진은 해적들의 흥심을 알게 되었다. 아니나다를까 탐지수의 웨침이 울리었다.

《기뢰 발견! 전방 1 200, 5개의 자석기뢰가 방

금 부설…》

침로가 막힌 《동산》 호는 해적선들의 포위속에서 부득불 항행을 멈추지 않으면 안되었다.

3

이밤도 수도는 생의 약동으로 불야성을 펼치고 있건만 여기 대동강기슭의 관리국고층청사는 침울한 적막속에 묻혀있었다. 엇그제 싼포스항구를 출항한 《동산》 호와의 저녁교신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있었던것이다.

《〈동산〉 호! 〈동산〉 호! 나 〈대동강〉, 응답하라. …》

안타까움에 울먹이는 무전수처녀들의 목소리도 이제는 쉬어버린듯 했다. 그러나 《동산》 호에서는 여전히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무슨 일인가? 무전기고장? 아니면 사고?…

인터넷망으로 동남아시아해역의 위성관측자료를 호출했으나 《동산》 호에 대한 이렇다할 정보는 알수가 없었다.

파연 《동산》 호는…

성에서까지 일군이 내려와 무전수처녀들의 등뒤를 떠나지 않고있었다.

자정이 가까와올무렵, 근심과 우려가 점점 더 짙어가는 이곳으로 낮설은 한 처녀가 찾아왔다.

몸매가 단아한 미모의 그 처녀는 의아히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생물공학연구소 상급연구사 심정아라고 자기를 소개하였다.

정아는 찾아온 용무를 묻는 관리국장의 무뚝뚝한 물음에 잠시 주뚱거리더니 파리한 얼굴을 들었다.

《무슨 대책이 없을까요? 지금 〈동산〉 호는 말레싸해협근방에서 해적들의 집단적인 습격을 받고 있습니다.》

《?!》

사람들은 모두가 경악실색하였다. 그래도 리성을 잃지 않은듯 관리국장이 가볍게 정아를 질책하였다.

《허, 동문 무슨 꿈을 꾸다 온게 아니요?》

《제 말을 선뜻 믿으려 하지 않을줄 압니다. 저 역시 이 일이 꿈이었으면… 〈동산〉 호는 해적들이 터뜨린 전자기파포탄에 무전기들이 모두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놈들의 포위속에서 항행까지 멈추고…》

정아는 더 말을 잇지 못하고 가는 흐느낌을 터치며 얼굴을 싸쥐었다.

방안의 분위기는 자못 침중하였다.

한참후에야 성일군이 흐느끼는 정아한테로 다가와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연구사동무, 진정하오. 우리도 그런 우려가 없는것은 아니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소. 무전기가 다 파괴되었다면서 〈동산〉 호의 현정황을 동무가 여기서 어떻게 아오?》

방안사람모두의 눈길이 의혹을 담고 정아에게로 쏠리었다.

정아는 대답을 못하고 무겁게 고개를 떨구었다. 물기어린 그의 눈길은 자기가 들고온 자그마한 《트렁크》에로 가뒀었다.

수년간에 걸쳐 자기의 땀과 지혜로 이루어진 창조품, 바로 저 창조품을 위해 바쳐진 정아의 고심 어린 탐구와 힘에 부치는 노력은 그 얼마였던가. 정아가 대진에게 준 그 시계도 정아의 창안품이었다. 그것은 일반시계가 아니라 사람의 대뇌의 생물전기파를 증폭하여 먼 거리에 보낼수 있는 일종의 송신기였다.

정아는 《트렁크》를 몇번이나 쓰다듬다가 그것을 힘겹게 탁자위에 올려놓았다. 그 《트렁크》는 바로 사람의 대뇌에서 발산하는 생물전기파를 증폭하여 먼 거리에서 보내오는것을 받을수 있는 특수한 기구였던것이다.

씨몬은 《동산》호에 대한 습격이 시작되자 본래부터 품고있던 위구심이 곱절이나 더해지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다. 달려드는 놈들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한다는 《동산》호의 경고를 들었을 때 목까지 움츠리었던 씨몬이다. 지금껏 자기네가 대적해온 선박들이란 때리면 맞고 빼앗으면 두손 털고 나갔는 맥없는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동산》호는...

그렇다고 이것이 씨몬의 심신을 휘감고있는 불안의 전부는 아니었다. 무슨 조화인지 알지 못할 빌든의 그 탐측기가 갑자기 살아나서 뻑-뻑-신포음을 울리기 시작하였던것이다. 《동산》호습격과 때를 같이하여 탐측기가 울리는 신포음, 우연이라면 이것은 너무도 기이한 현상이다. 그러나 씨몬은 우연을 믿지 않았다. 뭔가 예감이 불길했다.

그런데도 무지한 빌든은 여전히 허장성세이다. 《동산》호를 따라가면서 기승이 나서 고아대다가 이제 와서는 닭 쫓던 개신세가 된 주제에 그래도 득의만면해가지고 무전실로 찾아들어와 희뽀개객담을 늘어놓는다.

《씨몬, 저걸 좀 보라구. 얼마나 멋진 장면인가.》

빌든이 가리켜보이는 시창밖으로 해적선들에서 비쳐대는 탐조등의 불빛속에 묻혀있는 《동산》호의 자태가 환히 바라보였다. 선체에 수십개의 총탄자국이 나있는 《동산》호는 물위에 떠서 묵묵히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우리는 이번에 아주 푸짐한 향연을 벌리게 될걸세. 바로 저 《동산》호가 그 향연의 요리감이지. 이를테면 칼도마위에 올라있는 큼직한 도미라고 해야 할지. ...》

《나한테는 상처입은 상어처럼 느껴지는걸.》
《상어라면 그 고기맛은 더 팬찮을거네.》

빌든은 전투복주머니에서 작은 꼬냐크병을 꺼내 입안에 쏟아부었다.

《카- 이제 아침이면 그 맛을 보게 되겠지. ...》

씨몬은 마뜩지 않은 눈길로 빌든을 쳐다보았다.

《인삼보약 말인가? 그걸 세뿔으로 나누면 대체 우리한테 차례질것이 얼마나 되겠다구. ...》

술병의것을 마저 비운 빌든은 비웃음을 지었다.

《자넨 여전히 천진하구만. 이번 협공이 뭐 인삼보약 몇상자나 손에 넣자는것인줄 아나?》

《?...》

《이제 그 보약상자들이 코카인상자로 둔갑하게 되네. 벌써 〈바이킹〉의 금고에는 마약상자들을 찍은 사진이 준비되어있으니까... 그다음 그 사진들이 이러저러한 경로를 거쳐 여러 나라 신문들에 실리게 되지. 〈조선의 무역선 마약을 밀수〉 이런 표제를 달고 말이네.》

빌든은 씨몬에게 어깨까지 으쓱해보이고는 문가로 걸어갔다. 그러는 제 동료의 뒤통수를 씨몬은 아니꼽게 치며보았다.

《대체 우리한테 그따위 장난질이 왜 필요한가?》

《돈을 위해서지, 돈!...》

방을 나서다말고 다시 돌아선 빌든은 씨몬에게 야릇한 웃음을 지어보였다.

《돈이라면 사람까지도 파리잡듯 하는 우리가 아닌가. ... 씨몬, 이번 일이 성공하면 우리한테 막대한 돈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있다네.》

《흥!》

씨몬은 이마살을 찌프렸다.

그러니 이번 《동산》호습격은 단지 재물략탈에만 목적이 있는것이 아니었다. 아마도 조선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는 어떤 정부가 그 나라의 대외적인 영상을 흐리게 할 흥심으로 비밀리에 해적들에게 돈을 뿌린 모양이다. 하지만 그 검은 돈은 필경 《바이킹》이나 《스꾸팔리》같은 몇몇 작가들의 주머니에나 들어갈것이다.

씨몬은 고개를 떨구고 머리카락을 움켜쥐었다. 자신에 대한 혐오감이 다시금 그의 내심에서 꿈틀거렸던것이다. 매일 밤 무전실에 홀로 박혀 반도 체라지오에서 울려나오는 해적들에 대한 세계의 규탄을 들으며 치욕으로 달아오르는 얼굴을 싸쥘던 씨몬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돈이라는 울가미에 목이 매여 정치사기군들의 인형노릇까지 하고있으니 자신의 처지가 가궁스럽기짝이 없었다. 더는 이런것을 못하겠다, 더는...

뚜격... 뚜격...

자기앞으로 다가오며 무겁게 울리는 발자국소리에 씨몬은 슬며시 고개를 들었다. 순간 그의 두눈은 공포로 휘딱 뒤집혀졌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 자기앞에 떡 버티고선 사람은 《동산》호의 조타실지붕위에 올라서서 해적들에게 경고하던 그 사람이었다.

《살려거든 이성있게 처신하오.》

그는 씨몬을 쏘아보며 낮으나 엄하게 오금을 박았다.

함께 따라들어온 다른 사람이 어느새 무전기앞에 앉아 조절기를 돌리다가 침통한 눈길을 돌렸다.

《부선장동무, 놈들이 무전기의 중요부속을 빼버렸습니다.》

놀란것은 그들뿐이 아니었다. 씨몬도 자기의 무전기에서 부속품이 빼여진것을 모르고있었다.

《그 부속품은 바로 나한테 있소.》

어느새 문가에 나타났는지 《바이킹》이 음험한 웃음을 짓고 서있었다.

4

《동산》호의 불미한 소식을 안고 관리국으로 찾아갔을 때까지만도 정아는 덧쌓인 불안과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었다. 그러나 그가 성일군과 함께 해당 기관으로 올라가 군복입은 인민군장령들의 마중을 받았을 때 그 무엇인가 거대한 힘이 대진이네를 지켜줄것이라는 가슴설레임이 정아의 심장을 뛴다.

《현재 〈동산〉호의 위치좌표를 알고있습니까?》

장령들과 함께 있던 젊은 군관이 정아의 설명을 듣고 전지구위치탐지체계의 컴퓨터를 조종하였다. 하지만 《동산》호의 위치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마 놈들의 전파장애가 심한 모양이었다.

《그럼 제3방안을 써야겠군. 명령서를 작성하오.》

《알았습니다.》

장령은 다시 정아에게로 고개를 돌리었다.

《이제 해적들이 모두 혼쭐날게요. 하늘에서 붉은빛이 내려와 그놈들을 타격할거요.》

《그런데 그놈들은 좀처럼 〈동산〉호의 곁에서 물러서지 않고있답니다.》

《일없소 우리의 그 빛은 높은 지향성을 가지고 놈들만 끌라 때리오.》

《여기서 그곳까지는 수천키로메터인데...》

정아가 선뜻 믿으려 하지 않자 젊은 군관이 빙그레 웃으며 귀뺨하였다.

《우리의 그 빛은 일반적인것이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곳 대기권에서 발생하는 대전성을 띤 빛이지요.》

《대전성?!》

《예, 연구사동무도 아시다싶이 대기권은 일정한 높이이상은 모두 이온층으로 이루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곳 상공의 이온층에서 플라스마를...》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빛은 플라스마흐름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번개도 플라스마형태가 아닙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지구상의 임의의

상공에 특수한 빛선을 쏘아 그곳에서 플라스마의 생성을 가속화시키고 그 흐름을 조종하여 그것을 요구하는 대상에 집초시킬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빛을 피할 곳은 이 세상에 없겠군요. 지구는 플라스마로 된 이온층에 둘러싸여있으니 말이에요.》

군관은 말없이 웃음을 짓고 고개를 끄덕이었다.

정아는 곧 자기의 《트렁크》와 마주 앉았다. 이밤도 해적들의 포위속에서 조국을 그리며 잠 못 들었고을 대진이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고싶었던것이다.

기구를 동작시키던 정아의 얼굴이 갑자기 새하얗졌다.

《무슨 일이에요?》

《지금 대전동무가 해적들속으로 들어갔어요.》

《바이킹》은 천천히 대진이앞으로 다가왔다. 뒤따라 들어온 빌든과 여러명의 해적들이 우르르 대진이네를 둘러쌌다.

《이렇게 울줄 알았소. 하지만 당신들한테 우리의 무전기를 빌려줄수 없게 됐으니 이것 참 유감이요.》

대진은 말없이 경멸의 눈초리로 그자를 묵묵히 쏘아보았다.

《자, 결심하시오. 당신들의 지금처지는 아마 귀신이나 알고있겠는지. ... 그러니 우리의 요구에 응하는 수밖에 다른 방도는 없소.》

《아니! 단 한놈이라도 〈동산〉호에 오르는 걸 우린 용납하지 않을것이지요.》

《바이킹》은 비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혹시 그 무슨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아니요?》

《바라는게 아니라 믿고있소. 기적이 아니라 우리 조국의 자위력을 말이지요.》

대진은 강건히 《바이킹》앞으로 다가섰다.

《지금 당신들의 이 행위는 세계의 평화와 인류에 대한 극악한 범죄요. 마지막으로 경고하오. 우리에게 사죄하고 당장 물러가시오. 만약 우리의 경고에 응하지 않으면 당신들은 우리의 무자비한 징벌을 받게 될것이지요.》

《바이킹》의 입가에는 뽕소가 비끼었다.

《나 역시 〈동산〉호에 새벽 5시까지 마지막 기회를 주겠소.》

그자는 능글맞게 웃으며 대진이에게 길을 내주었다. 무전실을 나서는 대진이네의 뒤를 해적들이 우르르 따라섰다.

《바이킹》은 손을 들어 부하들을 제지시켰다.

《내버려두라. 어차피 이제 날이 밝으면 모두가 고기밥이 될테니까.》

당당하게 걸음을 옮기는 대진의 마음속에서는 정아의 목소리가 울리고있었다.

(웁아요, 대전동무. 힘을 내세요. 조국은 언제

나 동무들곁에 있을거예요.)
(고맙소, 정아.)

그러니 새벽 5시면 어느쪽이든 결판이 나겠구나. 우리냐 아니면 《동산》호냐. ...

모두가 무전실에서 나가자 씨몬은 또다시 위구에 싸여 맥없이 의자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다시금 조용해진 방안에 레의 그 신비한 신호음이 단조롭게 울리고있었다. 이전보다 더 크게 울리는 그 소리를 왜 이제야 느끼게 되는지... 하긴 지금까지 이 씨몬은 제정신이 아니었지.

탐측기에로 느릿이 눈길을 주던 씨몬은 후다닥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는 성급히 그앞으로 다가섰다.

기구의 형광막에 지금 연록색의 가느다란 톱날 같은 파형이 새겨져있었던것이다. 저런 파형을 언제 보았더라. ...

삭막해진 기억을 더듬던 씨몬의 눈앞에는 중학생때 먼 친척벌되는 학자의 실험실에서 오셀로그라프의 원형화면에서 본 톱날식파형이 떠올랐다.

《아! 생물전기파!》

틀림없다. 저것은 바로 사람의 뇌에서 발산하는 생물전기파의 모형이다.

씨몬은 그때 학구열에 들며 그 학자의 설명을 귀담아들던 일도 기억하고있었다.

... 생명활동과정에 생물체의 매개 세포는 끊임 없는 신진대사를 진행하는데 그 과정은 곧 분자, 전자들의 운동이다. 생물전기의 발생은 바로 그 분자, 전자들의 운동에 의한것이다. 특히 사람의 대뇌에서 산생되는 생물전기는 그 진동수가 비정상히 빠르고 진폭이 작아 보통계기로는 측정할수가 없다. 이런 생물전기파를 증폭하여 무선전파로 먼 거리에 보낼수 있다. ...

그러면 이 신비한 생물전기파는 어디에서 누구한테로 날아오는것일까? 저 생물전기파의 주인은 지금 이곳 실정을 손금보듯 알고있었다. 저 생물전기파의 발신지가 평양이라면. ...

여기에까지 생각이 미친 씨몬의 두눈이 별안간 화등잔만 해졌다.

(혹시... 그 붉은 번개가?!...)

씨몬은 공포로 몸을 떨었다. 그의 눈앞에는 퇴성과 함께 하늘에서 쏟아져내리던 그 붉은색의 빛줄기가 육박하듯 안겨들었다.

붉은 번개! 새벽이면 그 빛이 여기로 내려칠수도 있다.

씨몬은 허둥거리며 무전실밖을 뛰쳐나갔다.

《빌든! 어데 있어?》

《뭐?! 〈붉은 번개〉?... 자식, 미쳤군.》

빌든은 씨몬의 말을 귀등으로 흘리며 기관총을 새 탄띠를 물리었다.

《여보게, 빌든. 자네 저 소리가 들리지 않나?》

그것은 《동산》호에서 울리는 노래소리였다.

《저런 행동은 강자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네. 우린 지금 상대를 잘못 건드리고있어. 이제 날이 밝으면 〈붉은 번개〉가 여기를 쳐. 빌든, 도망치자구. 내 패속정을 준비해놓았네.》

씨몬은 빌든의 팔소매를 잡아끌었다. 그러자 빌든은 씨몬의 손을 우악스레 뿌리치고 두눈을 부라리었다.

《자식, 우리의 계를을 잊었어? 도망치다가는 개처럼 맞아죽어.》

《개처럼 맞아죽을건 바로 자네처럼 경거망동을 부리는것들이야. 싫으면 그만두라구. 나 혼자라도 갈테니까.》

《도망치겠다고? 그러면 내가 너를 씹죽이겠다.》

《흥!》

씨몬은 우직한 빌든에게 코웃음을 쳐보이고는 훌쩍 선미쪽의 어둠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씨몬! 서라!》

빌든은 허둥거리며 씨몬이 사라진 쪽의 허공에다 기관총을 쏘아댔다.

갑자기 터지는 기관총소리에 놀란 해적들이 여기저기에서 뛰쳐나왔다.

《뭘야?!》

《씨몬이 도망친다!》

뒤이어 선미쪽에서 패속정의 기관소리가 울리었다. 해적들이 몰려갔을 때 벌써 패속정은 빠른 속도로 희끄무레한 수면우를 미끄러져가고있었다.

《개자식!-》

독이 오른 빌든은 이발을 사려물고 멀어져가는 패속정을 향해 기관총사격을 퍼부어댔다.

뚜루룩- 뚜루룩-

5

밤의 장막을 밀어내며 밝아오는 려명과 함께 수면우를 지긋게 덮고있던 어둠도 서서히 가셔지기 시작하였다.

《윤패한 사나이》호의 구스타프선장은 긴장한 야간항행으로 지친 몸을 비척이며 조타실을 나섰다.

선수갑판에는 벌써 1등항해사가 나와 망원경으로 배의 전방과 좌우측해상을 둘러보고있었다.

《어때? 오늘의 우리 신수가 팬썰을것 같은가?》

《글쎄요. ...》

1등항해사는 애매하게 한마디 할뿐이었다. 수척한 얼굴에 비낀 침울한 표정으로 하여 그의 안색은 아직도 어둠이었다. 말레싸해협이 다가올수록 불안이 짙어가는것은 《윤패한 사나이》호 선원들모두의 공통된 심리였다.

선장은 시름겨운 한숨을 내그었다. 생각할수록 자신이 가궁스럽고 화가 치미는것을 어쩔수가

없었던것이다. 싼포스항구에서 《동산》호를 떠나 보낼 때 그들의 단독항행을 우려했던 자기네가 지금은 이렇게 울며 겨자먹기로 이 불길한 바다길을 홀로 가지 않으면 안되게 된 구스타프였다.

그처럼 하느님믿듯 했던 《알프스》호는 《유쾌한 사나이》호를 어떻게 대해주었던가.

《우리를 기다려 예정출항까지 미루었다니 안됐소만 우린 여기에서 한 달포쯤 휴식하기로 했소.》

25만톤급의 초대형선박의 선장은 같은 직급의 《유쾌한 사나이》호 선장을 자기네 배 선원대하듯 하였다.

《마음을 넓게 써주십시오. 우리는 여기서 달포씩이나 머물러있을 처지가 못됩니다.》

《우리 선원들은 항행으로 모두 지쳐있소. 그러니 당신네를 생각할 겨를이 없지.》

구스타프는 혀를 깨물며 돌아왔다.

《동산》호와 동행하지 못한 뼈아픈 후회, 큰배를 믿다가 궁한 처지에 빠진 자신에 대한 한탄, 힘이 없어 당하는 굴욕감. …

함께 따라갔던 1등항해사도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어찌겠습니까. 아마 이것도 다 신의 뜻인가 봅니다. 혹시 알겠습니까. 〈동산〉호가 앞서갔으니 우리가 화를 면할런지… 어디 운명에 맡겨봅시다.》

그래서 할수 없이 행운을 바라며 뒤늦게 싼포스항을 떠난 《유쾌한 사나이》호이다.

《이보게, 폴. 침로선택을 잘해보게. 하늘이 보살펴주겠지. 난 아침식사를 하겠네.》

구스타프는 자기 방이 있는 쪽으로 무거운 걸음을 내디디었다. 이때 감시소에서 새된 목청이 터지었다.

《전방 2 000! 패속정 발견!》

구스타프는 불에 덴듯 와찔 놀라며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정확한가?》

당황한 선장은 감시소를 올려다보며 신책하였다.

《잘 살펴보게. 해적들일수 있어.》

감시원은 망원경을 내리우고 선장에게 소리쳤다.

《한척입니다. 우리한테 흰천을 흔들어보입니다. 아마 조난당해 표류하는것 같습니다.》

《선원들을 모두 갑판으로 불러내라구.》

구스타프는 마음이 긴장해졌다. 말페싸해협을 가까이에 두고 나타난 징조가 불길했던것이다.

《유쾌한 사나이》호의 갑판우로 끌어올린 그 패속정안에는 피투성이가 된 웬 젊은 사나이가 누워있었다.

《당신은 누구요?》

그 사나이는 대답대신 힘겹게 팔을 내저었다.

《빨리 배를 멈추시오. 더 나가면 안됩니다. 전

방 5마일근방에 우리 동료들이… 해적들이…》

《해적?!》

때를 같이하여 새벽하늘에 빙곳 섬광이 일더니 그들의 머리우에서 웅글은 퇴성이 울었다.

모두의 눈길이 하늘로 향해졌다.

《아, 저기…》

1등항해사가 가리키는 머리우로 선원들은 눈길을 모았다. 고공 1만미터정도의 높이에서 여러개의 눈부신 빗줄기들이 뻗어내리는 광경이 눈에 띄었던것이다.

그 빗줄기들은 붉은색의 눈부신 광채를 뿌리며 《유쾌한 사나이》호가 향해가는 앞쪽으로 뻗어내리고있었다.

별안간 피투성이사나이가 두팔을 허둥거리며 고향을 질러댔다.

《〈붉은 번개〉요, 〈붉은 번개〉!…》

그것은 틀림없는 빗줄기들이었다.

대진은 하늘을 울리는 퇴성과 함께 나타난 여러 갈래의 붉은색 빗줄기들이 자기네의 머리우에서 뻗어져내리는 광경을 똑똑히 보고있었다.

앞서 뻗어내린 빗줄기가 가닿은 곳은 《동산》호의 침로를 가로막고있는 기뢰들이 있는 곳이었다.

붉은 빗줄기들이 차례로 기뢰들에 가닿을 때마다 수면우에서는 연방 물기둥이 치솟았다.

팡!— 짜팡!—

요란한 폭음이 바다를 진감했다.

드디어 《동산》호의 침로가 열리었다.

대진은 선내확성기의 마이크를 입가에 가져갔다.

《기관시동! 전속 앞으로!》

요란한 동음을 울리며 《동산》호는 다시 앞으로 내닫기 시작하였다.

《동산》호를 에워싸고 오만하게 날뛰던 해적선들에서는 삼시에 아비규환이 일어났다. 하늘에서 울리는 퇴성과 함께 연방 뻗어져내리는 빗줄기들을 보고 공포에 질린 해적들은 모두가 갈팡질팡하였다. 붉은 빗줄기를 피하려고 해적선들은 《동산》호의 포위환을 풀고 제가꿈 훌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때를 기다렸다는듯 《동산》호에서 제일 먼저 떨어져나간 해적선 한척으로 또 하나의 빗줄기가 날아내리었다.

짜르릉!—

하늘과 바다를 들었다놓는듯 한 요란한 퇴성. …

갑자기 해적선에서는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다. 갑판우로 갈팡질팡 뛰어다니던 놈들, 미친듯이 조타를 잡아둘리던 놈들모두가 그 자리에 나가너부러졌다.

기관소리가 멎은 해적선은 그 자리에서 오도가도 못하고있었다.

《부선장동무, 저놈들이 정말 혼쭐나는군요.》

《야! 우리한테 저런 신비한것이 있었됐군요.》

《허허… 혹시 알겠소? 저보다 더한것도 있을런지. …》
대진의 숙연한 눈길은 붉은 노을이 광활하게 펼쳐진 저 멀리 동북쪽하늘가에로 향해졌다. 바로 거기에 조국이 있다.

지금 뛴고있는 그의 가슴속에 급류를 타고 고패치는것은 위대한 힘을 지닌 조국에 대한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이 가져오는 삶의 희열이었다.

(조국… 정아. 지금 나는 어머니조국의 위대함을 온몸으로, 온뉘으로 절감하고있소.)

(대진동무.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사랑을 그 위대한 어머니가 꽃피워주고 지켜주고있어요.)

(웁소, 조국의 강대한 군력이 있기에 우리의 존엄도 영예도 있는것ियो.)

(그리고 우리의 휘황한 앞날도. …)

빌든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자기가 지금 꼭 악몽속에서 헤매이는것만 같았다.

또 누구네 배를 때리는지 붉은 노을 비낀 하늘에서 요란한 굉음이 울리었다. 뒤이어 주변을 환히 비치며 뻗어져내리는 밝은 빛줄기. …

이번엔 《스꾸팔리》네 배가 그 자리에 굳어졌다.

다음은 우리 차례다! 빌든은 허둥거리며 악마구리 꿇듯 하는 갑판의 여기저기를 뛰어다녔다.

《〈바이킹〉! 〈바이킹〉! 어데 있소?—》

불시에 드센 손아귀가 빌든의 뒤통미를 집게처럼 움켜쥐었다. 《바이킹》이었다.

《계집처럼 고아대지만 말고 빨리 단정을 내려!》

그들이 허둥거리며 단정으로 옮겨탔을 때 또다시 머리위에 혼을 뽑아내는듯 한 요란한 퇴성이 울리었다.

빌든은 온몸을 부르르 떨며 두눈을 꼭 감았다. 이번에 뻗어내리는 저 붉은빛이 자기네 배를 향한것임을 그는 모르지 않고있었던것이다.

《하느님맙시사, 제발…》

빌든이 외우는 주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곁에서 번쩍이는 화광과 함께 단정이 무슨 힘엔가 떠밀려가랑잎처럼 홀날리었다. 그통에 비둔한 《바이킹》은 단정에서 뿌리위져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있었다. 하느님을 외워서인지 다행히도 빌든의 몸은 단정에 실려있었다.

지옥의 수역에서 벗어난 빌든이 얼혼이 빠진 눈길로 바라보는 그곳에는 방금전까지 기세를 부리던 3척의 해적선이 모두 숨죽어있었다.

갑판위에 너부러져있는 동료들의 모습을 보며 빌든은 저도 모르게 십자를 그었다.

붉은 번개!

저것은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라 하늘이 내리는 악에 대한 징벌이다. 최고의 신 주피터의 세례… 아, 씨몬. 내 자네의 권고를 따랐더라면… 무분별의 종말이 어떤것인지를 내 그때 알았더라면…

그러나 후회란 언제나 때늦은 법이다.

또다시 고막을 찢는 우뢰소리에 하늘로 고개를 쳐든 빌든은 온몸이 그대로 화석처럼 굳어지고말았다. 아침노을을 헤가르며 자기한테로 뻗어져내리는 《붉은 번개》의 눈부신 빛을 그는 똑똑히 보았던것이다.

하늘을 울리던 퇴성이 멎은 바다에 다시금 고요가 깃들었다. 하건만 아침노을이 점점 가셔지는 저 멀리 수평선을 지켜보는 《유쾌한 사나이》호 선원들의 얼굴에 비낀 의혹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있었다.

《참, 모를 일이야. 하늘이 무슨 조화를 부리는지…》

첫 퇴성이 울릴 때부터 연방 가슴에 십자를 그어대던 구레나룻선원이 중얼거리는 말이였다.

《그건 하늘의 조화가 아닙니다.》

옆에 있던 씨몬이 목소리를 떨며 대꾸했다. 그는 이미 일어나앉아 퇴성이 멎은 앞쪽의 수평선을 공포가 질린 눈길로 바라보고있었다.

《그 빛줄기들은 〈붉은 번개〉요, 틀림이 없습니다.》

선원들의 눈길이 모두 씨몬에게로 돌려졌다.

《그런 이름으로 불리우는 아주 무서운것이지요. 내가 이렇게 자유를 되찾게 된것은 바로 그것의 위력을 알고있었기때문입니다. 난 이미 몇해전에 그걸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조선에서…》

《그럼 그것들은…》

잠시후 바다위에 경보신호가 간간 울리기 시작하였다.

저 멀리 해상으로 여러척의 함선들이 앞방향쪽으로 달려가고있었다. 보매 국제해상경찰의 경비정들 같았다.

그 모양을 묵묵히 지켜보던 구스타프는 무겁게 한숨을 내뿜으며 두눈을 지긋이 내려감았다.

《이보게, 폴. 나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안데르센의 동화이야기를 무척 즐겨들곤 했소.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그때 내가 명상속에 그려보던 그런 동화세계가 아니구만.》

옆에 서있던 1등항해사가 동감하며 고개를 끄덕이였다.

《힘이 있으면 사는것이요 없으면 죽는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지요.》

《〈약자가 되지 말고 강자가 되라.〉 아마 소크라테스의 명언이던지… 결국 인간의 존엄이란 자기를 지키는 힘에 있는거요. 정말이지 저 사람들이 부럽소.》

구스타프의 눈길이 다시금 《동산》호가 앞서간 수평선쪽으로 향해졌다.

1등항해사의 얼굴에도 부러움이 한껏 어려

침묵의 1편

김창근

묵묵히 묵묵히
진렬장을 돌아본다
그날에 원썬놈들이 사람을 죽인
몽둥이, 도끼, 작두, 망치...

오오, 여기서는
그날에 목숨 빼앗긴 사람들의
머리채, 코고무신, 책가방, 장난감...

바라보며 바라보며
여기서 큰소리로 말하는 사람은 없다
여기서 우리 무슨 말하랴
말이 끊긴 이곳에서

톡톡 세차게 흉벽을 치는것 무엇이냐

머리에 못을 박고 사지를 찢고
눈알을 뽑고 젖가슴을 도려내고...
차마 못할짓을 하면서도
원썬놈들은 미친듯이 너털웃음 쳤으니

우리 여기서 무슨 말 하랴
언어가 끊어진
여기 신천의 진렬장앞에서는
심장만이 말을 한다 부르짖는다
—천백배! 오 복수를!

총

여기에 총을 메고 온 사람은 없다
사백어머니묘
백둘어린이묘앞에
총을 메고 서있는 사람은 없다

어머니와 어린이를 갈라놓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는
뼈저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여기에 총을 메고 오지는 않았다

공장에서 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옷차림도 단정하게 여기 서있다
모두 하나같이 꽃같은 아이들은
곱게 옷주름도 잡아 입었다

어찌보면 명절인듯 고운 옷들을 입었건만
세차게 가슴가슴에 고평치는것 있구나
철부지 어린것들이
물인줄 알고 휘발유를 먹었다는

거기에 미제놈들이
불을 지르고 수류탄을 던졌다는
억이 막힌 이야기 들으며

오, 사백어머니묘
백둘어린이묘앞에 서있는 사람들
억세게 가슴마다 틀어잡는것 있노니

미제와 결산은
자비를 모르는 오직 총만이
네놈들과 결산을 낼수 있기에
총, 총을 가지고 불벼락쳐서
원썬의 먹통을 끊어야 하겠기에

여기에 찾아온 사람들
여기에 서있는 사람들
가슴가슴에 멸적의 총을 안는다
어른들도 아이들도
가슴마다 더 튼튼히 선군의 총을 틀어쥐다

있었다.

《앞사람의 승리는 언제나 뒤사람의 용기로 되는 법이지요. ... 선장님, 우리 지체 말고 빨리 〈동산〉 호를 따라갑시다.》

《암! 그래야지. 어서 침로를 잡게.》

×

말레싸해협사건을 두고 온 세상이 끓고있을 때

해적들과 약속한 그 정부의 각료들은 화면에 비치지는 텔레비존의 영상만 얼없이 쳐다보고있었다.

방안에는 우울한 침묵만이 흐르고있었다.

지금 이 시각, 그들의 뇌리에는 도저히 힘으로는 어쩔수 없는 그 나라의 위상을 어찌보려는 자기들의 검은흥심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이제는 비로소 뼈저리게 느꼈듯싶었다.

아, 통일아 통일아!

김 재 원

내 이미 세상을 떠난
선배의 집 찾아가니
평생 애용하던 서재우에
60여년전 그날 그대로 걸려있구나
일필휘지의 족자
《아, 통일아 통일아!》

아버지를 찾듯
어머니를 부르듯
그리도 곡진히
그리도 애절히
찾고 부르며 웨쳤건만
너 왜 아직 오지를 못하느냐

국토를 동강낸 그 쇠가시줄 끊어버리려
피뿌리고 땀바치다 떠나간 령혼들
아직도 눈을 감지 못하고 지켜보는데
너 미제가 버티고선 분렬의 장벽
피빛으로 녹슨 철조망에 울매여
거기 몸부림치고있느냐

통분하다
북과 남
강도가 동강나
마을이 쪼개여지고
가정이 갈라져
장장 60여년

아, 미제
미제에 의해 강요된
이 민족의 분렬
분렬이 없었다면
생기지도 않았을 그 이름
통일, 통일아!

너는 회담탁에서 주고받는
외교적 말마디가 아니다
너는 종이장우에 찍여지는
숨결없는 단어도 아니다
웨치기만 하는 구호도 아니다

너는 생리별 당한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
그렇게 피타게 부르다부르다
헤어진 혈육들의 얼굴조차 못 보고 생사조차
모른채

눈도 못 감고 한 세대가 다 가고...
또 한 세대가 가고있는
이 민족의 절통함이어

어데 있느냐 이 지구우에
이런 민족, 이런 겨레
어디 있느냐 이 세상 천하
초목들조차 생리대로 가지를 못 뻗치고
못집승마저 지뢰를 밟아 피 토하는 땅
저 저주로운 원한의 군사분계선

오오, 언제까지 언제까지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남편과 안해
그 혈분이 그 자손들이
갈라져 있어야 한단 말이나

민족이어 겨레여
외세는 남이다
미제가 통일의 기본장애물이다
역적들을 부추겨 전쟁의 불을 지르고
이 강토를 영영 타고앉으려 하는 괴한들
어찌 그냥 둘수 있단 말이나

6. 15의 밝은 해빛
찬란한 이 땅 이 민족
백두—한나 대행진으로
우리는 환희에 젖어 걸어보지 않았느냐
내 나라 명산 금강산에서
우리는 눈물에 젖어 서로 얼싸안아 안아보지
않았느냐

둘이 하나되면
이루어지는 통일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가슴 대이면
하나되는 통일!

그렇다
6. 15 해빛은
평화의 해빛
통일의 해빛
이 민족 살려낼
운명의 해빛

《 홍 루 몽 》

지난 3월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피바다극단에서 창조한 가극 《홍루몽》을 보아주시고 최상의 수준으로 만들어 《조중천선의 해》인 올해에 우리 인민들에게 보여줄데 대하여 가르쳐 주시었다.

중국의 유명한 고전소설을 각색한 가극 《홍루몽》(붉은 다락의 꿈이라는 뜻)은 가부장적전통이 지배하는 중국의 한 귀족가문의 조락과정을 통하여 붕괴기에 있던 봉건중국의 내막과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보여주고있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문학작품은 비록 개인의 창작물이지만 일단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훌륭한 작품으로 창작되어 인민의 사랑을 받게 되면 그것은 인민의 소유물로, 민족의 귀중한 재부로 된다.》

《홍루몽》은 장편소설로서 120회로 구성되어 있다.

소설은 18세기 중국봉건사회 말기의 청나라 귀족생활의 부패한 모습을 생동하게 보여주는데 이바지하고있다.

가보옥은 소설의 주인공으로서 가씨가문을 대대로 물려받아야 할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부모들로부터 봉건유교교육을 강요당하게 된다. 하지만 소설의 주인공은 자기 한 가정내의 봉건적인 료리관, 생활질서에 환멸을 느끼고 그에 반항하여 나선다.

먼저 주인공은 《사서오경》읽기를 거절하고 금지되어있는 《서상기》와 《모란정》을 즐겨본다.

보옥의 아버지는 아들을 《아비를 죽이고 왕을 죽일 놈》이라고 욕하면서 매질과 위협을 하지만 주인공의 반발심은 더욱 높아간다. 주인공은 봉건 귀족들이 것처럼 열망하는 과거를 보잘것 없는것으로 여기며 부귀공명을 멸시한다.

또한 소설에서 경도부윤 가우촌이 만나러 왔을 때 주인공은 그런 벼슬아치는 만나고싶지 않다고 하면서 거절해버리며 자기 누이 원춘이 왕비가 되

여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부러워할 때도 그리 달가와하지 않는다.

그리고 소설의 주인공은 사람들을 신분적으로 엄격히 구별하고 상하의 뚜렷한 차이를 두는 봉건적신분제도와 남존녀비사상에 불만을 품고 자기 집의 종들을 동정하고 녀자들과 평등하게 지내며 하녀, 시녀들과 같이 있는것을 제일 좋아한다.

또한 소설에서 부유하지 못한 판리의 딸인 림대옥(보옥의 고모사촌)은 부모가 돌아간 후 외가집인 가씨가문에 의거하여 불쌍한 생활을 하게 된다. 그는 가씨집에서 언제나 모멸과 조롱, 위협을 몸가까이 느끼면서 눈물과 슬픔속에서 날을 지나 보낸다. 그러나 가씨집에서 자기를 리해해주고 동정해주는 유일한 존재인 보옥이를 마음의 기둥으로, 생활의 벼으로 삼고 참기 어려운 생활을 견디어나간다. 보옥은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온 총명하고 고운 대옥이를 열렬히 사랑한다.

한편 보옥의 이모사촌인 설보채는 보옥이를 쟁취하기 위하여 그의 할머니, 어머니를 비롯한 가씨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갖은 아양을 다 편다. 그는 사촌형님인 왕희봉과 흥계를 꾸며 림대옥으로 변장하고 보옥이와 잔치를 하게 된다. 대옥은 보옥이와 설보채가 결혼했다는 말을 듣고 기절하여 그날 저녁에 죽고만다.

보옥은 대옥이가 죽고 설보채를 자기 안해로 만들었다는 놀라운 말에 격분하여 집을 나가 중으로 되고만다. 그리하여 완고한 봉건적인 가부장제가 오랜 세월 내려오던 가씨가문에는 금이 가기 시작하고 뒤흔들리기 시작한다.

장편소설 《홍루몽》은 봉건제도에 대한 비판이 불철저하고 유교교리에 의거하여 무너져가는 봉건가정을 추켜보려고 시도한 본질적결함과 함께 내용전개와 생활묘사에서 일정하게 지루하게 전개한 부족점을 가지고있으나 멸망기에 처한 중국봉건사회의 내막과 내부모순을 옹골쳐 폭로하고 그 멸망의 불가피성을 생동한 형상으로 보여주었다는데 작품이 가지는 커다란 의의가 있다.

김 영 성

아이들 동요에도 쟁쟁 울리지 않느냐
내쫓자 내몰자
통일의 장애물 미군을
침략자 불청객 양키를

아 통일이어 통일이어
할아버지 할머니들 더 가기 전에

아버지 어머니들 더 백발이 되기 전에

침략자 매국노 다 몰아내고
통일강국을 세워야 한다
온 겨레가 힘을 합쳐
아리랑 단일민족으로 길이 번영할
통일이어 통일이어 내 민족통일이어

품자시

《 구 두 미 싸 일 》 외 1 편

김 용 엽

용감무쌍히 벗어던졌다
이라크기자 알 제이디
세계기자들과의 회견장 면전에서
회담탁 부쉬에게 신발 두짝을

《이라크인들이 보내는 〈작별키스〉 다, 개자식》
휘익—
《남편잃은 녀인들과 목숨잃은 사람들
고아들뭉치다, 개자식》
휘익—

특등보도전파가 우주를 채웠다
《초대국대통령》이라 으시대던 부쉬
임기 8년에 개로 락인되어
세상없던 《구두미싸일》 공격까지 받았다고

보였으리 기자의 그 눈엔
회담탁에 뺨뚫서하게 선 부쉬
벨전 혀바닥 내밀고 침 질질 흘리며
더 먹겠다 으르렁거리는 비루먹은 개로

분명 보였으리
백주에 이라크를 강탈한 날강도 미제
연유도 나라도 뜨물처럼 채먹는 개
사람도 마구 물고 뜯는 미친개로

그러니 제격 아니라 신발짝이
마지막숨 몰아쉬는 부쉬
미친개무리 미제에게
온 인류가 강타하는 분노의 주먹이다
정의의 력사가 차던지는 발길질이다

내 안내해주마

분명 환장할 부쉬
제가 제일인듯 졸렁거리다
세계의 면전에서
신발짝세례까지 받았으니

제 신발 보고도 흠칠흠칠
녀편네 신발 보고도 와들와들
자다가도 별뿔 일어나 신발짝이다

날새만 스쳐도 날아온다 신발짝이라고
대가리를 싸쥐는 부쉬

부쉬씨, 백악관에서 쫓겨난데다
환장까지 하면 되겠소
내 미리 안내해주지
신발짝없는 공동묘지로